

1997년 8월 25일,
교육의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실천하는 교육

EBS가 위성교육방송을 통해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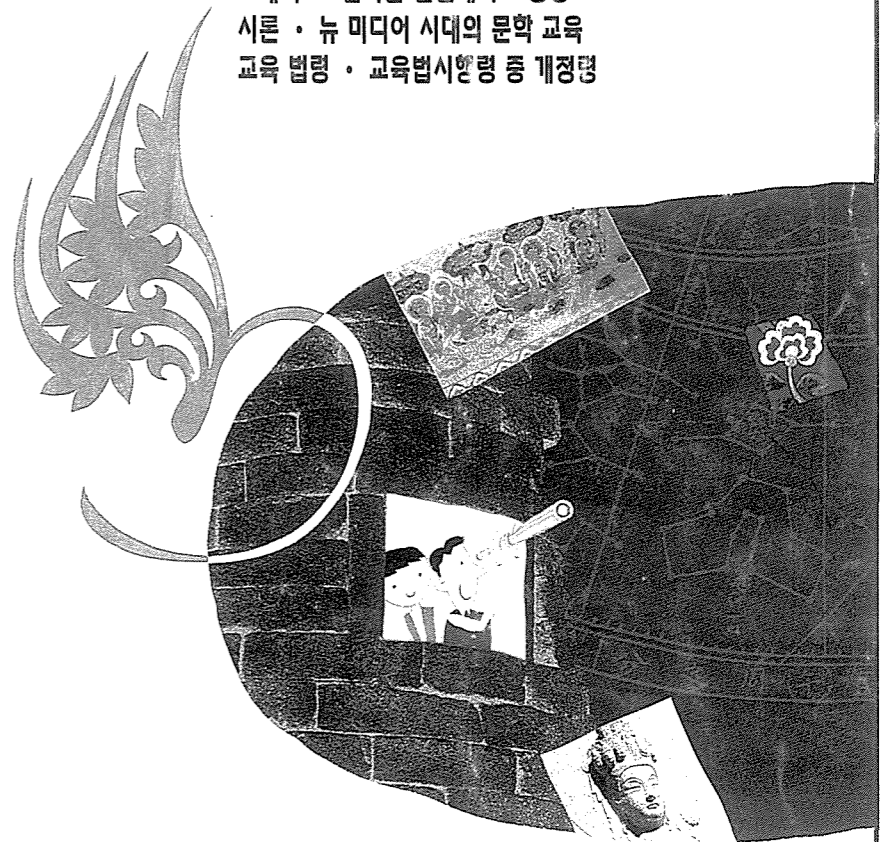
단석호 3장대리

1997 10

지16권·제10호·통권190호·정간위원회의번호 95-12-5-81·월간·1997년10월 발행
정간물등록번호 27000-81103-32-3301·서울특별시중로구세종로77·교육부 110-160

- 특별 기획**
- 1 문학 유산의 해와 교육 과제
 - 2 남북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총대석 · 김학준 인천대학교 총장
시론 · 뉴 미디어 시대의 문학 교육
최옥택 · 교육전시행령 총 개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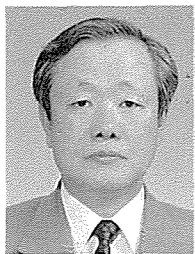


교육부

신교육을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예절 교육



신영범
서울 운곡중 교장

어느덧 가을이 왔다. 드높은 가을 하늘과 누렇게 물든 가을 들녘에는 고개 숙인 벼이삭이 황금 물결을 수놓는다. 전국의 곳곳에서 문화 잔치가 열리고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문화 유산 답사가 한창이다. 그리고 대규모 국제 행사도 열리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폼페이전, 마야유물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 잔치에 흠뻑 빠져 문화의 향기를 즐기다 보면, 우리 사회의 메말라버린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나 예절의 자화상을 찾는 계기도 된다. 외국의 탁월한 문화재 보존 기술이나 정성스런 보호 장치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자라나는 2세대에게 조상들이 남긴 문화 예술의 혼과 자부심을 일깨우고, 정중한 예절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 *

●교사용 지도 자료

1997 ● 10 ● 통권 190호

교육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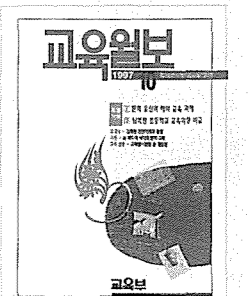
신교육을 위하여	2	문화재에 대한 예절 교육/신영범
권두시	4	우리글 한글/김후란
교육 현장은 말한다	6	이혜영/최영선/김철하/김영석/홍관석/이재섭
초대석	8	김학준 인천대학교 총장
시론	12	김정일 시대의 북한/도준호
	14	家永 교과서 최종심 판결을 접하고/이원순
	16	뉴미디어 시대의 문학 교육/김성곤
	18	한글의 참모습을 찾자/한재준
교육에 바란다	20	토종 살리기에 교육계가 앞장서자/허용용
인터뷰	120	'97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조일묵 조직위원장
특별 기획 ①		문화 유산의 해와 교육 과제
	22	문화 유산의 해와 문화 교육/한병삼
	26	문화 교육의 반성과 향후 과제/김제춘
	30	문화 유산의 해와 학교 교육/박익환
	33	문화 유산 교육, 이렇게 실천했다/진인호
특별 기획 ②		남북한 초등 학교 교육과정 비교
	37	남북한 초등 학교 교육과정 비교/김영일
	41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윤현진
	46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최현섭
	50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황해정
	54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최석진
	58	자연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최돈형
교육 정책	64	학생 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중등장학관실
교육 법령	66	국립 대학 경영 진단 평가 사업 실시/대학지원총괄과
교육 개혁	68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
역사 문화 탐방	62	교육 개혁 과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교육정책총괄과
교단 성공 사례	84	책판의 고장, 산청/글 신영훈, 사진 김대벽
북한 소식	76	생일 축하 잔치를 통한 인성 교육/김진석
나의 스승	90	북한의 인기 있는 고등중학교/장수근
에듀넷 안내	78	문학과 삶을 가르쳐 주신 황순원 선생/김종희
교육 체험 수기	80	에듀넷 웹 서비스 교육 자료실/박영애
교육 정보	92	안개꽃과 함격증/조영혜
	98	복잡성 과학이란 무엇인가/장승권
교단 문원	100	21세기를 위한 성공적 학생 지도/이관용
	102	좋은 책 안내
	104	유럽의 새/박창원, 숲/구상길
	106	한동산 선생님/김용대, 고금도 사람들/강정삼
	108	미숙이의 장학금/마대복, 갈대를 보며/임승헌
교육 뉴스 종합	110	교육부 인사 외
	116	시·도교육청 뉴스
지상전	121	구원 95-13/강관옥

국정 지표

●신한국 창조●

1. 깨끗한 정부
2. 튼튼한 경제
3. 건강한 사회
4. 통일된 조국

장간위심의번호 96-12-5-81
1986년 10월 8일
발간등록번호 270000-81103-32-9301
1982년 1월 20일 창간
1997년 9월 30일 인쇄
1997년 10월 1일 발행
일간 교육일보 통권 제190호
발행인:교육부장관 이명현
편집인:김영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전화:736-3977, 738-2343
FAX:736-3670
에듀넷 ID:Koob
하이텔 ID:7363977
인쇄: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일보》에 게재된 내용은
교육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지역 축제 한마당으로



① 일제에 의해 1926년 절거되었던 경북공 흥례문 복원을 위한 기공식이 지난 9월 11일 고 건 국무총리와 고병의 문화 유산의 해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 개기 고유제(開基告由祭)로 치러졌다.

② 이명현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APEC 인력 개발 장관 회의의 기조 연설을 통해 APEC 회원국 간의 인력 개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 이명현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10일 다리 자지(Daif Jazi) 튀니지 고등교육부장관과 '97~99 대한민국 교육부와 튀니지 고등교육부 교육 교류 약정'을 체결했다.

④ 맑고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각급 학교의 운동회가 한창이다. 올 가을 운동회는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지역 축제 한마당으로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사진 제공 : 전라남도교육청).

⑤ 이명현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8일 국립교육평가원(원장 박도순)을 방문,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⑥ 이명현 교육부차관은 지난 9월 25일 자코파(Zakpa) 코트디부아르 직업훈련기술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의 직업 기술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⑦ 이명현 교육부차관은 지난 9월 2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장회 정기 총회에 참석, 교육 개혁과 국민 정신 계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 현장은 말한다

우리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평을 기다립니다.
교육 현장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제도나 관행, 그리고 불만스러움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설적 제안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원고는 그달치 《교육월보》와 소정의 원고료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소속 기관, 거래 통장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교육부 교육조사통계과 교육월보편집실, TEL (02)736-3977, FAX (02)736-3670, 에듀넷ID:koob, 하이텔ID:7363977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우리 모두 나서자

이해영 교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최근 소년 소녀 가장 등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자살은 우리 성인들, 특히 이웃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슴 아픈 일이다. 지난 18일 숨진 소년 가장 김모 군도 가출한 어머니의 빚을 갚으라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빌려 준 돈을 받으려는 사채업자들의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어린 가장에게 협박한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것 같다. 우리가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까지 내놓고 있는 마당에, 어려운 역경을 딛고 열심히 살아 가려는 청소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번 소년 가장의 죽음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없는지 따뜻한 마음

으로 돌아보고, 보다 체계적으로 돕는 길을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위성교육방송, 발전적 방안 마련을

최영선 학부모,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성교육방송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으며, 80%의 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겪고 있는 학부모로서 우선 반가운 일이다. 과외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차제에, 학생들이 위성교육방송 시청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학교 수업에서 얻지 못한 부분의 학력을 보충받으면서, 아울러 보다 질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방송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수업 내용을 수준별로 세분화한다든지, 수업 전개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실제로 어느 한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다든지, 묘안을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방송 관계자들의 보다 진취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청소년 호출기 사용 자제시키자

김철하 경기도 성남시 단남초등학교 교사

우리 나라 정보 통신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가운데 호출기의 보급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높게 되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PC 통신과 호출기, 시티폰 등의 통신 사용료를 연체한 청소년 10만여 명이 신용 불량 거래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한 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사용료를 받아 내려는 통신 업체들이 청소년도 성인들과 함께 묶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신용 전과는 일반적으로 범죄 전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주는 심리적 타격은 크다고 본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통신 기기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책임 있는 관리로 전과자의 멍에를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진 문화적 특징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도 절제의 미덕을 가르쳐 청소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과외나 학원 의존 자녀 교육 재고를

김영석 서울신대림초등학교 교사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 과잉 보호를 하거나 학원에 의지하여 자녀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집 막내가 컴퓨터 학원에 다닌지 꽤 오래 되었다. 그런데 시간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매달려 균형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늘 걱정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특별히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지 않아도 모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험 실습 교재도 많고 학습참고서 종류도 다양해 공부 여건이 훨씬 좋아졌지만 과외나 학원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과외나 학원에 의존하지 말고 아이가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로서 생각해 보자. 우리집도 세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릴 때가 많다.

영약스럽고 당찬 아이보다 아이다운 아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아이,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아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다.

교원 연수 학점화에 대하여

홍 판석 경북 성주군 월항초등학교 교감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원 연수 학점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교원 연수 학점화' 방안은 교원의 전문적 능력과 소양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동안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여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숨은 교원들이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실로 교원들의 연수 성적은 인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교직원에게는 누구에게나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에 예고된 연수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연수나 연구 활동에 참여할 많은 교원들이 새 규정 확정 후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기왕의 연구나 연수가 소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서나 학회지 및 각종 연구 회지에 게재 발표된 연구 논문의 학점 인정 문제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여 만들어 낸 저작물(학급·학교·서클 문집이나 교육 실천기, 연구 논문집, 동인회지, 창작 작품집 등)과 학회지나 연구 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실천 사례 등을 제작·게재 시기를 따지지 말고 교직 전 기간의 것을 모두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만일에 규정 공포 이후의 실적에 한해서만 인정해 준다면, 일부 교원들은 운이 좋을 때를 잘 만났다는 자조적인 시평을 보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발표할 때를 기

다려 발표할 염려도 없지 않다.

일이 이렇다면 지금까지 온갖 고생과 부담을 안고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실적을 쌓아 온 교원들이 얼마나 큰 허탈감에 사로잡힐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물론, 미리 실천한 이들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보상을 생각해서 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들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열린 교육으로 가는 길

이재섭 서울상봉초등학교 교사

열린 교육의 길이 열렸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언제는 닫힌 교육이었느냐?"고 힐난할지 모르겠다. 배우고 가르치는 가슴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교과서에 국한된 가르침에 배움의 물을 넘어서 좀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이 교단의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률적 가치 척도보다는 개성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폭넓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의 교육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찍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자.'는 외침을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인성이 살아 숨쉬고, 실력보다는 능력이 마음껏 활개치는 신나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한다.

푸른 꿈을 가슴에 안고 커나가는 국가의 동량이 적재 적소에서 소임에 충실하는 만큼 국력은 더욱 신장될 것이다. 나름대로의 보람과 긍지를 한껏 맛볼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또한 열려 있어야 한다. *

김학준 인천대학교 총장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 대학으로 비상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그 나라의 대학 교육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인천대학교는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 대학으로 비상하기 위해 1994년부터 시립대학으로 새롭게 출범, 대학 본연의 교수·연구·봉사 기능의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로 격심해 가는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발맞춰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명문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외국의 우수 대학과 학술 교류의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대학 교육 특성화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금년 10월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김학준 총장은 열성과 소장 교수를 중심으로 '인천대 발전 전략 사업단'을 발족, 향후 10년 내 국내 10위권 명문 대학 성취를 목표로 불꽃 같은 열정을 태우고 있다.

대담 · 김용옥 (교육일보편집실)

먼저 인천대학교 총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간 총장직을 수행하시면서의 회고와 대학 경영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 직선으로 1차 투표에서 당선되어 지난해 10월 23일에 취임해 어느새 1주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도움으로 미래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인화에 노력을 쏟았습니다.

대학 총장은 대학 구성원과 긴밀한 의사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학 교수나 일반 교직원 그리고 학생과도 늘 열려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취임 후 모든 과와 모임을 가져 각 과의 요구 사항을 청취했고, 직원과의 화합, 학생 동아리와 별도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데 100여 일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의사 소통으로 그 동안 산재한 학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을 찾아가게 되고, 발전 방향들도 다각도로 모색되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구성원들과의 거리를 메꾸고 가깝게 해 주는 데 기여해 총장 선출시 내세웠던 '인화 속의 발전'으로 대학 경영의 혁신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려는 탐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소장 교수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인천대학교 발전 전략 사업단'을 발족했는데 약칭 '전사단'이라고 부르지만, 교수회의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 이른바 'ten-ten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국내 명문 대학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으로의 진입을 위한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해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제까지의 대학이 가지고 있던 구조인 모든 학과의 백화점식 나열인 학과 개설로는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2003년에는 대학 학생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과에 강조점을 부과해 과 나름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인천이 접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명문 대학으로 육성하려는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생존 경쟁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대학의 발전 과제도 수립되어야



김학준 총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음.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미국 버클리대 객원연구원, 일본 동경대 국제관계학과 객원교수, 12대 국회의원,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및 대변인, 단국대 이사장 역임. 현재 인천대 총장. 저서에 <한국 문제와 국제 정치>의 저서

하리라 봅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총장님께서 이런 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21세기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운 여러 가지 발전 전략 가운데 현재 추진하고 계신 구체적인 구상을 들려 주십시오.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한·중 관계의 개선에 맞추어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전국 3번째 도시로 부각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산보다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동북아 시대의 중심 도시로 떠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동북아발전연구원(NADI)'을 지난 3월에 개원해 동북아 주변 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인천 지역의 국제화 선도는 물론 동북아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원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들을 상임 연구원으로 하고, 3대 국책 연구원인 KDI, 산업연구원, 해운연구원의 원장을 모두 역임한 송희연 박사를 초빙해서 특성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내 최초로 3월에 '동북아국제통상대학원'이 교육부 인가를 받았고, '동북아국제통상대학'의 개설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각각 미·중·일·러시아 통상학과의 학생을 선발해 동북아 시대에 무역·통상·금융 분야의 일선에서 일할 우수 인력의 교육과 배출에 나섬으로써 통상사관학교생도의 역할과 같이 직접 실무를 담당할 인력에게 전원 장학금을 지급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대우의 지원을 받아 '동북아교류센터'가

완공되는 '99년 봄 학기부터는 동북아 석학들과 대학원, 학부 학생이 직접 만나서 학술 교류 지원의 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공과대학의 육성입니다. 본교는 인천공과대학으로 시작해 교수진·학생의 40%가 공과대 소속으로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받은 올해 'TIC(Technology Innovation College)'로 선정돼 8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 지역 중소기업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산·학·연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기술력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인천시와 통상산업부에서 135억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신도시에 미국 전자산업의 최전선 기지인 실리콘 벨리와 같은 '미디어 벨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동이 활성화되도록 정보 산업 쪽에도 특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정보통신대학원이 지난해 설립되었고, 5월에는 '멀티미디어종합연구센터'가 발족되어 산업·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고급 인력의 양성·배출로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리라 전망합니다. 이러한 3가지 영역의 차별화 교육에 매년 50억원씩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점차 시 지원금이 100억에 이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지성을 알려면 그 나라의 대학에 가 보라'는 속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모습에서 한국 지성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면, 열심히 연구하는 교수가 그 대학의 지성으로 대표되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대학의 학생 문화 또는 학생 운동도 새로운 창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한 경쟁 시대에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 문화의 변화 방향과 국가 동량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무엇이라 보십니까.

대학인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한국 대학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대학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는 '화두'와 '화제'가 달라져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의 화두가 '책' 중심의 화제로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국 문제, 보직 등의 논의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어떤 학술지에 무슨 논문을 게재했느냐 등의

고전적인 대학 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대학답게 학문 중심의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의 역할도 연구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연구실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해서 연구실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대학의 본질을 살리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세 가지 기능인 학문을 창조하는 '연구의 기능', 학문을 전수하며 전문 지식을 배우게 하는 '교육 기능', 학문을 응용·보급하는 '봉사 기능'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학기에는 사회 봉사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천대학인은 누구나 전공과 관계 없이 컴퓨터(computer), 회화 능력(conversation), 예절(courtesy)을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3C' 교육을 일반 목표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는 능력과 믿음을 심어 주려고 합니다. 특히, 체계적인 외국어 연구와 필수적인 외국어 습득이 요구됨에 따라 '어학원'을 활성화시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러시아어'의 강좌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술 정보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연구소와 도서관까지를 한데 묶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도약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학내 시위가 없어졌습니다. 한총련 간부 전원이 탈퇴해 새로운 인천대학의 위상을 세우려는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경영도 교육 시장의 개방 등으로 경영 합리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국제 감각을 익힐 전문 인력 확보에 어떤 노력을 쏟고 계신지요.

앞에서 우리 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시대의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북아 지역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국제 학술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협력 관계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대, 천진대, 남개(南開)대, 동북 전력 학원, 하얼빈 공과대학, 천진대, 연변대 등과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미국의 알래스카 주립대 및 유타 주립대 등 태평양 중심의 우수한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거기에 걸맞은 총장의 경영 수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총장은 위가 커야 한다고 합니다만, 아침·점심 2~3 차례씩 식사를 해야 할 만큼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한다는 말인데, 기업·지역 사회로부터의 지원금 모금에까지 적극 나서서 빈약한 대학 재정에까지도 총장의 경영 능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총장님께서도 외교, 국방 등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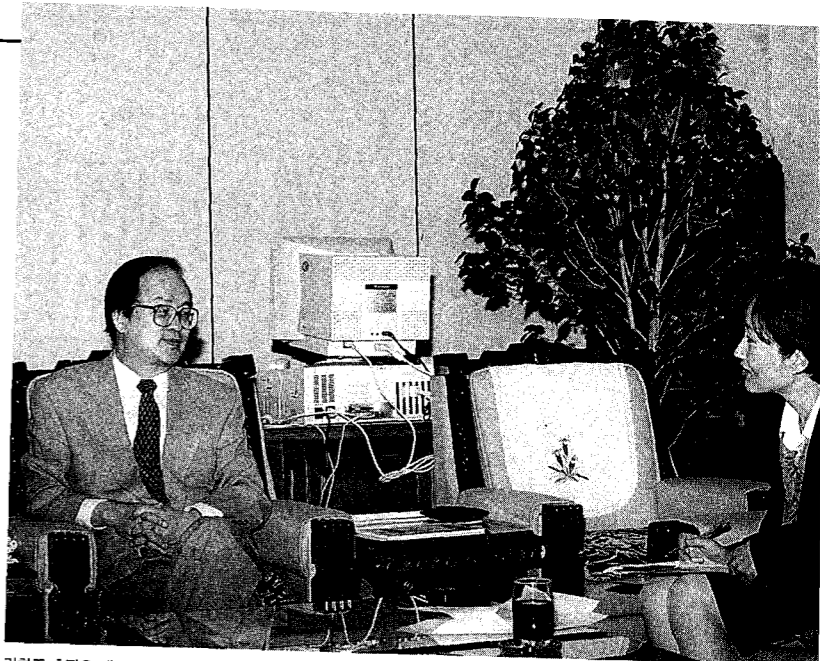
부문에서 타고난 열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책 입안에 관여하시고 특히 남·북한 통일 정책에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통일에 대비한 대학 교육의 구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2000년대 초엽에는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견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통일 상태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활동 무대를 넓혀 좁은 한반도에서만 활동하려고 하지 말고 국제 무대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공식석상에서 강조합니다. 외국에 나가 활동할 때, 그 활동 무대에서 2, 3대까지 뿌리내리고 살면 거기가 바로 '한국'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2의 한국'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을 보고 섬나라 근성이 있다고 비하시킵니다만, 일본인 후지모리의 아버지가 페루에서 정착하고 뿌리내렸기 때문에 후지모리라는 '페루'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넓은 무대에 나가 활동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럴 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래의 통일에 대비할 역량이 축적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하시면서 교육 개혁과 관련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교육비를 GNP 5%로 높였습니다만 교육비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공교육이 충실해야만 현재의 사교육비 과잉 지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학준 총장은 새로운 대학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책' 중심으로 화두와 화제가 달라져야 함을 강조했다.

다. 학교수를 늘려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거기에 따라 최근에 야기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 문제도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 투자가 더 확대되어서 교육 입국이라는 것발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21세기에 걸맞은 교육을 시켰느냐에 국가 장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 부문에 충실해 기업에서 양질의 제품이 생산되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학생 선발권 및 입·퇴학 권한은 대학 자율에 맡겨 그 대학의 설립 철학과 학풍에 맞는 학생을 뽑고 길러낼 수 있도록 전적으로 대학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교육·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우리 교육도 발상의 대전환이 따라야 합니다. *

21세기에 걸맞은 교육을 시켰느냐에 국가 장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 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대학 설립 철학과 학풍에 맞는 학생을 뽑고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교육도 발상의 대전환이 따라야 합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

도준호



도준호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북한의 입장으로 볼 때 앞으로 전술적인 변화는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적인 변화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소프트 랜딩 정책의 목적지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며 남한이 추구하는 남북 대화 목적지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시대'가 되었다 해서 김일성의 폐쇄적인 정책을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그의 시대 정책 폭을 제한하고 비전 제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평남을 시작으로 인민군, 평양시당 등의 각 시·도노동당대표회가 김정일 총비서추대결정서를 채택함으로써 김일성 사망 후 공식 중이던 당 총비서를 김정일이 승계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공식적인 절차는 전국당대표회에서 구성하는 전원회의에서 선출하지만 전원회의가 구성도 되기 전에 각 시·도대표회에서부터 추대 결정을 채택하는 것은 추대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시·도대표회에 이어 전국당대표회, 여기서 구성되는 전원회의순의 절차를 거쳐 그가 총비서에 선출되는 것은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 전후쯤일 것으로 관측되며 아니면 좀더 늦어질 수 있다.

식량 부족 등 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정일의 권력 승계 절차를 밟게 된 것은 김일성의 3년상도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미를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 사망 후 외부에서는 그가 곧 바로 승계할 것으로 보았으나 '아버지 상도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뤄 왔다. 일부에서는 그의 승계는 형식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비서에 취임하지 않아도 각 부문의 고위 간부 인사권과 당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해 온 상황에서 그의 총비서 취임에 새삼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 국가에서는 전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국가 권력을 사물시키고 있는 북한이지만 그가 총비서에 취임한다는 것은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

'김일성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김정일 시대'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지난 '74년 그가 후계자로 선정된 후 김일성이 사망한 '94년까지 만 20년 동안 그가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배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지배였다. 또, 김일성 사망 후 지금까지는 이른바 '유혼 통치'만 하면 됐다. 하는 일이 잘못되어도 김일성의 유혼이라고 하면 그만이었다. 많은 주민이 기아 상태에 해매어도 "수령님이 경제 문제는 정부원에 맡기고 당과 군을 챙기라."고 했다면서 경제 문제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북한 최고 실권자인 총비서에 오름으로써 권위와 함께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대외 정책, 경제 등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주석이지만 주석이 공식 상태이고 또 그가 주석에 취임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런 사정에서 국가 정책의 모든 것에 대한 당의 지배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북한에서 당을 지배하는 총비서가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김일성 3년상이 끝나면서 봉건 왕조 시대처럼 사망한 김일성의 출생을 기준으로 한 '주체 연호'를 사용하는 등 김일성 우상화를 내재화해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더 이상 '유혼 통치'에만 매달릴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상태로는 새로 내세울 비전이나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대내적으로는 그의 권위가 높아지고 카리스마가 강화되면서 군부에 대한 그의 지지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겠지만 심각한 경제 문제와 외교적 고립을 풀 방법이 없다. 정상적으로 생산해도 매년 1백50만 톤에서 2백만 톤이 부족한 식량 문제는 최근에는 기상 재해까지 겹쳐 더 더욱 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년 전부터 식량 획득을 위한 구걸 외교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처지에 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무슨 뽕죽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외 정책도 현재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중심 고리로 해 자신들의 안전 보장과 함께 식량 지원을 받아 내는 것이다. 대일 외교는 중전보다 훨씬 강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국 접근은 일본과의 접촉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시작했다.

'90년대 초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청구권 자금을 받아 내 경제 회생을 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통과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방향을 바꿔 미국에 접근했다. 다행히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더욱 위협하다는 인식에서 기초한 미국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정책 채택으로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받았지만 피폐한 경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50억달러에서 1백억달러로 추정되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일본과의 외교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시도할 것이다.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은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중국의 개방 노선이 수정주의이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서방의 책동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혈맹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 왔지만 내면적으로는 어정쩡한 관계였다. 갈수록 경제가 악화되고 외교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도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과의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남 정책은 기존의 혁명 노선을 유지하면서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문 문제'를 핑계로 김영삼 정부와는 철저한 단절 정책을 써 왔다. 또, 한국과의 문제는 미국과 통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른바 '식민지' 인식을 가져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북한의 절박한 사정이 남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민간을 중심으로 접촉을 확대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북한이 획기적인 지침서라고 선

전하고 있는 김정일의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유혼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보면 중전보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 강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우리는 미국을 백년 속적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린방인 일본을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며 비정상적인 조일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고 밝히며, 일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대남 관계에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실지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민족의 운명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으로 볼 때 전술적인 변화는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적인 변화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소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며 남한이 추구하는 남북 대화 목적지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붕괴하며, 그래도 개방 속에만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충고를 북한 붕괴책 등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현재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김정일 시대'가 되었다 해서 김일성의 폐쇄적인 정책을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그의 시대 정책폭을 제한하고 비전 제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방은 정권 붕괴라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김정일 시대라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

家永 교과서 최종심 판결을 접하고

이원순



이원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29일,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이른바 '이에나가(家永) 교과서 소송' 가운데 마지막까지 계류되어 있던 제3차 소송에 관해 최종 판결을 언도했음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었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합헌적 제도이지만 수정을 지시한 검정 내용 중에는 부분적으로 위헌 사항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국가는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家永 교과서 소송의 시작은 1965년 6월에 당시 동경교육대학에 재직하던 역사학자 家永三郎 교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검정을 출원한 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당국인 문부성이 수정을 지시하자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이른바 제1차 소송)를 제기함으로써 비롯되었다. 家永 교수는 이어 '67년 6월에 검정 불합격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제2차 소송)을 제기했고, '84년 1월에는 '80년대 검정을 문제로 국가배상청구소송(제3차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 세 가지의 소송 때문에 열리게 된 일련의 재판을 통칭하여 흔히 '家永 교과서 재판'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교과서 소송 재판의 최종 판결이 최고 재판소에서 인도됨으로써

장장 32년 간에 걸쳐 진행된 '교과서 재판'의 결말이 맺어지게 된 것이다. 소송 제기에서 최종 판결까지 32년이 소요된 家永 교과서 소송은 일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국에서도 주목받아 온 재판 소동이었다. 처음에는 家永 교수와 검정 당국과의 소송 문제였으나, 점차 이 소송이 교과서와 교과서 검정 제도를 문제삼아 국가 권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으로 이해되고 또 교육의 자유·학문의 자유와 결부된 문제라고 확대 인식되어 家永 교수를 후원하는 학자와 시민들이 조직적 지원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적인 문제로 성격이 전이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주변 국가에서는 이 소송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향방과 미래사에 임하는 역사 교육의 방향을 가늠할 법적 문제로 간주하여 이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그 재판 결과를 주시하여 왔던 것이다.

32년이나 걸린 재판 과정에서 10차례 걸친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에 얻어진 긍정적 의미도 컸다. 국가 권력이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남용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된다는 선행적 사례를 남겼다는 것도 그

하나이다. 한편, 교과서 검정 제도를 통한 국권의 남용에 대한 정당한 합법적 저항으로 인식되어 이 소송을 일본의 양심의 발로요, 민주적 성장이라고 의식하는 주변 국가의 호의도 얻을 수 있었다.

검정 제도 자체에 있어서도 1989년에 검정 수속의 간소화·중점화나 검정 내용의 일부 공개 등 일본의 행정 당국 간여가 대폭 완화되는 개정 조치가 취해진 것도 家永 재판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家永 교과서 검정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학자·문화인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바른 역사 인식, 역사 교육에 관한 시민적 관심이 사회적 저변으로 확대되었음도 주목해야 할 수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980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국제역사학회에서 일본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국내 문제라고 할 家永 교과서 재판 문제를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자유 침해 문제로 객체화시켜 세계적 문제로 호소하는 진지함에 감명을 받은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나 역사 교육자들이 재판의 추이에 귀추를 주목하게 되었음도 그 파급 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권과 교육의 문제가 세계적 관심으로 부상되었던 것이다. 교과서 검정제를 빙자한 국권의 남용과 역사의 왜곡은 여하한 이유에서든지 제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세계적인 인식으로 자리잡는 데 일조한 재판이었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그것을 운용하는 국가의 정치적 필요와 배려에 따라 그 의미와 시행 형태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일국의 국가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라 할지라도 그것의 운용이 정상을 벗어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되어 바른 역사 인식을 그르치고 이웃 나라를 위해(危害)하는 근거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家永三郎 교수가 문제삼았던 수정 지시 내용은 모두 10개항이었는데, 이번 최종 판결에서 악명 높은 '731부대의 생체 실험 문제'의 지시 내용이 위헌이라고 단언되었다. 그 이전 재판에서 이미 수정 지시 남용으로 판결된 '남경대학살', '중국에서의 부녀 폭행' 그리고 일본 국내 문제인 '草莽隊' 세 개 항까지 합하면 모두 네 개 항만이 권력 남용의 위헌 사안으로 단죄되었을 뿐인 셈이다. 그 밖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부성 당국의 수정 지시가 타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재판의 오랜 과정 동안에 원고인 家永三郎 교수가 보여 준 끈질긴 집념과 강한 추진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간의 이해 다툼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상대한 투쟁이었으며, 그를 뒤에서 후원하는 지원 조직의 활동이 있었다고는 하나 家永 교수에게는 고독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유혹과 협박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비록 판결 내용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지만 그 간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싸워 온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를 위해 증언한 200여

증인들과 그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시민 조직에 참여한 시민들의 활동에서 우리는 일본에 미래의 기대를 걸어 보게 되는 것이다. 家永三郎 역사 교과서 재판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일본의 이른바 역사 왜곡 인식의 문제, 역사 교육의 편향성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랜 재판에도 불구하고 수정 지시 사항 자체에 관한 판결에도 불합리한 점이 엄연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의 기술(記述) 내용이라든가 역사 인식의 문제는 단언코 '재판'에 의해 결정지어질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국회사 지방회의의 결의라는 '수(數)'의 횡포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도 아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영광의 역사로 규정하고 그것으로 국민 의식을 진작하여야 한다는 '집단적 압력'으로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역사 교육의 문제는 학문의 마당에서, 교육의 마당에서 결정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家永 교과서 재판의 긍정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家永 교수와 그 지원 세력인 양식을 지닌 일본인들이 이 최종 판결에 만족한다면 역사의 왜곡 인식을 묵인하는 죄를 범하는 퇴영적 태도라고 단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릇된 왜곡 인식을 극복하고 교육 방향을 정립시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이제부터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노력이 가시권 내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확을 거두게 될 때, 아시아 제 국민은 비로소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의혹을 풀고, 다가오는 미래 역사의 동반자로서 일본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

뉴 미디어 시대의 문학 교육

김성곤



김성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 받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브리검 영대,
영국 옥스포드대,
캐나다 토론토대 객원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 인문대학 영문과 교수.
저서에 <문학과 영화 : 영상 시대의
문학론>, <뉴미디어 시대의 문학> 외
다수

요즘 학생들은
영화로 보면 됐지 굳이
문학 작품을 책으로
읽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시각적인 이미지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상상력이 부족한 법이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굳이 머리 속에서 상상하고
사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학 작품은
바로 그 상상력과 사고력을
배양해 주는
가장 좋은 매체가 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놀라움 반 두려움 반으로, 급속도로 변해 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안방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 파고 든 컴퓨터는 불과 십수 년 만에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 양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세대 간의 단절을 불러왔다. 어른들은 컴퓨터의 놀라운 속도와 용량과 기억에 경탄하면서도 그것을 제어하고 조종할 능력의 부재로 인해 좌절감과 거부감 속에 빠져들었고, 컴퓨터가 삶의 일부가 된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물론, 싸늘한 플라스틱이 우리 사회에 등장해 인간 사이의 단절을 초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는 이미 오래 전에 안방에 등장해 가족들의 대화를 끊어 놓았다. 그러나 컴퓨터의 등장은 세대 간의 유대마저도 단절시킴으로써 텔레비전의 못다 이룬 사명을 완수했다. 더구나 정보와 오락의 일방적인 전달 매체인 텔레비전과는 달리, 컴퓨터는 사용자끼리의 상호 교류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고, 급기야는 TV수신 카드를 장착해 텔레비전의 기능마저도 빼앗아 가 버렸다.

젊은이들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 텔레비전과 영화를 보며, 대화방과 전자우편을 통해 어른들은 알 수 없는 자기들만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들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그 공간에 기성 세대가 들어갈 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이버 공간에서 젊은이들은 자신들만의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그러나 어른들은 오늘도 그 '사이버' 공간이 자칫 현실과 괴리된 '사이버' 공간이 되거나 않을까 우려하면서, 젊은이들이 오직 컴퓨터 스크린의 윈도우(창문)만을 통해 현실과 조우하고 있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구태 의연한 기성 세대를 한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컴퓨터에 매료된 그들은 왜 아직도 종이책을 옹호하며 왜 활자 문화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성급하게 나이 든 세대를 비난한다. 그러나 아무리 전자우편이 성행해도 우체국은 여전히 건재하며, 아무리 전자책이 많아져도 종이책은 여전히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명의 전이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뉴 미디어'는 일차적으로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지칭하지만, 그것 말고도 요즘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예컨대, 영화, 비디오, 광고, 패션, 팝송, 랩, 신문, 잡지 등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강력한 미디어로서 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미디어들은 자칫 상업주의와 결합해 경박한 표피 문화와 천박한 가치관, 그리고 찰나적인 유행을 산출해, 진지한 사고와 심오한 사색을 불필요하고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과연 학생들은 이야기와 이미지를 산출해 내고, 또 때로는 리얼리티까지도 만들어내는 현란한 시각적 미디어에 매료되어 점점 더 책을 읽지 않게 되고 문학에도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사색의 부재와 인성의 미숙, 찰나주의, 이기주의, 고립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로 나타났다.

그래서 컴퓨터 시대에도 책을 읽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책은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교양과 정서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문학 작품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삶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는 탁월한 매체가 된다. 문학 교육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인성 교육과 문화 교육의 첩경이 된다.

요즘 학생들은 영화로 보면 됐지 굳이 문학 작품을 책으로 읽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시각적인 이미지에만 익숙한 사람

들에게는 언제나 상상력이 부족한 법이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굳이 머리 속에서 상상하고 사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학 작품은 바로 그 상상력과 사고력을 배양해 주는 가장 좋은 매체가 된다.

그러나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는 전자우편을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읽고 또 지워 버리는 찰나적인 요즘 젊은 세대는 오랜만에 받아본 사각거리는 종이편지를 그리움과 기대에 차 펼쳐 보는 기성 세대의 애뜻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싸늘한 플라스틱 책을 컴퓨터 모니터로 재빠르게 검색하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종이책의 파스함과 인쇄 잉크 냄새의 정겨움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영상 매체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기 전에 우선 영상 매체를 여흥이나 오락 정도로만 생각해 온 기성 세대의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는 요즘 젊은 세대에 영상 매체는 곧 삶의 텍스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들에게 영상 매체를 읽는 법—예컨대, 영화나 텔레비전이 어떻게 당대의 사회상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어떻게 당대의 지배 이념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어떻게 당대의 관습에 저항하고 있는지 등—을 문학과 연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문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는 책들을 읽도록 권장

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좋은 영화 식별하는 법, 그리고 영상 매체의 상업주의적 속성과 이데올로기적 측면도 가르쳐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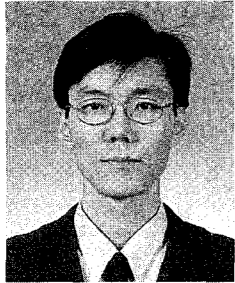
그것은 곧 문학 교육의 범위를 넓혀 '문화 교육'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컴퓨터 세대와 활자 세대, 그리고 플라스틱 세대와 종이 세대는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전통과 혁신은 충돌이 아닌 절충을 통해 늘 공존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는 '문화 연구' 및 '미디어 문화 연구'라는 이름 아래, 바로 그와 같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오늘날 같은 미디어 문화 시대에는 문학 연구를 보다 더 광범위한 '문화 연구'로 확대시켜서, 문학 작품과 더불어 각종 미디어와 영상 매체도 같이 연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문화 연구는 우리의 시각과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새로운 변화는 물론 불안을 수반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과감히 발상 전환을 시도해야만 할 때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컴퓨터를 부인하고 원고지를 찾거나, 커피숍을 외면하고 사라진 다방을 찾아 헤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전화를 걸어온 교육부 직원이 '디스켓으로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나 역시 이 글을 컴퓨터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한 증좌 일 것이다. *

한글의 참모습을 찾자

한재준



한재준

홍익대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졸업.
한글문화원 연구위원 ·
상명대 대학원 · 서울여대 대학원 ·
홍익대 강사 역임.
현재 대우공업전문대 조교수.
저서에 <상업디자인 일반>,
<상업디자인 실습> 외 다수

**이제라도 우리 국민
누구나가 한글의 참제 원리를
자세히 살피고 그 이치를
알아야 한다.
한글 쓰기 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야 하며,
한글의 참 모습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들에게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과 원리를
제대로 깨우치도록 해야 하며,
온전한 한글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다양한 형태와 새로운 구조의 한글꼴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부터 그 조짐을 보이더니 불과 7~8년 만에 그 속도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오늘날과 같은 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예사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도대체 이와 같은 폭발적인 변화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얼핏 보기에는 컴퓨터의 대중화와 개성 표현이 증시되는 사회적 변화가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변화가 글자꼴의 기본적인 구조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보화·개성화의 바람은 우리 나라에만 불고 있는 부분적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의 한자나 로마자 또는 가까운 일본의 가나자의 경우도 모두 컴퓨터로 활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같은 시대적 영향을 받고 있다. 다시 한 번 깊이 있고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글꼴 변화의 근원적인 힘은 결코 외적인 영향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미 한글이 태어나던 그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창제 원리와 민족 민주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창제 정신이 바로 정보 시대인 오늘의 한글꼴을 변화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러한 내부의 힘이 컴퓨터의 도입, 가로짜기 체제의 일반화, 정보화의 욕구, 합리적인 사고가 받아들여지는 외부적인 변화 등에 힘입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야 하며, 이 기회에 한글의 참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들이 활용하던 대부분의 한글 활자꼴들은 시대에 적합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세로쓰기 체제에서 개발된 한글꼴을 가로쓰기 체제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낱소리글자(음소문자)의 특성을 온전하게 살려 쓰지 못하여, 정보의 입력, 저장, 수송, 가공, 출력 등에 큰 무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도 한글의 높고 귀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독창적인 한글을 한자 문화에 젖은 낡은 생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은 그 태어남부터가 특별한 글자이다. 한자나 로마자 등의 다른 나라 글자꼴들은 그 시작이 그림에서부터 출발하여 오늘의 글자로 진화된 것인 데 반해, 한글은 일정한 기간 동안 글자 체계의 모든 원리가 연구되고 완성된 후에 낱을 정해 반포한 글자이다.

따라서, 글자꼴의 발전 과정 또한 독특하다. 다른 나라 글자들은 그리기에서 쓰기로 자연스럽게 발

전되었으며, 이러한 손글씨가 오랜 동안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활자꼴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활자꼴은 손글씨로 다듬어진 글자꼴을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글꼴의 역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쳤다. 반포 당시의 <훈민정음해례> 등에 인쇄된 글자가 바로 한글의 처음 형태이다.

이와 같이 한글은 인쇄된 글자가 손글씨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당시의 사람들은 붓과 먹을 이용해서 세로로 내려쓰는 글씨쓰기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오랜 동안 한자 쓰기의 관습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창제 때의 쓰기 체제도 세로쓰기 관습을 그대로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형태에서 만든 붓으로 쓰기에 쉽지 않은 단순하고 간결한 기하학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울퉁불퉁하고 단순 명쾌한 원시적 형태는, 새로운 글자를 만든 원리와 체계를 밝히려는데 목적을 두고 글자의 뼈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원형(原形) 보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창제 후 얼마되지 않아 그 원형은 일상 글씨쓰기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의 글씨쓰기 도구가 붓이라는 점과 쓰기 방법이 한자의 관습에 그대로 젖어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의 부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글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진화된 글자가 아니다. 체계적인 원리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되어 만들어진 글자이다. 따라서, 발전을 위한

정책의 부재와 지속적인 연구의 단절은 당시의 큰 흐름인 붓과 한자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특성과 장점이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글씨쓰기 도구는 펜과 컴퓨터의 글자판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가로쓰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쓰기의 관습은 아직도 그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한글꼴의 발전과 국가 정보화를 더디게 하고 결국은 나라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그 동안 우리들이 사용하던 전통적인 한글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벌의 한글 활자꼴에서 'ㄱ'자 한 가지의 예만 보아도 적어도 9종, 많으면 무려 32종까지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교, 굴, 그, 개, 과, 관……' 등에 적용되는 각각의 'ㄱ'자가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리 글자인 한글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하면, 전통의 계승이나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은 형태의 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원리를 살리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민주·실용주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아야 하며, 동양의 역(易)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자연 원리의 과학화 정신을 살려야 한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점, 수평선, 수직선, 원형, 사각형, 삼각형등 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6가지 형태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천지 자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착상이다.

한자쓰기 교육이 상징성과 유교적 사상 교육의 부가적 효과를 노릴수 있는 글자라면, 한글쓰기 교육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글자이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발상인가.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면, 자연을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킬줄 알며,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토록 장점이 많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정신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 누구나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히 살피고 그 이치를 알아야 한다.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한글이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글은 그 빛을 더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바로 나라 발전의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도 한글쓰기 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야 하며, 한글의 참모습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들에게부터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과 원리를 제대로 깨우치도록 해야 하며, 온전한 한글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가로쓰기가 일반화되고 컴퓨터가 각 가정에 보급되고 있는 정보 시대에 세로쓰기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통 서예식 글씨쓰기 교육과 활자꼴의 활용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글씨쓰기 교육과 활자의 사용은 정서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쉽고 빠른 정보 전달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토종 살리기에 교육계가 앞장서자

“최근 우리 토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토종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유산이며, 토종의 보전은 민족 유산의 보전이며, 환경의 보전이다.”

토종은 민족의 얼이 배어 있는 생명체이고, 민족의 의식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토종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고, 이는 다시 자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한국토종연구회(02-762-5076)는 우리의 토종을 지키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급격히 다가오는 세계화에 대처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섰다.

우리 나라 토종의 보유 현황은 동물이 1천7백 종, 식물이 7천 종, 미생물이 8천5백 종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 중에서 1백42종의 동물과 1백26종의 식물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국내외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의 토종이 과학적으로 우수함이 입증되고 있다. 앓은뱅이밀은 키가 작은 유전인자, 속기가 빠른 인자, 병에 강한 인자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인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 토종은 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털회개나무는 미국에서 '라일락 미스 김'이란 이름으로 개량되어 관목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럽



허용웅 한국토종연구회장

의 정원을 장식하는 최고급 정원수 중에는 지리산이나 한라산에 자생하는 나무가 많이 있다. 또, 약품으로는 고려인삼과 영지버섯, 은행잎 등은 세계 어느 나라 것보다 우수하며,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비싼 나무이다.

토종은 가장 귀중한 민족 유산이다. 우선 토종은 조상 대대로 아껴 온 먹거리로서 중요하다. 지금 토종 유전 자원으로 개발한 작물을 보면, 벼·보리·콩 등 개량 우수 작물 500품종 가운데 토종 인자가 들어간 것이 62%나 된다. 또, 생명공학, 생물학, 미생물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된다. 그래서 '한국의 유산'이라 자부하

는 것이다.

이토록 귀중한 우리의 민족 유산인 토종이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천대를 받고 급속히 소멸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토종이 우리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으로 몰래 유출되어 판매되는 것이 163종, 품종으로 육성된 것이 79종, 속간 교잡으로 이용된 것이 25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는 토종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나라마다 토종 또는 종자보호법이 있다. 앞으로 국민 개개인이 우리 고유의 토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이다. 토종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지구 환경 보존의 근본이다. 토종이 소멸되는 것은 곧 생태계의 파괴요, 나아가 지구 환경의 파괴이다.

우리 한국토종연구회는 앞으로 토종에 대한 실태 조사, 국내외 토종 보존 관련 법령 조사 및 검토, 경제성 있는 토종 발굴 및 활용 방법의 연구, 해외로 반출된 우리 토종 다시 찾아오기 등에 힘쓸 계획이다.

전국의 초·중·고·대학의 교원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한다. *

특별 기획

1 문화 유산의 해와 교육 과제 2 남북한 초등 학교 교육과정 비교

문화 잔치로 한창인 10월을 맞아 정부가 지정한 '97 문화 유산의 해와 교육의 과제'를 기획 특집으로 꾸몄다. 최근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차츰 높아지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족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제에 대한 성중한 예절은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릴 때 길러 주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편, 학교의 통일 대비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남·북한의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비교 연구' 결과도 함께 특별 기획으로 꾸며 학교 현장에 제공한다.



‘문화 유산의 해’와 문화 교육

한 병 삼

문화 유산은 선조들이 남겨 준 역사의 산물로서 우리 겨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 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고장 역사를 알고 문화 유산 가꾸기 운동을 겸해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화 유산의 해 목적과 사업

지난 1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공식 선포식을 갖고 문화 유산의 해가 출범한 지 벌써 9개월이 흘렀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문화 유산을 국민들 속으로 친숙하게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여 왔지만 집행위원장으로서는 느끼는 점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문화 유산의 해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문화재 관련 인사 16인으로 구성되어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문화 유산의 해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민족의 얼 문화 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라는 표어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듯이 문화 유산 애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전통 문화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문화 유산 보존 관리의 질적 향상과 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 내용은 문화 유산 알기 사업, 찾기 사업, 가꾸기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 조직 위원회 주최 사업과 후원 사업, 그리고 국가 기관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호재단 등이 주관하는 사업 등 모두 32건의 사업이 있다.

'알기 사업'으로는 내 고장 문화 유산 알기,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적 답사, 역사의 현장 재조명 학

술 회의, 문화 유산 교육용 도서 발간, 문화 유산 해외 소개 책자 발간, 문화 유산의 해 기념 전시, 기념 공연 등 모두 13건이 된다. '찾기 사업'은 알려지지 않은 문화 유산 찾기, 마상 무예를 비롯한 전통 문화 재현, 문화 유산 소개 디자인 공모전 등 7건이 계획되어 있다.

'가꾸기' 사업으로는 문화 유산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문화 유산 보존 세미나, 문화 유산 보존 공로자 발굴, 문화재 명예 관리인 제도 활성화 등 모두 12건이 있다.

위 사업들 중 조직위원회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 유산 알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유산 애호 정신이 국민 각자의 의식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문화 유산 애호 정신은 문화 유산의 참가치와 중요성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문화 유산은 선조들이 남겨 준 역사의 산물로서 우리 겨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 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문화 유산 알기 사업 중에서도 내 고장 문화 유산 알기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답사 행사를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내 고장 문화 유산 알기 운동은 각급 행정 기관의 공무원들부터 솔선 수범하여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문화 유산을 순례하면서 내 고장의 역사도 알고 문화 유산 가꾸기 운동을 겸해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와 각급 학교에서도 내 고장 문화 유산 순례 운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화 유산 알기 사업

조직위원회에서는 문화 유산 지역별 답사 안내 자료

를 만들어 9월부터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문화 유산 주제별 답사 안내 책자를 10월 중 제작 보급하여 가족 단위 답사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에게 문화 유산을 통한 교육 지침서로 쓰일 수 있도록 문화 유산 교육용 기본 도서를 제작 중에 있다.

'한국의 문화 유산', '한국의 전통 예술', '한국의 전통 공예 기술' 등 세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문화 유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은 책으로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학생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조직 위원들이 현장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 과정 교육생들에게 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교육 행정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부터 문화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문화 유산 알기는 우리 문화 유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95년에 석굴암, 종묘,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전 등 우리 문화 유산 3건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세계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세계 문화 유산 사진전을 열고 전국 순회 전시 중에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시각에서 우리 문화 유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주제별로 문화 유산을 답사하면서 문화 유산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유산 테마 답사는 금년 중 20회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 유산 답사를 통하여 문화 유산에 대해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한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 유산을 소개하는 행사가 매월 1회씩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 3월에 있었던 주한 외국인 초청 답사는 궁중 생활 문화를 주제로 하여 창덕궁, 종묘, 덕수궁 등을 둘러보았고 '정조대왕의 효심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용건릉, 용주사, 수원 화성을 답사하는 행사가 있었다. 주한 외국 대사들을 비롯해,



지난 3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한 청소년 문화 유산 봉사단 발대식

상사 주재원, 외국인 학교 교사들이 참석하여 문화재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전통 문화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데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이와 같은 행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5월에는 낙도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서울 지역 고궁과 문화 유산을 돌아보는 행사가 있었다. 문화 유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 지방의 어린이들에게는 귀중한 경험과 함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0월 중에는 중·등학교 역사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답사를 계획 중에 있다. 문화 유산을 통한 전통 문화와 역사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서 아직



한 병 삼 '97문화유산의해 집행위원장,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지난 5월 문화 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초청한 전남 신안 비금동초등학교 학생들

연구해야 할 것이 많다. 역사 교사들에게 문화 유산 현장 교육 방법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 유산 찾기 사업 주요 내용

문화 유산 찾기 사업으로는 이제껏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 유산들을 찾아내어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지정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통 문화 유산 가운데 잊혀져 가는 것들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사업들이 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 겨레의 활달한 기상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전통 마(馬) 문화 재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날 우리 역사가 문약(文弱)에만 흘렀던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활발한 무예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17일에 과천경마장에서 마상 무예, 마상 격구 재현 행사가 있었으며, 지방 확산을 위해 지방 대도시로 장소를 옮겨 10월 3일 대구에서, 10월 17일 익산에서 각각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마상 무예는 그 동안 몇 차례 재현을 시도한 바 있으나, 마상 격구는 조선

시대 초기에 그 명맥이 끊긴 것을 이번에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구성해 본 것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유산 소재 디자인 공모전은 전통 문화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힘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문화의 힘이란 바로 튼튼한 전통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인데,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 유산에 나타나는 각종 문양, 기형 등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 준 정신 문화의 산물로서 가장 한국적인 요소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우리 문화를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외래 문화에 대한 동경과 무분별한 외래 문화 수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 유산 가꾸기 사업 내용

문화 유산 가꾸기는 지속적으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문화 유산의 해를 계기로 하여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문화 유산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끌어내고, 문화 유산 보존 방법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서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 유산은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없고, 하나 하나마다 고유 가치를 갖고 있으며,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유산은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개발 공사로 인한 무분별한 파괴 행위들은 물론이고, 이른바 지역 개발 논리를 내세워 주민 편익을 담보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문화 유산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주경마장 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 고도 경주에 오락과 사행심을 부추기는 경마장을 짓겠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이 항상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상황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문화 유산은 이제 개별 유산을 보호하는 일과 더불어 문화 유산 주변 지역의 역사 환경까지 보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위원회에서도 금년 중에 역사고도보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소재하는 문화 유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도 5,000여 건이 된다. 이들 지정 문화재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일일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 문화재별로 문화재 명예관리인과 자매 결연 단체로 임명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부터 3일간 전국에서 모인 196명의 문화재 모범 명예관리인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명예관리인들은 말 그대로 어떤 대가도 없이 문화 유산의 현장에서 문화재를 지키는 분들이었다. 농사일로 개인 사업으로 생업에 바쁜 가운데도 틈틈이 문화 유산을 돌보는 그들이야말로 말없이 우리 역사를 이어가는 지킴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전국에 4,300여 명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나마 문화 유산이 제 모습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유산은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관리인이라는 생각으로 가꾸고 지키는 자세가 요구된다.

초·중·고등 학교가 문화재 자매 결연 단체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으나, 실제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요즘 학생 봉사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문화재 지역에서의 봉사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3월 29일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하고 문화 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후원한 청소년 문화 유산 자원 봉사단 발대식이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수백 명의 중·고등 학생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문화 유산 가꾸기는 앞으로 학생 봉사 활동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민족의 얼 문화 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지난 7월 세계 문화 유산 사진 전국 순회전이 인천광역시로 시작으로 전국 12개 도시에서 전시됐다.

문화 유산 교육의 강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 유산을 금전적 가치로만 생각하려는 현 세대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데 학교 교육이 앞장서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공영 방송에서조차 문화 유산의 가치를 값으로만 평가되는 것 같은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화재에 대한 참담이 곱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화 유산은 금전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보고라는 것을 알 때, 문화 유산 애호 정신은 저절로 우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 유산의 해 사업을 전개하면서 문화 유산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면서도 실제로 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 유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 유산의 현장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문화 교육의 반성과 향후 과제

김재춘



그림·오진복

현재 우리 학교에서 전통 문화 교육은 특별 활동이나 학교 재량 시간에 장고나 치고 민요나 부르는 것으로 편협하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과거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문화의 의미와 문화 교육

우리가 문화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편으로 문화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별도로 밝

힐 필요가 없는 너무나 친숙한 용어로 다가오면서, 다른 한편으로 문화라는 단어만큼 그 의미를 이해하기 복잡한 일상어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문화라는 단어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인류 공동의 지식이나 문화 유산과 같은 인류 보편의 문화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국가나 민족과 같은 단위 사회의 유산이나 전통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청소년 문화나 중산층 주부의 문화와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집단의 행태적 특징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화라는 단어는 이처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화라는 말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토록 익숙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그 맥락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문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글이 올해가 문화 유산의 해임을 기리기 위하여 특집으로 마련된 “문화 유산의 해와 교육 과제”라는 주제의 한 소고라는 맥락에서 구체화된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학교 교육을 통한 전통 문화 유산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문화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 또는 문화 유산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전통 문화 교육을 반성하고, 앞으로 전통 문화 교육이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한 다음, 문화 교육의 의미 확장의 필요성과 이를 통하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문화의 의미와 문화 교육

전통 문화를 교육한다고 할 때 제기되는 첫번째 문제는 전통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통 문화는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것으로서 많은 변화에 직면해서도 바뀌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오는 그 무엇을 가리킨다. 이를 우리의 맥락에 적용하면, 우리의 전통 문화는 서구 문물의 유입 이전에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가 향유해 왔던 문화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한민족으로서 우리의 민족 주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 유산의 해 조직 위원회」가 올해의 사업 계획을 문화 유산 알기, 찾기, 가꾸기로 정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이라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 문화 교육”의 기본 취지에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 교육은 지금까지 그다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없다. 70년대에 정치적 목적에서 강조된 전통 문화 교육은 민족 주체성, 민족 정체성, 조상의 얼 등의 구호로 상징되듯이 지나치게 민족 지상주의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족 지상주의적인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전통 문화 교육은 조상들의 ‘우수성’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에 급급하게 된다. 이런 전통 문화 교육은 주로 ‘세계 최고’, ‘서양보다 200여 년 앞선’, ‘세계 최초’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전통 문화를 맹목적으로 찬양 또는 숭상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게 될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 학생들은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학생들은 보다 넓은 세계와 접하게 되면서 조만간 우리 전통 문화가 중국이나 인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나라들의 문화 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깨닫게 된다. 그뿐 아니라 교과서적 지식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된 학생들은 역으로 우리 민족이 가진 전통 문화에 대한 참다운 가치 평가를 시도해 보기도 전에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다. 요컨대,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를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게 될 때, 학생들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에서 지금까지 전통 문화 교육을 받아 온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떡이나 부침개보다는 햄버거나 피자를 더 좋아하고, ‘콩으로 메주를 쑨다.’는 말보다는 ‘토마토로 케첩을 만든다.’는 말에 더 친숙함을 느낀다. 조동일은 한국인의 조건으로 첫째 한국어를 사용할 것, 둘째 김치를 좋아할 것, 셋째 판소리를 좋아할 것 등을 열거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판소리 대신에 록 음악이나 갱스터 음악을, 김치 대신에 오이 피클을, 한국어 대신에 영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마도 전통 문화 교육의 실패로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적 열등감을 갖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열등감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우리 것보다는 외래 것을 더 좋아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전통 문화를 무조건 부정하게 되고, 이는 곧 우리 청소년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한국인으로서의 역사 의식의 결핍을 초래한다. 정체성의 혼란과 역사 의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통 속에 살아있는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후손들의 정신 속에 계승시킴으로써 민족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는 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전통 교육은 우리 전통 문화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숭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전통 문화 교육이 나아갈 길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과거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에 관한 교육은 우리 전통만을 무조건적으로 옹호 또는 숭상하도록 하여 학생들을 과거에 대한 향수에 빠지게 만드는 '과거 지향적' 이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하고, 미래를 위해 희망과 용기를 갖고 현실과 대결하도록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통 문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전통 문화는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미 친숙해져 있는 서구 문화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 전통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세계관을 음미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우리 문화계를 강타한 <서편제>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서 학생들은 전통 문화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알맞게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 문화 교육은 어떤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가? 먼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문화 교육이 특별 활동이나 학교 재량 시간에 장구나 치고 민요나 부르는 것으로 편협하게 이해되어 각 교과 내에서 전통 문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여러 교과 내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문화 교육이 상호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각 교과의 논리 속에서 주변화되어, 많은 경우 단편적인 사실로서 가르쳐지고 있다. 셋째, 교과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전통 문화 교육과 특별 활동이나 학교 재량 시간, 기타 학교 행사 때 다루어지는 전통 문화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우리 전통 문화 교육이 체계 없이 비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문화 교육은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단편적인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우리 전통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통 문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전통 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문화 교육은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인 전통적 세계관의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별 활동 시간에 단순히 제기를 찬다거나 연을 날린다고 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학생들에게 먼저 전통적인 세계관에 대한 기본 개념들과 사고 방식을 이해하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적인 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이 전통적인 세계관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덕 시간에는 전통적 가치 규범과 예절이, 국어 시간에는 향가, 시조, 한문학 등이, 사회 시간에는 관혼상제, 가족과 친족의 범위, 과거의 각종 제도 등이 서로 별개의 사실인양 각자 고립되게 가르치는 것은 전통 문화 교육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셋째,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이나 계절과 관련된 전승 놀이나 세시 풍속, 노래와 연주와 춤이 한마당으로 들

어있는 우리의 전통 음악과 무용, 수목화나 서예, 전통 공예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 미술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서 전통 문화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의 전통 문화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체험하게 함과 동시에 전통적 세계 인식의 틀인 세계관에 들어가서 전통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왔던 우리 조상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 체계,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의 독특성을 이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화 교육의 의미 확장

앞에서 우리는 올해가 문화 유산의 해라는 맥락에서 이 글의 주제가 설정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문화의 의미를 전통 문화와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문화 교육을 반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계는 바야흐로 21세기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우리 교육계는 한편으로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을 쫓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근대적, 근대적, 탈근대적 사고 방식과 가치관이 혼재하는 교육적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교육적 갈등의 주된 요소 중의 하나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갈등이다. 우리 전통 문화와 서구 문화 간의 갈등, 상류 계층 문화와 하류 계층 문화 간의 갈등, 엘리트 문화와 대중 문화 간의 갈등, 기성 세대 문화와 신세대 문화 간의 갈등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문화 간의 갈등에서 유래하는 교육적 혼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 또한 문화 교육의 향후 과제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 보고서가 제시한 21세기 사회를 위한 교육의 주요 원리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이나 문화를 인정하고 공동의 인간 삶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나 문화는 우리와 다른 삶의 양식을 지닌 경우를 뜻한다. 세계를 향하여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전통이나 가치를 지닌 수많은 다른 문화들을 접하게 되며,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아도 서로 다른 수많은 하위 문화들과 접촉하여 관계 맺게 된다.

이처럼 안팎에서의 문화적 다원성은 21세기에 진입하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러한 다원화된 문화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즉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타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만의 독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열린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열린 인간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열린 인간은 한 마디로 경계를 넘나드는 자(border-crosser)다. 열린 인간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각 문화의 독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특정 문화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여러 문화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인간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문화 교육을 통하여 문화들 사이에 그리고 많은 경우 개인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높다란 분리의 벽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폐쇄 또는 분리를 상징하는 문화의 경계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 장벽 중의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문화와 기성 세대(교사·학부모) 문화, 학교의 지식 문화와 대중 문화, 인쇄 문화와 영상 문화, 근대적·전근대적 문화와 탈근대적 문화, 이론적 문화와 실천적 문화, 남성 문화와 여성 문화 등. 교육, 특히 문화 교육은 닫혀진 세계 이해 또는 편견에 갇혀 있는 인간을 보다 유연한 세계 이해란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무의미한 또는 억압적인 경계를 가로 건너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나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폭넓은 인간을 뜻한다.

전통 문화 교육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우리 전통에 갇힌 인간보다는 우리 전통 문화와 서구 문화 또는 현대 문화 사이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문화 교육이란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되,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 문화의 경계를 가로질러 보다 정의로운 인류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문화 유산의 해와 학교 교육

박익환

인물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거나 가르칠 때 어느 한 편에 치우친 연구나 학습 지도 방법은 경계해야 한다. 인물의 비평이나 위인전의 학습 자료 활용시 신빙성 있는 사료에 근거한 비평인가를 잘 살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록이나 문화재, 사적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 탐구 학습을 통해 인물의 객관적 이해에 힘쓸 것이며, 교육자들은 사적지의 현장 답사를 통한 추체험(追體驗)에 의해 인물과 관련 사실의 탐구에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 공정한 역사 학습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문화 유산의 해 설정의 의의

정부가 올해를 '문화 유산의 해'로 정한 뜻을 학생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한 주제 표어를 되새기며 설정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의 얼 문화 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문화 유산 사랑하여 민족 문화 꽃 피우자.”

먼저 제1 주제 표어에 담긴 뜻은 겨레의 얼이 스며 있는 문화 유산들을 바르게 알고, 열심히 찾아내어 우리 2세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문화재 애호 정신을 심고 가꾸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라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조상들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교육·문화 정책의 방향을 바르게 알고 열심히 찾게 하는 인도 역할은 각급 학교와 문화 교육 기관에 봉직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먼저 알고 느끼고 실천해야 할 터인데, 이런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주 부처는 문화체육부와 교육부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두 부처는 겨레의 문화 유산 보호·선양 작업이건, 교육의 개혁 작업이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교육 정보와 문화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면서 협

력·보완하는 관계를 '문화 유산의 해'를 맞아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원래 두 부처는 지난 날 문교부에서 확대·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누어졌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제2 주제 표어에 담긴 뜻을 보면, 겨레의 문화 유산 애호 정신을 길러 겨레 문화의 꽃을 피우는 계기로 삼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95년에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보호 신청을 했던 불국사의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판과 판전, 서울의 종묘 등 3건의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록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과 애호 정신을 한 차원 더 높여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96년 준비를 거쳐, 올해를 '문화 유산의 해'로 정한 것이다. 광복 반세기를 보내면서 늦은 감이 있으나,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문화재 애호 정신'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족사와 문화사 바로 알기

우리 민족사에 있어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나 관련된 사건의 실상이 잘못 알려진 이를 바로 잡아 알리려는 노력이 역사 학자와 역사 교육자, 각급 학교 교사들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어 나가야 민족사와 문화사가 정립되어 갈 수 있다. 본인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오래 근무하다가 진주교육대학교에 부임해 근무하면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문화사에 대해 필자 자신이 잘 몰랐던 점을 지적하여 역사 바로 알기의 실례로 삼고자 한다.

첫째는 가야 문화의 정수라 할 야금·야철술의 우수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컨대 가야 시대 고분에서 출

토되어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된 큰고리칼자루 부분에는 정교한 국화 무늬가 있다. 이 무늬 새김 기법은 더 강한 강철 조각도로 꽃무늬를 상감 기법으로 새긴 뒤에 은을 밀어 넣어 꽃무늬가 나타나게 한 뒤 도금을 한 것이다. 이런 정교한 기법은 당시의 야금·야철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유물이라 하겠다.

둘째는 6가야 연맹을 구성했던 나라 중 '고령 가야'의 정치 중심지가 진주인 것으로 추정하는 학설이 아직도 국사 개론서나 통사에서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고령 가야의 발흥지와 정치 중심지는 경북 상주 함창 방면인 것으로 고구되어 왔으나, '90년 초 천관우가 <가야사 연구>에서 진주가 고령 가야의 중심지임을 밝힌 바 있다.

셋째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우리 수군은 연전 연승을 했으나, 육지의 관군이 패퇴를 하고 있을 때 초유사로 내려온 김성일이 조만간 왜군이 진주성을 대거 공격하리라 예견하고 삼장사(김성일·조종도·이 노)와 함께 축석루에 올라 진주성을 굳게 지킬 것을 결의하게 된다. 이 결의의 시가 '삼장사시'로 송암 이 노의 <용사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삼장사는 국난을 당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할 것을 결의·실천한 충신들이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한 데도 세상에서는 종종 진주성 삼장사를 이듬해 계사년 2차 진주성 전투 때 순국한 김천일·최경희·황 진으로 알려져 전해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 역시 이재호의 <한국사의 천명>에서 밝힌 것처럼 바로 잡아야 할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런 사실은 진주성 동문 안에 있는 '축석루중삼장사 기실비'에도 잘 나타나 있다.

넷째로 계사년(1593년) 2차 진주성 전투의 실패로 성이 함락된 것은 6월 29일이었고, 왜군이 갖은 만행을 저지른 뒤 축석루와 강변 '위암' 부근에서 전승 축하연을 연 것은 그 해 7월 7일 칠석날이었다. 이 때의 암에서 순의·순국한 주논개의 신분이 잘못 알려져 있다. 이도 바로 잡아야 할 사실이다. 좀더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봉건 왕조 시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인물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직계와 외계 및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초 작업이다. 주논개는 조선 중기 선조 연간에 전라도 장수 고을 주촌에서 출생했다. 부는 주달문(朱達文)이고,

모는 밀양 박씨다. 논개의 부친은 주촌에서 서당을 열고 학동을 가르치던 훈장이었다. 논개는 13세 때, 부친이 숙환으로 고생하자 단지를 해서 부친의 병구완을 했다는 효녀로 알려졌다. 장수 고을 주촌에서 진주성으로 오게 된 까닭은 계사년 당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해 와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 방어에 진력하고 있던 최경희의 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계사년 6월 29일 진주성이 함락되자 최경희 우병사는 성 함락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 무렵 주논개는 왜군의 만행에 분의·복수심이 솟구쳐 축석루에서 벌어진 전승 축하연에 참석하여 순의·순국할 것을 결심하고 자기 신분을 감춘 뒤 당시 진주성의 수안기에게 자기 이름을 기적에 올리도록 했다고 한다(이 때문에 진주를 비롯한 경상우도에는 '의기 논개'로 알려졌고,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도 의기로 기록되어 잘못 알려졌다).

그러나 논개의 친계나 외계 및 부계의 삼향(三鄉)에 신분적 하자가 없는 양가의 규수 출신이었고, 순의·순국 당시에는 경상우병사 최경희의 아내였다. 그러나 논개의 생장지였던 장수 군민들은 주논개를 삼강을 실천한 여인으로 존경해야 하겠기에 정부의 지원과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 논개의 사당이 있던 의암사(義巖祠)를 잘 중수해 놓았다. 이제 이 곳 진주 시민들도 성지 안에 있는 논개 사당 의기사(義妓祠)라는 명칭에서 기(妓) 자는 합당한 다른 글자로 고쳐야 할 것이다.

민족사와 문화사 바로 가르치기

바로 정리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아 세우기도 힘들지만, 바로 잘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이제까지 초등 교사 양성 대학인 진



박익환
진주교대 교육박물관장

주교육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 지방 향토 문화사를 바로 알아 바로 가르치는 일이 급선무로 보인다. 더구나 지방 자치 시대에 발맞춰 그 지방 출신의 위인들이나 그 지역 문화 단원 학습 지도안을 구안할 때, 최근의 역사와 문화재 실상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단원 학습 지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진주 지역이나 진주 문화권 지역에서 잘못 알려진 역사 사실은 교사 자신이 스스로 탐구해서 바로 알려하고 바로 가르치려 해야 한다.

앞에서 적시한 진주 지방 역사 중 잘못 알려진 것을 하루 빨리 지역화 문화 단원 학습 지도시 바로 가르치려고 각급 학교 교사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야사나 그 지역 향토사 자료도 교사들에 의해 수립 정리되어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사들은 지역 박물관과 향토사 자료가 있는 곳으로 학생들과 함께 가서 현장 문화 단원 학습 지도에 임해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역사 현장 학습을 위한 답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조상들의 의식주 문화나 생활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민속박물관이나 향토사자료관을 생각할 때, 이런 시설을 잘 확충하여 문화 교육관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 교육박물관 설치의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관계 당국에 이제 각 대학교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치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교실 공간으로 쓰이도록 건의한다.

다음으로 역사를 탐구시키거나 가르칠 때는 결과나 사건 현상 위주로 하지 말고, 원인 탐구 행위를 통해 인과 관계를 연결하여 파악토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역사 교훈을 되새기며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역사와 문화 단원 학습 지도의 바른 교수·학습 방법을 생각해 보자.

첫째와 둘째 문제인 가야사 지도는 문헌 고증적 방법보다 문화재의 제작 기법과 공예 기술을 탐구시켜 문화사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는 우리 고대사 연구의 또 하나의 좋은 탐구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문제인 진주성 '삼장사' 문제는 1차 진주성 전투이건 2차 전투이건 간에 원인 공업을 누가 담았는가 하는 점을 탐구시켜 밝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제인 주논개의 신문 문제는 사망 지역보다 출생·성장 지역의 사료 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더 합리적 접근 방법이 되리라 여겨진다.

위에서 지적한 것은 필자가 진주교육대학교에 부임해 온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직접 고민했던 문제점들을 들어 본 것이다. 이런 역사 교육의 문제점들은 각급 학교 교사들이 역사 및 문화사 단원 학습 지도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인물사 학습 지도시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지적하여 소론의 맺음말로 갈음하고자 한다.

인물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거나 가르칠 때에 어느 한 편에 치우친 연구나 학습 지도 방법은 경계해야 공정한 역사 학습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기에 인물의 비평이나 위인전의 학습 자료 활용시 신빙성 있는 사료에 근거한 비평인가를 잘 살펴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겨진 기록이나 문화재, 사적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 탐구 학습을 통해 인물의 객관적 이해에 힘쓸 것이며, 교육자들은 사적지의 현장 답사를 통한 추체험(追體驗)에 의해 인물과 관련 사실의 탐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은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신뢰성 있는 분의 기행문이나 현장 답사기 및 사진을 결들인 기행문은 인물·역사·문화 단원 학습 지도의 좋은 보조 자료가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교육·문화 정보가 인쇄물이나 영상물을 통해 대량 제작 유포되는 시대일수록 신빙성 있는 사료와 객관적·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인물의 업적과 과오를 공정하게 다루어 공은 공대로 기리고 허물은 허물대로 비평하는 공의로운 이해와 바른 여가 교육이 각급 학교에 잘 이루어져 나가기를 제언한다. *

문화 유산 교육, 이렇게 실천했다

진인호

문화 유산 교육과 관련이 있는 교과 교사에게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하여 교재 속에 저절로 문화 유산 교육이 응해 되어 지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를 편찬할 때 문화 유산을 교육하도록 단원이 설정되거나 초등 학교처럼 독립된 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 또, 볼·가을로 실시하는 현장 학습과 야영 수련 활동은 향토 문화 유산 순례로 제도화하거나 권장해야 한다.

올 해는 '문화 유산의 해'이다.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오면서 문화를 창조하여 후손에게 물려 준 문화 유산이 어디에나 있다. 국보, 보물, 지방 문화재, 문화재 자료, 기념물, 민속 가옥 등을 비롯하여 무형 문화재, 천연 기념물 등이 있다. 이들은 산기슭이나 동구 밖에 긴 세월의 이끼를 이고 돌보는 이가 없어도 그 자리에 서 있다. 아니 더러는 버려져 있다.

지역의 기층민이 창조하여 전승한 문화가 모여 나라의 문화를 형성한다고 볼 때 학교에서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에서마저 지역 사회의 문화재가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한시한다. 그러나 향토에 산재한 문화 유산은 그 향토에 살고 있는 주민이 반드시 알고 그 속에 담긴 조상의 얼을 이어 받아 새로운 향토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보면 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향토에 산재한 문화 유산 곧 문화재를 교육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향토 문화 교육을, 지방에 산재한 향토 문화재와 향토 문화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문화 유산 교육의 실태, 문화 유산 교육 방법, 나의 향토 문화 유산 교육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문화 유산 교육의 실태

6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 지침·운영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삼 단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① 지역 특수성,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및 이에 따른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도는 지역 사회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 교원, 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교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법 및 교육법시행령, 그리고 교육과정과 시·도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지역 문화의 특수성 곧 지역의 특수성을 교육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함으로써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지역 문화를 창달하며, 애국심과 애국심을 길러 주고, 지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어 문화 유산을 아끼는 정신을 심어 주자는 데 있다.

그런데 중등 학교의 경우는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일선 학교에서 그 취지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을 처음 제작하면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곧 지역의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함으로써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단지 시범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제작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에 지역의 특수성을 바르게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중앙 집권적인 관습에 길들



진인호
순천남산중학교 교사

려진 학교 경영의 관행 때문에 당해 학교에서 제작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하며, 교사는 교과서를 급과 옥조로 믿고 교육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 과정의 지역화, 학교의 차별화 또는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지역 교재를 편찬하여 보급하였기 때문에 모든 초등학교가 시·도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부터 지역 특수성 곧 향토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제외된 실정이다. 게다가 각 교과 교사, 특히 향토 문화와 관련된 교과 교사들의 마음 속에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란 용어조차 제대로 각인되어 있지 못한 듯하다. 학교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지만 순천시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향토 문화 유산을 교육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사가 교과서에 설정된 단원을 교육하면서 향토 문화 유산을 교과 과정에 융해시켜 교육한다.

둘째, 특별 활동 시간에 향토반을 편성하여 지역에 산재한 향토 문화 유산을 답사하고, 거기에 갖든 조상의 얼을 학습한다. 이 경우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특별 시간으로 설정해야 가능하다.

셋째, 학급에 향토반을 조직하여 여름 방학 기간에 학급 담임과 함께 지역에 산재한 향토 문화 유산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문화의 달'에 답사 보고회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관람시키고 시상을 한다.

넷째, 지역교육청에서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교육청에서 영재 수첩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팔마 얼' 계승 교육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의 경우는 학교 경영자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고 향토 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담임들이 자발적으로 향토반을 이끌지 않기 때문이다. 1994년 순천여자중학교 송연구 교장이 향토 문화 유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방침으로 필자 주관하여 추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 있으나, 담임 교사들이 피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도하여 답사와 전시회가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학생

들이 도시 속에 숨겨 있는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향토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의 열은 사회에서 잔잔한 물결처럼 일고 있다.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테마 여행', '답사 기행'의 바람을 타고 지방마다 초·중·고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아 주말이면 문화재 탐방 여행을 떠난다. 순천은 1995년부터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동사연)'의 역사 분과에서 따로 '한얼답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문화 유산 답사 여행을 다닌다. 미리 당해 문화원과 연락하여 안내를 받고 버스 안에서는 답사지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한다. 주로 초등 학생들이 참여한다. 학교에서 '우리 고장 문화재를 답사하고 조사해 오라'는 과제를 부여하기 때문이지만 중·고등 학생보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요인도 있다.

문화 유산 교육 방법

중학교 교육에서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속 시원히 제시한 논문이 없다. 또 어떻게 교육하라는 지침도 없다. 지난 5월 30일에 '지방 교육 자치와 향토 교재 편찬의 과제'란 주제로 제8차 전국향토사연구학술포럼을 전국향토사연구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전남향토사연구협의회가 주관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그 주제가 말해 주듯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었고, 향토 교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초등 학교의 향토 교재에 주안점을 두어 교재 수준, 교재의 오류 등을 다루고 토론자들이 교육 방법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중등학교는 아예 논의였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므로 교육도 지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볼 때, 사회과 교재만 지방화를 하고 다른 교과 교재는 지방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교과가 지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에 설정된 단원에 지역 교재를 융해시켜 교육을 하면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향토 문화 유산을 교과 과정에 융해시켜 교육할 수 있는 교과를 예시하면 표와 같다.

〈표1〉은 문화 유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와 한 예이다. 이처럼 교육과정에 문화 유산 교육을 할 수 있다.

향토 교재를 교과서의 단원에 융해시켜 교육하면, 교육 내용에 지역적 특수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에 따른 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기초 위에 지방화하는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입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시험에 나오지 않은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애써 공부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교사도 효용성이 없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토 문화 유산을 교육하지 않으면 지방 문화의 특색이 없어지고 지역에 따라 특징적인 문화가 창조되지 않거나 향토 문화 창조의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향토 문화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농본 사회에서는 삶 자체가 지역에 국한되었으므로 살아가면서 저절로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산업 사회라 인구 이동이 잦아 생활 속에서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마땅히 해야 하나다.

나의 향토 문화 유산 교육

나는 중학교 국어 교사다. 내가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수업 시간이다. 교수·학습을 하는 시간밖에 없다. 향토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을 할 기회가 없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에 설정된 단원 가운데 향토 문화 유산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과제가 있다. 그 때마다 순천시에 산재한 문화 유산과 결부하여 가르친다. 말하기, 짓기의 내용으로 향토 문화 유산을 제시하여 주고 그 내용을 제재로 말하기, 짓기의 내용을 조직하여 단문을 지어 발표시킨다. 교과서 속에 있는 제재는 막연하고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생동감이 있는 말하기 짓기의 제재가 되지 않지만 순천에 산재한 문화 유산은 매일 보며 살아 온 학생도 있고 가끔 가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 빠르다. 또 자기 경험과 결부되므로 글의 내용에 생명력이 담겨진 데다가, 외부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향토 문화에 대하여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 좋다고 의욕을 부추겨 주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문장으로 표현하는 모

〈표1〉 교과와 문화 유산 교육 내용

교과명	교육 내용	비고
도덕	세시 풍속, 명절의 민속놀이, 전통 제례, 예절	중상사와 연계 짓기의 화제
사회	지형, 기후, 강우량, 교통, 문화, 종교, 산업, 산물, 문화의 특징, 세시 풍속	
국사	선사 유물, 유적지(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지방사, 애항심 제재	
국어	문화재 보호, 애항심, 고장 소개하기, 고장 자랑하기, 전설 민요	
과학	지질, 기후, 동식물 분포, 오염 실태, 환경 보호	
음악	민요, 판소리, 풍물굿(농악)	

〈표2〉 국어과 향토 문화 교육 관련 단원 지도 요소 (2-1)

대단원	소단원	학습 활동	쪽	지도 내용
1. 말하기 준비	(1) 목적 구체화하기	전통 음악	5	우리 고장의 전통 음악 판소리(기능 보유자:박향산-동편제 흥부가), 민요, 시조, 잡가
	단원의 마무리	이 고장의 야생화	10	풀:민들레, 들국화, 패랭이, 산국, 달맞이꽃 나무:진달래, 개나리, 철쭉, 백일홍, 목련
2. 어떻게 읽을가	(2) 여러가지 글 사전-설화 (1) 주장할 내용 제시하기 (1) 보고하기	지명 전설	23	우리 고장의 전설 마을 이름 전설:구수, 구암 마을 유적 전설:용왕대, 보성샘, 상사소, 송광사, 선암사 개기 전설 소개
6. 설득하는 글쓰기		자연 보호 내 고장 사랑하기	87	순천의 자연 산:인제산, 비봉산, 봉화산, 조계산, 모후산 강:이사천, 동천, 주암호, 상사호, 섬진강 바다:순천만, 광안만 불교:송광사, 선암사, 동화사, 금둔사, 향림사, 도선암-국보, 보물 유교:순천 향교, 낙안향교, 서원-사우(16) 사적지:낙안읍성, 민속마을, 검단산성 유적지 문헌 자료 제공
9. 보고하기		고장의 문화 유적 조사 보고하기	138	보고문 내용 조직 보고문 쓰기

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관심 밖에 있던 우리 지역 문화 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태도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 향토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교수-학습을 통하여 제공한 것이다. 국어 시간의 향토 문화 유산 교육과 관련 요소를 지도한 내용을 제시하면 <표2>, <표3>과 같다.

맺음말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학교에서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 바르게 반영되지 못하였고, 교과 교사들도 향토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토 교재가 편찬 보급되지 않음으로써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등 학교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

청에서 교재를 편찬하여 보급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 중등학교 경우는, 학교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학교 행사를 통하여 향토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더러는 전일제 특별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향토반을 편성하여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답사함으로써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교육에 비해 지역 사회 단체에서 오히려 활발히 향토 문화 유산에 대해 눈을 뜨고 답사 여행을 함으로써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국어 학습 시간에 교과서에 설정된 단원의 성격상 향토 문화 유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향토 문화 유산을 소개하고 그것을 소재로 말할 내용을 조직하고 글을 지어 발표시켰다. 이렇게 하는 교육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이 아닐 지 모른다. 국어과의 성격상 향토 문화 유산의 단원을 따로 설정할 수도 없고 또 국어 교사로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면서 향토 문화 유산이란 단원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는 관계로 주어진 조건 아래서 극히 제한적이나마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해 왔다. 그것은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향토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국어 수업에 향토 문화 유산을 소재로 국어 교육을 한 것이므로 감히 '문화 유산 교육 실천기'를 쓴다는 것이 마냥 부끄럽다.

지역에 산재한 문화 유산 교육을 중학교에서 바르게 하려면 몇 가지 선행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 유산 교육과 관련있는 교과에 교사에게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하여 교재 속에 저절로 문화 유산 교육이 융해되어 지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 편찬시 문화 유산 단원을 설정하거나 초등 학교처럼 독립된 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 셋째, 제도적으로 문화 유산 교육을 이수하도록 중학교 교육과정에 선택 교과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봄가을의 현장 학습과 야영 수련 활동은 향토 문화 유산 순례로 제도화하거나 권장해야 한다. *

지역에 산재한 문화 유산 교육을 중학교에서 바르게 하려면 몇 가지 선행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 유산 교육과 관련있는 교과에 교사에게 향토 문화 유산 교육을 하여 교재 속에 저절로 문화 유산 교육이 융해되어 지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 편찬시 문화 유산 단원을 설정하거나 초등 학교처럼 독립된 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

셋째, 제도적으로 문화 유산 교육을 이수하도록 중학교 교육과정에 선택 교과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봄가을의 현장 학습과 야영 수련 활동은 향토 문화 유산 순례로 제도화하거나 권장해야 한다. *

깨끗한 선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표3> 국어과 향토 문화 교육 관련 단원 지도 요소 (2-2)

대단원	소단원	학습 활동 쪽	지도 내용
5. 소설의 배경	(2)토끼전	고대 소설 93	우리 고장 배경 고대 소설 춘향전-남원, 흥부전-남원 심청전-곡성 관음사, 콩쥐팥쥐-전주, 홍길동-장성, 가사-담양, 금오신화-남원
6. 구성하여 쓰기	글의 부분별 내용 쓰기	전통 문화 계승 114	우리 고장의 민속놀이 낙안 민속 마을: 그네뛰기, 널뛰기, 줄다리기, 제기 차기
9. 주제 파악 하기	(1)따뜻한 석탑	우리 고장 문화재를 조사 발표 163	석암사 석탑, 동화사 석탑, 금둔사 석탑, 향림사 석탑-통일 신라의 양식 우리 고장의 정자 소개
13. 지식과 경험	(1)한국의 정자	우리 나라 유명한 정자를 조사 발표 218	선암사:대선루, 강선루 송광사:침계루 낙안읍성:낙민루, 문루 순천시:연차루, 환선정 송주읍:사후정 주암면:상호정, 양벽정 마을마다:우산각

남북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연구

김영일



그림·오진욱

남북 표준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준비는 총론보다는 북한에서 어떠한 교과를 설정하고 어떠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수집하여 남한과 비교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준비 과정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즉, 달을 그리기 위해 달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달을 드러낼 수 있는 구름을 먼저 그리는 것과 같은 흥운탁월(興雲托月)의 기법이 필요하다.

의 군사적 위협과 사회주의 체제 고수에도 불구하고 항쟁의 망명을 비롯한 일련의 빈번한 탈북사건, 북한의 기상 재해로 인한 기근과 한국의 식량 지원, 한국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지난 8월 19일 북한 금호 지역 경수로 사업 부지 공사 착공, 한반도 4자 예비 회담 개최 등은 통일에 대한 준비가 먼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준비는 정부 부처마다의 역할에 따라 대비하여야 할 정책 부문이 따로 있겠지만, 교육 부문의 준비는 그 어느 부문의 준비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이제 통일에 대한 준비는 추상적인 논의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다루어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여전히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상정하여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에 성급함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 정치 집단



김영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통일은 정치적인 통일로 완성될 수 있지만, 민족 내부의 화합과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교육이 하여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준비는 초·중등 보통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다. 교육과정은 “어떠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어떠한 내용을 선정·조직하여 어떠한 학습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한 학습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도가 담겨진 답변서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인간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중요한 교육 부문 준비의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의 상당수는 정치 사상적인 영향을 받은 교육 이념 및 제도 등에 치우치고,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학자들과 자료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 이념 사상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단편적인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과정에 관련된 정책이 언제 수립되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선행 단계 연구로서 필수적인 것이 남북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라 하겠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급에 따라 어떤 교과목을 설정하여 어떤 교육 내용을 가르치느냐 하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갖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과정 정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 대비 교육과정 연구

지금까지 교육 부문에서 이루어진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보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로 교육 제도나 형식 및 이념 등에 대한 것이 많았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교육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하게 그야말로 북한 교육을 이해하려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기본 설계도의 역할을 하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의 지침이 된다. 또한 교과서는 교육 이념이나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상의 중요 교육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의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북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은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은 있으나,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원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전무한 편이다. 북한 교과서에 대한 분석도 몇몇 관심 있는 연구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 주로 사상적인 면에 중점에 두어 정교한 교과서 분석의 틀에 의한 체계적인 분석보다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 연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통상적인 교육과정 연구는 편제와 단위 배당이 포함된 총론 연구가 우선이지만 차질 잘못하면 미리 예상하였던지 예상하지 못하였던지 간에 한번 쟁점에 휘말리게 되면 교과별 교육과정인 각론 연구는 소홀히 다루거나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 표준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준비는 총론보다는 북한에서 어떠한 교과를 설정하고 어떠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수집하여 남한과 비교하여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준비 과정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즉, 달을 그리기 위해 달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달을 드러낼 수 있는 구름을 먼저 그리는 것과 같은 흥운탁월(興雲托月)의 기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비교 분석의 기초 연구가 충실

단계	연구 과제	연구 연도
1차	○ 남북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95년
2차	○ 남북 초등 학교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96년
3차	○ 남북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 도덕(윤리), 정치, 경제, 역사(국사, 세계사),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97년
4차	○ 남북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 체육, 음악, 미술(초·중·고) - 수학, 과학(중·고)	'98년
5차	○ 학교급별,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서 편찬 방안 연구	'99년~2000년
6차	○ 남북 통합 표준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구조 체제 연구	2001년

히 정교하게 추진되면 교육과정에 관한 어떠한 정책을 완급에 따라 추진하는 간에 편수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다.

1차 연도 연구의 내용

남북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는 처음부터 필요한 교과별로 연구를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교과별로 학자의 관심 영역이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비교 분석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 추진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형식적인 연구에 흐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96년도에 추진한 남북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의 실질적인 틀을 제공하는 연구를 하였다. 1차 연도 연구 추진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모형 개발 연구
이 연구는 남북한의 교육 통합이 실현될 것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데 준거가 되는 모형 개발에 주된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광복 후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교육 이질화에 영향을 준 배경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둘째, 북한 이해 연구를 비롯한 교육 부문에서의 통일 대비 연구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시각 아래 전개되어 왔는지 고찰하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통일 대비 연구는 어떠한 시각과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였다.

셋째, 남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교하는 연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서 연구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고찰하고, 앞으로의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연구가 견지해야 할 연구의 시각과 지침을 도출하였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적 논의를 전개하고, 특히 교육과정의 여러 측면 중 교육과정의 개발 방식, 교과 편제 및 운영, 교육 내용의 구성 지침,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의 형태와 평가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섯째, 각 교과별로 남북한의 교육과정 교과서를 비교 연구하는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고, 앞으로 수행될 비교 분석 연구를 위한 분석 준거 항목들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교과목들은 도덕, 국어, 수학, 역사, 지리, 과학 등이다.

여섯째, 앞에서의 부분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각 교과별 남북한 비교 분석의 준거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이후의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들이 취해야 할 연구 방법과 연구 수행상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나. 통독 전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이 연구는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를 중심으로 통독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교과서 통합을 위하여 서독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방식, 특징,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통일 대비 교육과정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이었던 브란덴부르크주를 중심으로 통독 이후의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제도상으로는 서독 지역 1개 주정부와 구 동독 지역 1개 주 정부 사이에 협력 관계(자매 결연)를 맺어 구 동독 지역에서는 수정 없이 적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타하인-베스트팔렌주 정부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교사 문제는 구 동독 교장과 젊은 교사들을 주로 해직하였고, 교장 중 일부는 평교사로 근무하게 하고 교사 중 일부는 서독 교사로 대체하였다. 교사들이 가장 곤란을 느끼는 과목은 역사, 지리, 정치 과목이며, 교사들이 통독 후 사고 방식, 가치관, 역할 등을 바꾸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 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셋째, 통독 이후 구 동독에서의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념적 색채가 약한 교과서는 옛날 교과서를 잠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념이 강하게 내포된 독어, 역사, 사회는 짧은 기간에 교과 내용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독 교과서를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서독의 교과서에 포함된 정신이나 개념은 동독의 교사나 학생에게 빨리 이해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서독의 교과서가 민주적 생활 양식에 대한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윤현진

남북한의 도덕과 교육의 전체적인 구조 및 특성, 그리고 양자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포괄적으로 파악·이해하고 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및 통합 방향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통일 대비 교육의 방안을 수립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적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남북한 초등(인민) 학교의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이에 터하여 남북한 초등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번째 목적이 남북한 초등(인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덕과 교육에 대한 실증적 객관적 분석과 비교라는 1차적이고 기본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두번째 목적은 통일 이후 남북한 도덕과 교육의 기본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 2차적인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라는 구체적인 문헌 자료를 비교 분석한 부분이 본 연구의 중추를 이루며, 통합 방향의 제시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의 관점 설정

본 연구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관련된 선행 연구와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관련 선행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북한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분석 대상이 된 북한의 도덕과 관련 교과서들이 일부분이었거나, 때로는 원자료보다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분석의 근거 및 항목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되었다고 해도 체계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았으며, 제시된 분석 근거에 따라 실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관련 선행 연구의 경우,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하나의 교과로서의 성격과 내용을 비교하는 일에는 그 범위와 논의 수준이 적절치 못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일부는 너무 광범위하여 하나의 교과 성격의 논의하고 구체적인 목표나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일부는 너무 협소하여 내용의 세세한 항목의 비교나 분석은 가능하다고 해도 그러한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나 목표 그리고 교과 성격의 논의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분석의 근거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이에서 찾아



윤현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사전 지식이 많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교과서를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과서 편찬에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이질적인 정치적 방언을 발전시켜 왔으므로 새로운 공통된 표준어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기관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교사들의 몸가짐은 '더 나은' 지역에서는 사람으로 행동하기보다 같은 동포로서 행동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셋째, 공산주의 사회는 종교 생활과 종교 교육이 전무하므로 종교 이해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적 통합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남북 초등 학교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추진 방침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해 초등 학교 도덕, 국어, 사회, 수학, 자연 교과서의 비교 분석 연구를 추진하여 금년 초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처음에는 각 교과 또는 과목별로 초·중·고 종단적 연구도 논의되었지만 북한 원자료 수집 및 접근의 어려움, 관련 분야 전문 연구원 부족, 교과별 비교 분석 연구의 축적된 역량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내실 있는 연구와 교과별 비교 분석의 역량 축적 및 관련 전문가의 다수 확보 전략을 세우고 초등 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분리하여 비교 분석 연구를 추진하였다. 교과별 비교 분석연구 추진 방침은 첫째, 연구 과제 명과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명료한 보고서가 되도록 하고, 둘째, 연구의 관점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북한에서 실제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 확보가 우선임을 명시하였다. 셋째, 비교 분석 근거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교과 교육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교과 분석의 근거가 되는 공통성과 교과 특수성을 함께 분석 근거로 삼도록 하고 넷째, 연구의 핵심을 비판보다는 명료한 비교에 있으므로 정치·사상적인 내용이나 교과서

의 의면적인 체제에 비중을 두지 말고 교과서 구성 원리와 교육 내용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명확히 분석하고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별 분석은 가능한 한 북한의 최근 인민 학교 교육과정·교과서를 입수하여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도록 하고, 교과에 따라 교과별 교육과정을 입수하지 못하고 교과서로 분석할 시에는 분석 교과서를 기본으로 교육과정을 복원하여 남북한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 특히 사회과와 같이 북한의 인민 학교에 교과가 명시되지 않은 교과는 역사, 지리, 공민적인 요소가 어떤 교과에 용해되어 있는지를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나오는 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남북한 초등 학교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가 추진된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의 처음 출발은 최신 북한의 교과서 수집 등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시작하였지만, 각 교과별 공동 연구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알찬 연구물이 완성되었다.

이 연구물이 밑거름이 되어 금년에는 남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는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은 무엇보다도 북한 교육에서 얻어진 원자료를 직접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는 사례가 되었으며, 원자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비교의 결과만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남한과 북한 교육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남북한 간의 교육 저변에서 동질화 요소를 발견하고 축적해 나가는 계기도 되었다. 끝으로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최신 원자료의 수집과 분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유기적 교류, 북한 관련 연구 전문가 양적 확대,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지식 축적 등은 앞으로 통일 대비 및 통일 후를 예견한 교육과정 정책 수립에 지속적인 영향과 기여를 하리라 확신한다. *

볼 수 있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대비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준거를 설정하였다. 단지 북한의 인민학교 과정을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교육과정의 분석 준거는 남한의 교육과정 체제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남북한 도덕과 교육의 체제 및 교육과정 비교 분석

남북한 도덕과 교육의 체제 및 교육과정 비교·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부분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기에 전반적인 교육의 틀 속에서 도덕과 교육이 차지하는 위상 및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적인 교육의 이념과 목적 및 체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남북한의 교육 이념과 목적, 홍익인간의 이념과 주체 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적 인간 육성으로 대비하여 개관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남한이 개성을 지닌 인격체로서의 개인적 자아 실현과 인격 완성, 그리고 민주적 공동체의 발전 및 인류 공영인 반면, 북한의 경우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목표 달성과 공산주의적 혁명에 봉사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대비해 보았다. 또 도덕과 교육의 체제에서는 남한의 초등 학교 교육과정과 북한의 인민 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을 중심으로 도덕과 교육이 초등(인민)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대비하였다. 둘째 부분은 남북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비교이다. 이 부분에서도 남한 교육과정의 틀에 의해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4개 항목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가.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남한의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 규범을 이해하고 습관화하게 하며,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력을 길러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김정일 및 그 가계에 대한 이상화 교육, 정치 사상 교육, 그리고 공산주의적 도덕 교육을 위한 교과로서의 성격과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도덕과 교육의 내용

남한의 도덕과 교육은 개인의 도덕적 자아와 자율적

도덕 실천 능력의 함양,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공동체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격 형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선정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도되는 도덕적 가치나 규범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 규범 및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 생활에 긴요한 가치와 규범, 그리고 바람직한 전통적 도덕 규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학에 입각한 교육 내용을 정치 사상 교양, 과학 기술 교육, 체육 교육의 3가지로 구분하는 바, 이 중 정치 사상 교양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바로 북한 도덕과 교육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 주요 내용은 주체 사상 교양, 당정책과 혁명 전통 교양, 공산주의 교양, 집단주의 교양, 노동 사랑에 대한 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교양, 사회주의적 준법 사상 교양, 공산주의 도덕과 사회주의 생활 양식 교양 등이다.

다. 도덕과 교육의 방법

남한의 도덕과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 학습을 통해 자율적인 도덕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저학년에서는 기본적인 도덕 생활 습관의 형성, 중학년에서는 규범의 내면화, 그리고 고학년에서는 기초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도덕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과 환경적 조건을 조성하고 학교, 가정, 지역 사회와 연계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도 방법으로는 반복적·지속적 지도에 의한 습관화의 방법, 자발적 이해와 자각에 의한 실천화의 방법,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 의한 방법, 교사의 모범에 의한 방법, 그리고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 활용의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덕과 교육의 방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과 정치 사상 교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는 데 그 기저를 두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방법적 기본 방향은 곧 과학성과 혁명성에 입각한 것인 바, 도덕과 교육의 방법론 역시 이 범주에서 모색되고 있다. 북한의 도덕과 교육의 방법은 깨우쳐 주는 교수 방법이 주된 방법인 바, 구체적으로는 설명, 토론과 논쟁, 문답식 방법, 직관 교육, 실물 교육, 해설과 설복의 방법,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연시법(演試法), 연습법, 경쟁의 방법,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의 방법, 공개적 상벌의 방법, 반복 학습법과 자기 통제의 방법 등도 활용되고 있다.

라. 도덕과 교육의 평가

남한 도덕과 교육의 평가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키워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며, 평가의 결과를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과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데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으로서 종합적·통합적 평가, 다양한 평가 방법의 적용, 그리고 평가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도덕과 교육의 평가는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을 개선·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검열을 통한 학업 성적 이해에 대한 평가, 구답 시험과 필기 시험 그리고 학생의 다양한 학업 활동과 성취 정도를 종합하는 종합적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도덕과 교과서 비교 분석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먼저 남한 초등 학교 도덕과 교과서를 학년별로 주요 지도 내용, 소재, 글의 유형, 주요 등장 인물, 삽화 및 사진의 다섯 개 항목으로 1차 분석하였고, 북한의 인민 학교 도덕과 교과서(공산주의 도덕, 김일성 과목 교과서, 김정일 과목 교과서)를 역시 위와 같은 다섯 개 항목을 중심으로 1차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1차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남북한의 교과서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동질적인 측면과 이질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도덕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적 체제면에서 교과서의 전체적 구성과 재 구성 형식, 쪽수, 판형, 서지 사항 등을 비교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한의 교과서의 경우, 한 제재가 여러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다양한 구성 방식을 보여 주는 반면, 북한의 교과서는 한 과가 하나의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거의 천편일률적인 구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로 지적되었다. 둘째로, 남북한 도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

덕목들을 유사한 가치, 상이한 가치, 그리고 명칭은 같지만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사한 가치로는 일반적 보편적 도덕 영역과 전통 도덕 영역에 포함되는 가치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정직, 생명 존중, 성실, 신념, 공중 도덕 지키기, 준법, 생활 예절, 학교 사랑, 우정, 신의, 효도, 웃어른 존경, 우애 등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이한 가치로는 남한의 국가·민족 생활 영역과 북한의 정치 사상 교양 영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남한에서는 민족 문화 유산 아끼기, 평화 통일, 국제 교류, 세계 평화 등이 주로 다루어지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일제·미제·지주·자본가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심 고취, 공산주의적 계급 의식 등이 강조되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이상화가 도덕과 교육의 중요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데 반해, 남한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라고 하겠다. 한편 가치의 명칭은 같으나 그 의미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에 속하는 가치 덕목이 있는데, 그 예로서 협동과 우정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다루어지는 소재를 비교 분석하였다. 소재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지도되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일반적 보편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를 다루는 영역의 경우, 남북한의 도덕과 교과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는 반면, 북한의 이상화 영역과 정치 사상 교양 영역의 경우, 남한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소재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소재의 시대적 장소적 배경 또한 비교 분석하였는데, 주로 현대와 국내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두드러진 차이점은 북한의 경우 일제 시대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재가 많이 등장하는 데 비해, 남한 교과서의 경우는 외국의 예가 등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넷째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 두드러진 차이는 등장하는 실존 인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과 그 일가뿐이고 역사적 인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데 비해, 남한의 경우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를 썼거나 도덕적 모범이 되는 국내외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등장 인물의 직업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군인과 경찰, 교원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로, 삽화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삽화와 사진이 글의 내용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는 남북한 교과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분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남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삽화의 경우 도덕적 모범 사례가 대다수인 데 반해, 북한의 삽화에는 비도덕적인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내용 제시 방식의 특징과 도덕 교육의 지도 방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의 유형에서 남북한 교과서가 생활문, 설명문, 동화, 우화, 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 교과서는 이러한 형식 이외에 도덕적 탐구 활동 자료, 실천 활동 자료, 도덕적 행동의 방법이나 절차, 노래, 만화, 실천 기록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북한의 교과서는 위의 형식 이외의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글의 내용 측면에서는 도덕적인 모범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남한의 경우 학생 스스로 도덕적인 문제 사태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 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은 무시하고 오직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언행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학생들은 이에 무조건 따르는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시키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라고 하겠다. 남북한 초등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향 앞에서 비교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우선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동질성을 확대해 나가되, 이질적인 측면들은 상호 이해하여 점차 동화시켜 나가려는 점진적인 통합의 자세가 요청되며, 다양한 관점의 수용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의 통합 방향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 교육 체제의 통합 면에서, 통일 사회에서는 현재 남한의 바른생활과·도덕과와 같은 편제를 유지

하되, 통일 사회의 통합을 위해 도덕과의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도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의 통합 면에서는 한민족의 도덕 교육적 전통과 보편적인 도덕 교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주민들 간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 면에서 볼 때, 남북한 도덕과 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질적인 요소와 이질적인 요소가 병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할 때 통일 사회의 도덕과 교육 내용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공통적인 내용인 우리 민족의 도덕적 전통을 반영하는 내용들, 곧 전통적인 미덕을 계승하기 위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통일 사회의 도덕과에서도 이들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한다. 둘째,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들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 사상 교양의 일부 내용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내용 등은 삭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통일 사회에서 예상되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의 통합 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과 교육 방법의 통합면에서는 첫째, 가능한 한 남북한의 다양한 도덕과 교육 방법을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되, 민주적인 교육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법들 예컨대,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의 방법, 공개적 상벌의 방법, 중요 사상의 주입 방법, 사상 투쟁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 원문 통달식 학습 방법 등은 통일 사회의 교육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서 개발한 교육의 방법들은 우리식의 도덕과 교육 방법의 개발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의 방법들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우리의 도덕과 교육에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남북한의 현재의 도덕과 교육 방법들을 수용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통일 사회의 도덕과 교육에서는 남북한 주민들간에 예상되는 가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사회의 도덕적 평가는 현재 남북한에서 각기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도덕적 학업 성취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과 교과서 통합 방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내용은 전통적인 가치나 미덕과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들을 부각시켜 선정하며, 이와 아울러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외국의 바람직한 사례들이나 모범 사례들도 소재로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내용 구성면에서는 현재의 남한 교과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도덕적 쟁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구성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덕적 인물 제시 측면에서는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인물들과 국내외의 모범적 인물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학생들에게는 현재 북한 교과서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우리 역사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필요할 것이다. 도덕과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는 현재 남한의 초등 학교 학생들이 접하는 상업용 도서들에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질, 색도 등이 개선되어야 하고 판형의 확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앞으로 통일 한국의 체제 및 국가 이념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하나의 시론(試論)이나 시사점의 제안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남북한의 초등 학교 도덕과 교육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보존·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질성을 완화·수용,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히 동질성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질성의 발생·심화된 원인과 그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 학교 수준에서 남북한의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도덕과 교육의 전체적인 구조 및 특성, 그리고

양자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포괄적으로 파악·이해하고 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한 초등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통합 방향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방안은 시론(試論)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광범위한 여론의 수렴 또한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도덕 교육의 특성상 공식적인 문서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한 도덕과 교육 이외에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별 활동 등을 통한 도덕과 교육이나, 학교 이외의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교육의 내용과 실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초등 학교 도덕과 관련 1차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북한 인민 학교 과정안과 교과서 등 1차 자료의 입수 문제였다. 1차 자료의 입수 문제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유사한 성격의 연구들이 당면하였던 가장 중대한 문제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이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하거나, 설혹 1차 자료라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자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관한 1차 자료를 연구자 개인들이 수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분산되어 있는 1차 자료들 및 북한에서 간행되는 최신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연구에 활용토록 하는 과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일 대비 교육의 방안을 수립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 목적이나 이념, 제도,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의 개발 과정 등에 관한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형성과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 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의 문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최현섭

남북한의 국어 교육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국어 교육의 목적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성품을 향상시키고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개인,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북한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열렬한 추종자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국어 교육 목적

북한의 사회과학원이 1970년에 펴낸 <사회 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교육 목적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 다시 말하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 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 내는 데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북한의 교육 목적은 사회주의 혁명가, 곧 공산주의자를 키워 내는 것이다. 1977년 9월 5일에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노동 계급의 혁명 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교육의 목적도 역시 동일하여,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저작 선집> 제3권에는 학교 교육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산주의 건설자를 키워 내는 데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결부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학교 교육의 목적이 사회주의 교육 목적과 일치되게 진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교육 목적, 학교 교육 목적에 더하여 국어 교육의 목적이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초등 학교에 해당되는 인민 학교의 국어 교육 목적은 북한의 교원 대 학용 교재인 <국어교수법>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인민 학교 국어 교육의 목적은 국어 교재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당의 유일 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인 우리말과 글의 지식 기능을 확고히 다져 줌으로써 우리의 후대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조선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데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 교육의 목적은 결국 김일성 개인에 대한 열렬한 추종자를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국어 교육 목적

남한의 경우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나와 있다. 얼 교육, 지식 교육, 기능 교육, 문화 교육 등이 그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인 제 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초등 학교 국어 교육 목표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게 한다.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

고 이해하게 한다.

나. 국어에 관한 초보적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다.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초등 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는 국어 사용 기능 신장, 국어 지식 고양, 문학 감상 능력 함양 등 세 가지 목표로 되어 있다. 이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아니요, 더구나 어떤 개인을 받들기 위한 교육 목표가 아니다. 개인의 능력과 성품을 향상시키고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개인,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전체를 위해 개인을 매몰시키거나, 어떤 개인을 위한 충직한 전사를 양성하려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국어 교육 내용

앞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북한 인민 학교 국어 교육의 목적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조선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데' 있다. 이는 국어 교과서의 제재가 학생들을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을 뜻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힘 있는 무기인 말과 글을 부러 쓸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다. 북한 인민 학교 국어 교과서는 1학년이 두 권, 2, 3~4학년이 각 한 권씩 모두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권에 나타나 있는 제재를 문종별로 보면, 왼쪽과 같다. 이 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인민 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종별 제재수

빈도 순위	제재 문종	제재수	백분율
1	설명	51	29%
2	시	40	23%
3	전기	25	14%
4	생활	19	11%
5	이야기	17	10%
6	동화	8	5%
7	일기	3	1.8%
7	편지	3	1.8%
7	기행	3	1.8%
10	회곡	2	1.1%
10	토론	2	1.1%
12	소설	1	0.6%
12	독후감	1	0.6%
12	대화	1	0.6%

가. 설명 제재

가장 많이 실려 있는 문종이다. 설명 제재의 내용을 말하기, 읽기, 쓰기, 글씨 쓰기에 대한 것들인데,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 제재의 내용은 대부분 국어 지식과 국어 사용 기능에 관한 것이다.

둘째, 객관적 설명이 중심을 이루는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교시나 김일성 부자 찬양과 관련시킨 부분들이 많다. 심지어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러러 모시는 자세와 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과도 있다.

셋째, 기본 음절표에 의한 글자 익히기와 모음의 명칭은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기본 자음의 명칭과 ㅈ, ㅊ, ㅊ받침의 명칭은 1학년 1학기 첫머리에서 실시한다.

넷째, 국어 사용 기능 교육에서는 듣기가 아예 교육되지 않고, 읽기는 소리내어 읽기만 일부 다루어질 뿐이며, 내용 파악 훈련은 없다. 그 반면에 말하기와 쓰기가 비중 높게 교육되고 있다. 즉 표현 능력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글씨 쓰기가 비교적 체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다음과 같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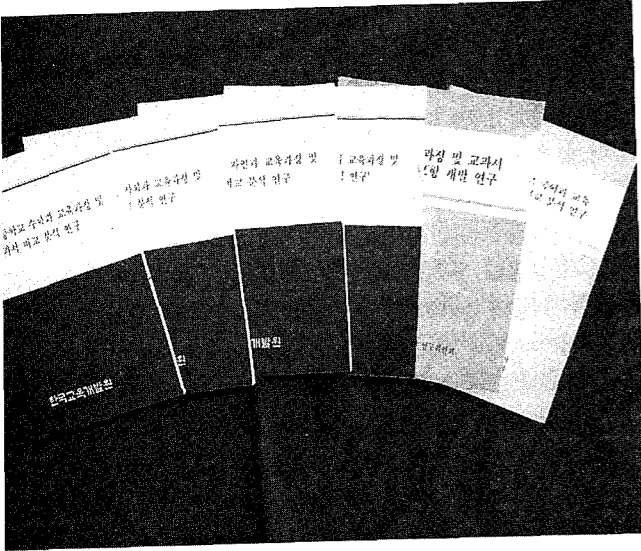
① '토'는 '단어 위에 붙어서 쓰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사와 어미를 통칭하고 있다.

② 김일성과 김정일을 높이는 말이 따로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③ 느낌을 말할 때에는 김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잘 나타나게 해야 하며, 편지를 쓸 때에도 김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잘 나타나게 써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또 토론하는 글을 쓸 때에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라고 가르치며, 일기는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대로 생



최현섭
인천교대, 국어교육



통일 대비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인천교대에서는 남북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비교 분석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활했는가를 돌이켜보며 써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④ 문화어를 가르치면서도 '원췌'들에게는 '지주놈의 상통', '미제놈이 뉘졌다.'와 같이 속된 말을 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⑤ 김정일의 말씀에 따라 필순, 글씨 쓰기를 잘 해야 하고, 제목을 달 때나, 기행문을 쓸 때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해야 하며, 글감 찾기도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을 학습해야 잘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나. 시 제재

시 제재는 총 40수가 실려 있다. 전체 제재의 23%나 되므로 많은 분량인데, 유감스럽게도 시 교육의 목적이 미적 감수성이나 정서 교육이 아니라 위대한 전사 양성에 맞추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제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주제의 중복으로 제재의 수가 중복 계산되기도 했음).

①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찬양 : 김일성 찬양 25수(62.5%), 김정일 찬양 7수(17.5%), 김정숙 찬양 3수(7.5%)

② 사회주의 의식 고취 : 전투 정신 1수(2.5%), 새 조선 건설 1수(2.5%), 혁명 의식 2수(5%), 철벽 방어 1수(2.5%), 영웅 아저씨 1부(2.5%)

③ 남한 비판 : 굶주리는 남한 동포를 돕자 1수

(2.5%), 굶주리는 남한 어린이를 돕자 1수(2.5%)

④ 학습 고취 : 뜻을 알고 공부하자 1수(2.5%), 글씨를 바르게 쓰자 1수(2.5%) 이처럼 북한 인민 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찬양이 90%에 가깝고, 그 중의 3분의 2가 김일성을 찬양한 시이다. 국어 교육 자체를 북한에서는 사상 교육으로 보고 있는 데다가, 시는 짧아서 인민 학교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높고 외우기도 좋다고 보아서 위와 같은 시 제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 형식은 대부분이 사행시이며, 연의 수는 2연부터 10연까지 다양한 길이로 되어 있다.

다. 전기 제재

전기 제재는 26편으로서 제재의 수로 보아 세번째에 해당하는데, 전기 제재의 주인공은 김일성 일가에 국한되어 있다. 즉 김일성을 주인공으로 한 전기 제재가 10편, 김정일이 11편, 김정숙이 4편, 김형직이 2편, 강반석이 1편으로 되어 있다(주인공이 겹쳐서 중복 계산된 것이 있음). 김일성의 전기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5편, 유격대장 시절 이야기가 5편이고, 김정일의 전기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9편, 기타가 2편이다.

김일성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으며(3편), 생명을 사랑했고(1편), 농민을 몸소 도왔으며(1편), 유격대를 지휘하는 대장으로서 산삼을 사병에게 줄 정도로 부하를 사랑했고(1편), 왜군을 크게 섬멸한(3편) 명장이면서도 아동들을 자상하게 돌보는(1편) 인물로 그려져 있다.

라. 생활 제재

아동의 생활을 기록한 글을 생활 제재라고 보아 분류하였다. 그러나 생활문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 꾸며 쓴 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사금을 못 낸 남조선의 수원이'가 교장에게 쫓겨나는 이야기인 <공부하고 싶어요>와 같은 제재는 꾸며 쓴 생활문으로 짐작된다. 생활 제재는 19편인데, 김 부자를 찬양하는 제재가 13편으로 70%에 육박하고, 나머지도 김 부자와 관련되는 제재이거나, 지극히 사상적·교훈적인 것들이어서, 아동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생활을 기록한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아동들이 그 주제를 더 잘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넣은 제재들이라고 생각된다.

마. 이야기 제재

이야기 제재는 전기도 아니고 실화도 아닌데, 실화 형식으로 표현한 제재를 일컫는다. 이야기 제재는 모두 17편인데, 김일성 찬양 및 충성에 관한 제재가 7편으로 41.2%이고, 김정일 찬양 제재가 2편으로 11.8%이며, 반일 주제의 제재가 3편, 반미 주제가 2편, 지주 증오가 1편, 남한 비판이 2편이다.

김일성에 관한 제재의 내용을 보면, 일제와 전투할 때, 유격대의 나팔수가 총알을 유도하여 김일성의 목숨을 지키는 이야기, 아동 두명이 일제 순사를 죽이고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에 합류하는 이야기, 김창걸이라는 병사가 김일성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지 점령에 앞장서는 이야기, 김일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자기의 생일날에 잊지 않고 보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아동의 이야기, 김일성 군대가 농민의 식량을 빼앗지 않고 돈으로 산 이야기, 전쟁 중 낙엽을 덮고 자는 항일 유격대원에게 자기의 모포를 덮어주는 김일성의 사랑에 감동하는 병사 이야기 등으로 되어 있다.

바. 기타 제재

동화 제재는 8편인데 그 중에 7편이 순수한 인간 교육적 내용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3편이 실려 있는 일기는 '아버지 원수님의 교시와 친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 제재의 문종과 수의 남북 비교

빈도 순위	문종	제재수		북한	
		4학년까지	6학년까지		
1	생활	149	196	19	
2	동화	전래	75	110	8
		창작	69	108	
3	시	106	176	40	
4	쓰기	92	139	0	
5	설명	81	129	51	
6	논설(토론)	30	60	2	
7	전기	27	46	25	
8	편지	24	35	3	
9	일기	17	21	3	
10	속담	16	87	0	
11	수수께끼	13	14	0	
12	희곡	12	26	2	

* 말놀이, 회의록, 방송 자료, 기사문, 실화 이야기 등 빈도수가 낮은 제재는 생략

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였는가를 돌이켜 보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김 부자와 직결시켜 진술하고 있다. 편지 제재도 김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잘 나타나게 써야 한다는 가르침에 충실한 제재로 되어 있다. 기행문 세 편도 모두 김 부자에 대한 충성심 고취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제재들도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다.

이상에서 간단히 분석해 본 것이 북한 인민 학교 국어 교과서의 제재 내용이다. 대부분의 제재에서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에 초점을 모으고 있고, 그 외에는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고취하거나 반일, 반미, 반남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좀 덜한 것이 설명 제재와 동화 제재이다. 이제 이러한 북한 인민 학교 국어 교과서의 제재를 남한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 아래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제재 수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북한에 없는 제재들 즉 쓰기 제재, 속담, 수수께끼, 말놀이, 회의록, 방송자료, 기사문 등이 남한에는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근본적으로 대조되는 것은 제재의 내용이다 남북의 시를 보면, 북한의 시 제재는 김 부자 찬양이나 정치 사상 교육이 주요 내용이지만, 남한의 시 제재는 예외 없이 모두가 아동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전기 제재는 더욱 대조되는데 북한 전기 제재의 주인공이 김일성 일가 5명인데 비해, 남한 전기 제재의 주인공은 서경덕, 이항, 윤관, 황희, 장영실, 윤봉길, 유관순, 에디슨, 헬렌켈러, 이순신, 슈바이처, 박문수, 이상재, 한석봉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맺는 말

남한과 북한의 국어 교육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통일을 내다보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현저한 차이를 냉엄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매여서도 안 된다. 줄연히 메우기 어렵다고 하여 낙망해서도 안 된다. 열정을 갖되 지극히 이성적인 자세로 통합 발전 방안을 면밀히 세워 나가야 한다. *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황혜정

남북한의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수학은 사상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교과로 교육과정 영역 구분, 각 영역별로 다루어지는 비중, 학습 내용과 그 계열성 등 상당 부분에서 동질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이수 연한의 차이,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 교육의 목표 상의 차이로 인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수학과 교육과정의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과 이에 따른 교육 통합의 실현에 대비하여 수학 교육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학 교육과정 통합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남북한 초등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남한의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북한 교과서(1990년)를 비교 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인민학교 교수방법》과 《사회주의 교육학》등을 참조하였다.

교육과정의 편제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문서는 '교육강령'으로, '과정안'과 '교수요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정안은 남한의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하며, 교수요강은 남한의 각론과 교육과정 해설서를 겸비한 문서로 여겨진다. 남한의 제 4, 5, 6차 교육과정과 1982, 1986, 1992, 1996년 개정된 북한의 과정안의 편제표를 살펴본 결과, 초등 학교의 경우 수학의 총시수가 전체 총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한의 경우 15% 선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은 적어도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수학 교육의 목표는 수학 학습에서 수량이나 도형에 대한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과 더불어 수학적 기능을 길러, 이를 활용하여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수와 셈법을 기본으로 하여 계산 기능을 숙련시키고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 주는 동시에 고등중학교 수학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 응용 문제 풀이와 기타 여러 계기들에서 학생들을 주체 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혁명적 수평관, 주체의 혁명관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수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수학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여 혁명과 과학 기술에 주체성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역별 학습 내용

우선,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영역을 전체적으로 볼 때 나타내는 명칭만 다를 뿐 남한과 북한의 수학 영역 구분은 거의 유사하다.

남한과 북한의 수학 내용을 남한의 교육과정 영역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 연산 영역

남북한 모두 수 영역에서 취급되는 범자연수(0과 자연수), 분수, 소수의 비중이 비슷하다. 남북한의 연산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의 비중도 비슷하며, 특히 남북한 모두 범자연수의 사칙 연산을 중시하고 있다. 정수의 연산과 수판셈은 남한에서만 취급되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분수와 소수의 연산을 비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 남한에서는 수와 연산에 관한 내용이 전체 내용 중 50%(수 13.9%, 연산 36.0%) 정도에 달하고 있는 반면, 북한 교과서에는 70% 이상(연산: 50.8%, 수: 18.9%)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학의 기초적인 능력을 숙달시켜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도형, 측도 영역

남북한 모두 수와 연산 영역이 수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형 영역과 측도 영역에 대한 비중이 낮다. 도형 영역에서 남북한 모두 평면도형을 입체도형보다 훨씬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입체도형에 대해서도 비교적 비중을 두는 편이다. 측도 영역에서는 남북한이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시간, 각, 넓이와 둘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비슷하지만, 북한에서는 길이, 둘레와 무게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한에서는 부피와 겹넓이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생활의 필요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남한에서 다루어지는 근사값과 어림에 대한 내용이 북한에서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데, 이는 4년이라는 이수 연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관계 영역

관계 영역은 크게 확률 통계, 방정식, 비와 비율, 함수, 문제 해결의 하위 영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확률 통계 부분은 남한이 보다 체계적이고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방정식 부분은 남북한 모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초등 학교 5학년에 가서 문자를 도입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인민 학교 1학년부터 대응 관계와 변환 관계를 고찰시키고 문자를 도입하여 방정식의 개념과 방정식을 푸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방정식을 '대수 초보' 영역으로 두었는데, 이는 함수의 기초 학습을 이루는 독립적인 하나의 영역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수 초보' 영역에는 방정식 외에도 표 만들기, 막대 도표, 꺾임선 도표 등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와 비율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남한에서는 문제 해결 부분을 관계 영역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각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남한에서는 이 부분을 교과서의 [여러 가지 문제]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교과서의 각 단원에서 문제 만들기 등을 비롯하여 남한의 [여러 가지 문제]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분산시켜 다루고 있다.

교과서의 단원 편성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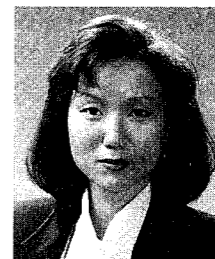
남북한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인체의 수준이 떨어지고, 교과서 단위 쪽당 담겨 있는 내용이 많다. 그리고, 남한 교과서에는 학습의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 교과서에는 거의 문자에 의존하여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과서 단원 편성 체제 및 학년별 학습 내용의 특징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모두 단원명은 그 단원의 핵심적인 수학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남한에서는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단원을 각 학기마다 1-2단원씩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는 주로 이전에 배운 내용의 복습을 위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복습] 단원을 각 학년마다 2 단원씩 두고 있다.

둘째, 남한의 경우 모든 학습 내용(요소)에 대하여 학습 목표 제시, 본 학습 내용 전개, 연습 문제 제시의 순서로 동일하게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학습 확인 및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간략한 설명을 통해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이어서 연습 문제를 제시하며, 단원 마지막의 종합적인 연습 문제는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셋째, 남한의 교과서가 수학적 원리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교과서는 다분히 문제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계산 기능 숙달을 위한 유사한 문제들이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고차적인 사고



황혜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력을 요구하는 수준 높은 문제들도 많다.

결국, 교과서만을 볼 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대신 남한에서는 수학 익힘책에서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 수록되어 있는 문제의 수는 비슷하다. 남북한 수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의 난이도를 판단 준거로 볼 때, 남한 교과서가 평균 정도 또는 그 이하의 수학 성취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북한 교과서는 수학 성취 능력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남한 교과서는 학습 내용의 전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수업의 진행이 용이하고 이로 인한 학습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습 내용이 미리 다 주어지고 설명되어 있어서, 교사에 의한 주입식 수업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북한 교과서는 학습 내용과 전개 방식이 다분히 산만하고 중복적이며 문제 제시가 주를 이루어 기능 위주의 기계적인 학습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연산 영역과 같이 학습자 스스로 수학의 원리나 방법을 깨우치도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수학 용어 및 문장제 소재

남북한의 용어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학 용어들이 현학적이고 한자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예를 들어, congruence→合同→합동, integer→整數→정수, dividend→被除數→피제수, mixed fraction→帶分數→대분수 등), 북한에서는 대부분 수학 용어를 한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예로써 사권점(교점), 곧은선과 굽은선(직선과 곡선), 모임(집합), 갈기표와 안갈기표(등호와 부등호), 펼친그림(전개도), 거꿀수(역수), 피제수와 제수(나누일 수와 나눔수), 원둘레의 길이(원주), 맞은각과 맞은변(대각과 대변) 등과 같이 그 자체로도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많다.

둘째, 남한에서도 일부 수학 용어를 순수한 한글의 의미를 살려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로는 남한의 '사다리꼴'과 북한의 '체형', 남한의 '마름모'

와 북한의 '등변4각형', 남한의 '꼭지점'과 북한의 '정점', 남한의 '뿔', '뿔'과 북한의 '상', '적'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2등변3각형(이등변삼각형), 바른6면체(정육면체)의 예에서 보듯이, 남한에서는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의 변, 각, 면의 수를 한글로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고 있다.

넷째, 북한에서만 쓰이는 용어에는 더하는수, 더는수, 덜릴수, 필산, 데시미터, 평방데시미터, 립방데시미터 등이 있으며, 남한에서만 쓰이는 용어로는 데시리터, 단위각, 기약분수, 겨냥도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문장제 소재를 비교하여 보면, 남한의 초등 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장제의 소재가 대부분 일상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인민 학교 수학 교과서의 경우에는 투쟁성·혁명성 고취, 남한 비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해방 전후 비교, 집단주의, 노동 애호 등의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일상적인 소재도 경쟁심 고취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투쟁성·혁명성 고취에 관한 문제의 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승냥이놈들을 죽치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도와 16,875상자의 탄알을 소년단원 45명이 25일간 날랐습니다. 한명이 하루에 몇상자 나른 것으로 됩니까? (인민학교 4학년 49쪽)

〈남한 비하에 관한 문제의 예〉

미제승냥이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소년들은 어느날 한뭇음에 150장씩인 뼈라 415뭇음을 뿌리고 한뭇음에 50장씩인 뼈라 15뭇음을 붙였습니다. 뿌린 뼈라는 불인것의 몇배입니까? (인민학교 4학년 44쪽)

수학 용어 및 문장제 소재

남북한의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수학은 사상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교과로 교육과정 영역 구분, 각 영역별로 다루어지는 비중, 학습 내용과 그 계열성 등 상당 부분에서 동질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이수 연한의 차이,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 교육의 목표 상의 차이로 인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수학과 교육과정의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한과 북한이 추구하는 수학 교육의 목표가 다르다는 점이다. 남한이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데 비해 북한은 공산주의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커다란 차이점이다.

동일한 수학 내용을 가지고 민주 시민을 기르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를 기르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소재와 지도 방법의 여하에 따라 양성되는 인간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학 교육 목표에 있어서의 차이는 통일의 방향 및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둘째, 남한은 대중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엘리트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커다란 차이점으로, 이를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학과외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학제 상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현행 학제의 경우 초등 학교는 남한이 6년제, 북한이 4년제로 되어 있어 이수 시간이 다르고 그 결과 남북한의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깊이에서 차이를 유발시키고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의 현행 학제가 잠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학제의 통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제 통일과 더불어 남북한 각각의 교육과정의 체계와 위계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선정하고 그에 따른 학년별 내용을 재안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내용의 영역별 구분을 재검토하여 각 영역에 대한 명칭뿐 아니라 해당되는 수학 내용도 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와 연산 영역의 독립적 안배, 함수의 기초 학습 및 강화를 위한 대수 영역의 신설 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남한 교과서에서는 관계 영역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네 영역에 속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총망라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관계 영역에 포함시켜 특정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북한 교과서에서와 같이 전 단원의 학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직하다.

다섯째, 학년별 내용의 재안배 문제는 수학 내용의 계열을 구성하는 문제와도 일맥 상통한다. 수학적 개념의 (학습) 계열 구성은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적합하게 개념을 배열함으로써 이에 대한 학생들의 완숙한 이해를 추구하고 왕성한 문제 해결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남북한의 일부 수학 내용(개념)의 계열 구성이 서로 다르므로(예를 들어, 남한 교과서에서는 직각삼각형→직사각형→정사각형의 순서로, 북한 교과서에서는 직4각형→바른4각형→직3각형의 순서로 다뤄지고 있다), 남북한 학생들의 인지 구조 및 능력, 인지 발달에 관한 비교 연구도 병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학 내용의 계열이 바람직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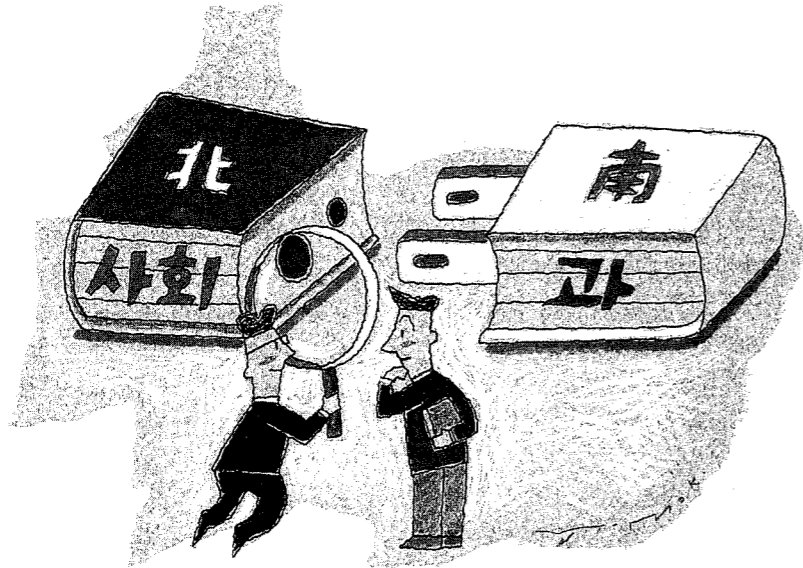
여섯째, 남한에 비해 북한은 수학 용어를 한글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남한이 한글화에 성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북한의 한글화된 용어가 어색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용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의 용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학 용어에 대한 집중적인 재검토 및 수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교과서 체제에 있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북한 수학 교과서에 있어 차시당 쪽수를 늘리고 남한 교과서와 같이 이해 증진과 흥미 유발을 위한 삽화 또는 그림 등을 첨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사상 내용을 담은 내용이나 문제들은 사상성을 희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한의 교과서 단원 편성 체제는 모든 주제에 대하여 동일한 전개 방식(학습 목표, 본 학습 내용, 연습 문제, 종합 문제 순)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수학 교과서는 단원에 따라 상이한 경우도 있다. 남한과 같은 일관성이 있는 단원 편성 체제와 북한과 같이 단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임의적이기도 한 단원 편성 체제 중 어느 쪽이 교수-학습의 방법적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지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최석진



그림·오진욱

현재 남북 간에는 교육의 이질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질성 해소를 위한 교육적 대안을 찾는 것이 통일을 위한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통일 교육에 대한 연구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체제의 사회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과 교육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인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하며,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실상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인민 학교 교과서의 사회과 관련 내용과 남한의 초등 학교 사회과 교육 관련 내용 및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교육부의 의뢰로 1996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추진된 '남북한 초등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최석진·김정호·김왕근·최용규·이동엽 공동 연구)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 인민 학교 교육과정에는 사회과가 없으므로 북한 인민 학교 교육과정의 여러 관련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현실적으로 북한의 교육과정과 관련 교과서를 모두 구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입수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북한에서 교육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근래에 귀순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완했다.

북한 인민 학교 교육과정에는 1960년대에 사회과가 있었으나, 그 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 등의 교과가 생기면서 사회과 관련 내용을 관련된 여러 교과에 분산시키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과 교육에서 지향하는 '민주 시민의 양성'을, 북한에서는 결국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심 고취 교육으로 집중하기 위하여 사회과를

없앴 것으로 본다.

이번에 분석한 북한 인민 학교 교과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1~4학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1~3학년), '공산주의 도덕'(3~4학년), '국어'(1~4학년), '자연'(3~4학년) 등 5개 교과서의 교과서 중 일부이며, 발행 연도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다양하다. 이에 대하여, 남한 초등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 6차 교육과정(1992년도)과 이에 더해 개발한 '슬기로운 생활'(1~2학년)과 '사회(3~6학년)' 교과서 모두이다.

내용 분석과 의미

각 교과서에서 분석한 것은, 먼저 교과서 별로 남한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과 교육 관련 기본 개념의 취급 정도와 서술 방법의 특이성 및 우리 나라 사회과 내용과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사용한 사회과 교육의 개념 준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하여 제시한 것(1977년)을 기본틀로 하였으며, 이 개념들에서는 사회과 영역을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핵심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이 사회과 기본 영역별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해당 교과서를 별도 구안한 내용 분석틀에 따라 단원별로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북한 교과서별로 종합 및 해석하고, 남한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다시 비교·분석하였다.

가. 교과서별 사회과 관련 내용

분석 결과를 먼저 교과서별로 보면,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이하 '김일성'으로 약칭)>은 전체적으로 어린 김일성의 항일 혁명 정신과 애국심을 강조하여 우상화를 위한 것으로,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공산주의 혁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이하 '김정일')>은 김정일 우상화를 위해 조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2가지 교과서에서는 극히 일부 사회과 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와 이들에 대한 충성, 그리고 집단주의 사회 생활의 강조, 절약과 공공재의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국어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강조, 공산주

의와 사회주의 이념 강조, 남한 동포의 해방 고취가 중심이다. 자연은 자연 현상을 중심으로 하되, 자연 및 자연의 개발, 이용, 보전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빌려서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연과 사회과 내용(주로 지리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

이들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사회과 교육 관련 내용은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과 교육에서 강조되는 민주적 시민의 자질로서 중요시되는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 결정, 문제 해결력, 사회 참여 기능에 대한 강조를 거의 볼 수 없었다.

둘째, 역사적 주요 인물로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와 비견하거나 능가할 만한 인물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역사적 사건도 3·1 운동과 일제 침략 사실을 간접적으로 다룰 뿐이고 김일성 일가의 항일 독립 정신과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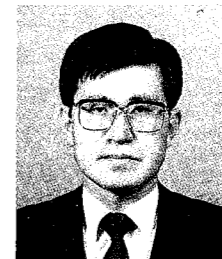
셋째, 지명과 지역도 지리적 관점의 지식과는 거리가 멀고 대부분 김일성 일가의 혁명 투쟁과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넷째, 남한의 초등 학교 아동 입장에서 갖추어야 할 사회 현상에 대한 기본적 사실과 개념 및 사회적 기능에 관한 내용들은 극히 적었다.

다섯째,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당위적 가치만 강조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강조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고 열린 문제 탐구 중심의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

여섯째, 미 제국주의와 남한 괴뢰 정권으로부터 남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하며, 남한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 내지는 과장하고 내용을 왜곡하는 등 배타적, 감정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나. 남한 사회과 교육 관련 내용과 북한 교과서와의 비교



최석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남한 사회과 교육 관련 내용과 이들 교과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 영역은 자연 교과에 비교적 포함되었고, 김일성, 김정일, 국어 등에 극히 일부 포함되었다. 역사 영역은 김일성, 김정일 및 국어과에 왜곡되어 있으나 일부 취급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역사 교육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교육과정에서 '역사' 교과가 있으므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면 상황이 다를 것이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공민 영역은 관련된 내용이 여러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산주의와 자원의 절약·개발·이용 측면, 그리고 예절 교육, 집단 생활 등은 북한의 여건을 반영한 듯 상당히 많은 부분이 취급되고 있으며, 예절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다.

남한 초등 학교 사회과 및 슬기로운 생활 교육과정과 분석한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학년의 우리 고장의 생활 환경 관련 부분과 시·도 지역의 공동 생활 부분 중 자연 환경과 그 이용, 그리고 지역화 학습 내용은 다른 학년과 단원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관련성이 있다. 이것은 북한의 인민학교 생활도 지역 확대법의 원리에 따라 각 지역의 기초적인 자연 환경과 그 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5, 6학년의 역사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김일성과 김정일 교과서에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슬기로운 생활 1, 2학년의 자연 환경, 사회 생활, 협동, 예절, 건강 등의 부분은 자연, 공산주의 도덕 및 국어 교과서 등에서 부분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 인민 학교 사회과 관련 내용을 5개 교과서를 통해 분석하면서 남한 사회과 교육 개념 및 초등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북한 인민 학교에는 사회과 교과서가 없으나, 관련 내용은 여러 교과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사회과 관련 내용은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의 기본 목적, 목표 및 개념,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회과 관련 내용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술하거나 활동을 통해서 학습토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교육의 목적인 김일성, 김정일의 이상화와 주체 사상 강조를 위해서 대부분의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동원

되어 있다. 한편, 자연 교과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 현상과 인간 활동을 통합하여 내용 구성을 시도한 것은 통합 사회과를 지향하는 남한 사회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통일은 한민족의 오랜 염원이며, 우리 나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나, 통일이 가져다 줄 번영을 위해서는 값 비싼 투자를 요구하며, 당연히 국가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육 부문에서 통일을 위한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교육 방안은 여러 단계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한 교육 체제를 비교하여, 공통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에 터하여 통일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서, 북한 인민 학교 사회과 교육 관련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분석하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초등 학교 사회과 관련 교육 내용은 공통성은 적고 이질화는 심대하므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 사회과 관련 교육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사회화를 목표로 하며, 그 초점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 이념은 사실상 구호 수준에 그치고, 모든 것을 이상화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화 방법은 교조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며, 학습자의 비판적 반사회화를 유발한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남한 사회과 교과서는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사회과 교육 목표에 맞게 중요한 사실과 개념 및 가치를 내용 요소로 하여 비판적 탐구를 유발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특정한 중심의 이상화는 전혀 없으며, 학습자가 언제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이 열린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학습자와 주민들의 체제 평가 및 구실에 대한 공통된 인식들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인민 학교 교육 과정에 사회과는 별도로 없으나, 사회과 교육 관련 내용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 교육 영역 중에 자연과 인간 생활, 자원, 지도 등의 지리 영역,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 영역, 예절과 질서 등의 사회·문화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역사 영역은 특히 미흡했는데 이것은 북한 교육 과정에 역사가 독립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 한편, 통합적 내용 구성 등에는 우리의 통합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 시사점을 주는 것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여러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 뒤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아동들에게 남한 아동들을 사회과 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과도기적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과도기적인 교육과정·교과서는 북한 아동의 현재 사회과 교육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과 교육이 지향하는 다양한 관점의 추구, 가치의 상대성 인정, 개방적·비판적 사고 강조, 탐구 방법 적용 등 민주 사회의 고차적 기능을 북한 아동에게 급격히 강조한다면 당혹감과 혼란이 심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은 우선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우리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과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부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정치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남한 교육과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후에 남한의 교육과정을 북한의 아동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남북 간에는 교육의 이질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질성 해소를 위한 교육적 대안을 찾는 것이 통일을 위한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통일 교육에 대한 연구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체제의 사회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과 교육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교과서에 관한 부분적 연구는 일부 시도된 것이 있으나, 이번엔 초등 학교 전 교과에 대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는 초등 학교 교과서의 종합적 연구뿐만 아니라 중등 학교와 고등 교육 단계까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 교육 연구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인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기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 안에 사회과 교육 분과 위원회를 일정 기간 동안이나마 상시 기구로 구성하고 이 기구의 책임 하에 연구를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일 후의 과도기적인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그에 터한 교과서 개발을 연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실상에 관한 교육이 남한의 관련자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이번 북한 교육의 실상과 그 대책에 관하여 남한의 교육과정 수립·개발 및 실행자를 포함하는 교육 담당자와 학생들에게 교육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에 소개되고,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및 통일 후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교사들을 참여시키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의 교육 개혁은 교육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 후 북한의 사회과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도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후를 준비하는 교육 연구는 분단 50여 년 간의 민족 이질화를 극복하고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은 남북한 교육 비교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는 정부와 특정 기관이 주도 해온 이 연구 사업에 보다 많은 사회과 교육 연구자들과 현장의 교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 주체를 다변화하고,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연구 영역을 점차 개방시켜 나가야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자연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최 돈 형

북한에서는 인민 학교 3~4학년에 자연과를 주당 3시간씩 배정하고, 혁명과 건설에 의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연의 기본 구성 요소, 자연의 물질성, 자연의 변화 발전 법칙, 자연의 보호·리용·개조, 자연에 대한 실천 능력에 관한 지식 중에서 특히 '생명과학' 영역을 실생활과 관련시키면서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많이 교육하고 있다.

자연과 교육과정 비교

북한 인민 학교 교육과정 편제(1983, 1986, 1992, 1996)에 의하면, 인민 학교 1~4학년 중에서 3학년과 4학년에만 자연과를 각각 주당 3시간씩 배정하고 있어 자연과의 비중은 1~4학년 전체 과목 총시수 중에서 6%(222시간)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남한의 학년별 자연과 배당 비율(10~11%)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북한의 인민 학교 3학년과 4학년 경우로만 따져 보면 각각 12%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중등 학교 수준에서는 남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과학과에 배당하고 있어, 북한이 과학과를 남한보다 중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자연과 목표는 자연을 인식하고 보호, 개조,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자연의 변화 발전 법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연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탐구력이다. 자연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남한에서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두지만, 북한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의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데 두고 있다.

남한의 자연과 학습 내용은 학년별로 지식과 과정(탐구 활동)으로 구분되어 제시되는데, '지식'은 물질, 운동과 에너지, 생명, 지구의 4영역이며, '탐구 활동'은 관찰, 분류, 측정, 의사 소통, 예상, 모형 사용, 자료 수

집 및 처리, 자료 해석, 실험, 실험 기구 다루기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과 학습 내용은 자연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 자연의 물질성에 대한 지식, 자연의 변화 발전 법칙에 대한 지식, 자연의 보호, 리용·개조에 대한 지식, 자연에 대한 실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 과학 내용이 아닌 통합된 지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인민 학교 자연과 학습에서는 직관 자료의 이용 방법, 관찰 지도 방법, 자연 실험 방법, 자연 실습(실제 작업) 방법, 자연 견학 지도 방법의 5가지가 권장되고 있다. 또 북한에서는 학업 성적을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일상적인 학업 성적 이해를 위한 평가', '시험', '학업 성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상적인 학업 성적 이해의 평가 방법으로는 과제 수행 정도 검열, 답화를 통한 검열, 학습장을 통한 검열, 창작품을 통한 검열, 학과 토론, 실험·실습, 연구 소조 활동, 사회·정치 활동을 통한 검열의 5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1992년도에 개정된 북한의 과정안에 의하면, 인민 학교의 경우 3학년과 4학년에서만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인민 학교에서 제공되는 10개 교과 중 시험을 치르는 교과는 학년별로 1학기에 3개 교과, 2학기에 4개 교과에 불과하다.

3학년과 4학년에서 시험을 치르는 교과는 국어, 수학, 자연 등인데, 자연 교과의 경우 3학년과 4학년 2학기에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다. '학업 성적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시험을 포함하여 학과 토론, 실험 실습, 학과 논문, 사회·정치 활동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북한 인식 똑바로 안보 의식 새롭게

자연과 교과서의 내용 비교

남한의 초등 학교 1~6학년 자연 교과서 12권('슬기로운 생활' 포함)과 북한의 인민 학교 3학년과 4학년 자연 교과서 2권을 분석하였으며, 자연과 교육 내용을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상과학', '과학·기술·수학의 상호 관계', '과학 기술의 역사', '과학에 관련된 환경과 자원 문제', '과학의 본성', '과학과 다른 교과목'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내용 영역별 구성 비율 : 남한의 1, 2학년 '슬기로운 생활' 교과를 제외하고 남북한 초등 학교 자연 교과서 내용 영역별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남한의 경우에는 '물상과학' 영역(43.46%)이 가장 비중 있게 지도되고 있고, '지구과학'(24.1%)과 '생명과학'(23.9%) 영역이 전체 분량 중에서 각각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았다. '물상과학'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은 이 영역에 물리와 화학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생명과학'(47.2%), '지구과학'(24.4%), '물상과학'(15.7%), '과학과 다른 교과목'(5.4%), '과학에 관련된 환경과 자원 문제'(4.5%) 영역 순으로, 남한보다 '생명과학' 영역이 강조되며, '물상과학' 영역은 덜 강조되고 있다. '지구과학' 영역은 남북한에서 거의 동등한 비율(각각 24.1%, 24.4%)로 지도되고 있으나, '과학과 다른 교과목', '과학·기술·수학의 상호 관계' 등의 영역에 할당된 교과서 쪽수 비율은 북한의 경우가 모두 더 높아, 북한 인민 학교 자연 교과서 내용이 다른 과목 내용이나 실생활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남한의 1, 2학년 '슬기로운 생활' 교과를 포함할 경우, 남한의 경우에는 '물상과학'(30.6%), '생명과학'(22.4%), '과학과 다른 교과목'(22.4%), '지구학'(15.6%), '과학·기술·수학의 상호 관계'(4.8%) 영역 순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생명과학'(47.2%), '지구과학'(24.4%), '물상과학'(15.7%), '과학과 다른 교과목'(5.4%), '과학에 관련된 환경과 자원 문제'(4.5%) 영역 순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생명과학'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강조되고 있고 그 비율이 남한의 경우보다 2배 이상이었는데, 3학년용 자연 교과서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67.8%)을 '생명과학' 영역에 할애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1, 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에서 '과학과 다른 교과목' 영역 즉 사회과 내용과 통합된 내용이 많이 지도되고 있고, '과학 기술의 역사' 영역이 극히 적은 분량(0.3%)이지만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이 영역이 전혀 없다. '과학의 본성' 영역과 관련된 내용은 남북한 모두 초등 학교 자연 교과서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표 1> 남북한 자연과 교육 내용 영역별 구성 비율

단위: 쪽수(%)

영역	남한				북한			
	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3학년	4학년
지구과학	214.0 (24.1)	44.0 (23.7)	50.0 (21.4)	65.0 (27.8)	55.0 (23.5)	63.2 (24.4)	23.2 (16.7)	40.0 (33.2)
생명과학	212.0 (23.9)	64 (34.4)	61 (26.1)	54 (23.1)	33 (14.1)	122.2 (47.2)	93.9 (67.8)	28.3 (23.5)
물상과학	385.3 (43.4)	72.0 (38.7)	110.0 (47.0)	100.0 (42.7)	103.3 (44.1)	40.7 (15.7)	4.6 (3.3)	36.1 (30.0)
과학·기술·수학의 상호 관계	16.7 (1.9)		9.0 (3.8)	3.0 (1.3)	4.7 (2.0)	7.1 (2.7)	5.0 (3.6)	2.1 (1.7)
과학 기술의 역사								
과학에 관련된 환경과 자원 문제	53.0 (6.0)	6.0 (3.2)	4.0 (1.7)	5.0 (2.1)	38.0 (16.2)	11.7 (4.5)	3.5 (2.5)	8.2 (6.8)
과학의 본성								
과학과 다른 교과목	7.0 (0.8)			7.0 (3.0)		14.1 (5.4)	8.4 (6.1)	5.7 (4.7)
영역 계	888.0 (100.1)	186.0 (100.0)	234.0 (100.0)	234.0 (100.0)	234.0 (99.9)	259.0 (99.9)	138.6 (100.0)	120.4 (99.9)

* '슬기로운 생활' 불포함



최 돈 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8개 영역의 하위 영역별 구성 비율 및 범위와 수준 : 남 북한 초등 학교 자연 교과서 내용을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 영역별 구성 비율 및 범위와 수준을 알아본 결과(남한의 '슬기로운 생활' 포함), 남한의 경우에는 내용의 범위가 매우 넓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복되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경향을 띠고 있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각 학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① '지구과학' 영역 : 지구의 모양(1.1), 지구의 변화 과정(1.2), 우주에서의 지구(1.3) 등 3개 하위 영역 중, 남한의 경우에는 지구의 변화 과정 49.2%, 지구의 모양 26.2%, 우주에서의 지구 24.5%이며, 북한에서는 지구의 변화 과정 50.8%, 지구의 모양 30.8%, 우주에서의 지구 18.4%로, 남북한 모두 지구의 변화 과정이 가장 중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화산과 지진을 포함하는 지각 변동(1.2.3), 태양계 행성(1.3.2)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남북한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서로 유사하며, 지구 자연 환경의 3요소인 대기, 물, 지각이 고루 강조되고, 또한 태양계 내에서의 지구의 위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날씨와 기후 관련 내용이 남북한 모두 다른 내용에 비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구과학' 영역의 하위 영역 내용의 비중은 남북한 간에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로 다루는 구체적 내용의 범위나 수준은 상당히 다르다.

② '생명과학' 영역 : 다양성·조직·생물체의 구조(2.1), 생명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작용과 조직체(2.2), 생명의 나선·발생의 연속성·다양성(2.3), 생물의 상호 작용(2.4), 인간 생물학과 건강(2.5) 등 5개 하위 영역 중, 남한의 경우는 다양성·조직·생물체의 구조(2.1)가 제일 많으며(61.7%), 그 다음으로 생물의 상호 작용(2.4)이 중시되고(21.4%), 생명의 나선·발생의 연속성·다양성(2.3), 인간 생물학과 건강(2.5), 생명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작용과 조직체(2.2) 내용은 조금씩 골고루 지도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생물의 다양성, 조직, 생물체의 구조(2.1)가 '생명과학' 영역의 대부분(95.1%)을 차지하고, 생명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작용과 조직체(2.2)와 생물의 상호 작용(2.4) 등은 극히 소량만 지

도되거나 전혀 지도되고 있지 않아 하위 영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생명과학' 영역 내에서 북한에서 교육되지 않은 내용으로서는 세포(2.1.5), 감각과 반응(2.2.2), 서식지와 생태적 지위(2.4.2), 생명의 상호 의존(2.4.3), 동물의 행동(2.4.4), 영양(2.5.1), 질병(2.5.2) 내용이다. 한편으로 남북한의 경우 공히 미생물(2.1.3), 에너지 조절(2.2.1), 변이와 유전(2.3.3), 진화(2.3.4), 유전학의 생화학(2.3.5)의 영역은 전혀 지도되고 있지 않다.

③ '물상과학' 영역 : 물질(3.1), 물질의 구조(3.2), 에너지와 물리적 작용(3.3), 물리적 변화(3.4), 화학적 변화(3.5), 힘과 운동(3.6) 등 6개 하위 영역 중, 남한의 경우는 교육하는 내용 범위가 매우 넓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는데, 북한의 경우는 전기(3.3.6), 자기(3.3.7), 물리적 변화(3.4.1), 물질의 물리적 성질(3.1.2)과 화학적 성질(3.1.3), 힘의 형태(3.6.1)에 국한되어 있고 각 학년에서 교육되는 내용의 범위가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물상과학' 영역 중에서 남한에서만 중요하게 교육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빛(3.3.5), 시간, 공간과 운동(3.6.2), 에너지 형태, 근원, 전환(3.3.1), 소리와 진동(3.3.4) 등이 있다.

'물상과학' 영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남한의 경우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17.2%), 전기(14.6%), 화학적 성질(10.9%) 순으로, 북한의 경우는 전기(29.5%), 물리적 변화(27.5%), 물질의 물리적 성질(19.7%), 자기(13.5%) 순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전기(3.3.6)와 자기(3.3.7) 내용이 '물상과학' 영역 중 29.5%와 13.5%로 14.6%와 5.3%인 남한의 경우보다 비중 있게 교육되고 있다. 또한, 물리적 변화(3.4.1)도 27.5%로 남한의 경우(9.4%)보다 중요하게 교육되고 있다.

④ '과학·기술·수학의 상호 관계' 영역 : 기술의 성격 또는 개념(4.1), 과학·수학 및 기술의 상호 작용(4.2), 과학·기술·사회의 상호 작용(4.3) 등 3개 하위 영역 중, 남한의 경우 '수학, 기술에 과학의 적용'(4.2.2)에 관련된 내용과 '사회에 대한 과학, 기술의 영향'(4.3.1) 내용이 '과학·기술·수학의 상호 관계' 영역 중에서 각각 76.0%와 2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수학·기술에 과학의 적용'

(4.2.2)에 관련된 내용만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다.

특히 남한의 경우에는 '과학, 수학 및 기술의 상호 작용'(4.2)에 관련된 내용이 전학년(3학년 제외)에서 비교적 고루게 지도되고, '사회에 대한 과학 기술의 영향'(4.3.1)에 관련된 내용도 2학년, 4학년, 6학년에 걸쳐서 지도되고 있다. 남북한 모두 과학이 받은 영향보다는 과학이 주는 영향 쪽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⑤ '과학 기술의 역사' 영역 : 남한의 경우 발명과 관련된 몇 가지 예시 자료를 제시하는 학습 형태로 구성된 내용이 자연 교과서 전체 쪽수 중 아주 적은 양(0.3%)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북한에서는 전혀 교과서에서 이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

⑥ '과학에 관련된 환경과 자원 문제' 영역 : 이 영역에 대한 교과서 절대 쪽수는 남한측이 훨씬 많지만 비율로 보아서는 북한측이 약간 높다. 그러나, 이 영역의 내용 요소별 비중은 남북한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 요소별로 살펴볼 때, 남한측은 오염(6.1)에 38.7%를 배정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땅·물·해양 자원의 보존(6.2),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자원 보존(6.3)에 24.2%를 배정하고 있고, 북한은 오염(6.1)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육지·물·바다 자원(6.2)에 64.1%를 배정하여 가장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식량 생산 및 저장(6.5)에 21.4%, 물질과 에너지 자원 보존(6.3)에 14.5%를 배정하고 있다. 남한에는 있지만 북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요소로는 오염(6.1)과 자연 재해의 영향(6.6) 등이 있으며, 북한에서는 다루지만 남한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는 식량 생산과 저장(6.5) 등이 있다.

⑦ '과학의 본성' 영역 : 남북한 자연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영역에 관련된 내용 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과학과 다른 교과목' 영역 : 과학과 수학(8.1), 과학과 기타 과목(8.2)의 2개 하위 영역 중, 남한의 경우 과학과 수학(8.1) 관련 내용이 3.8%, 과학과 기타 과목(8.2) 내용이 96.2%였다. 과학과 기타 과목(8.2)의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 2학년에서의 '슬기로운 생활' 과목이 사회과와 자연과와 통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과학과 수학(8.1) 내

용과 관련하여 전혀 교과서면을 배정하고 있지 않으며 과학과 기타 과목(8.2)에만 적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또, 남한의 경우 과학과 수학(8.1)과 관련하여 '슬기로운 생활'에 길이 재기, 넓이 비교, 모양판 가지고 놀기 등의 활동이 있으며, 과학과 기타 과목(8.2) 관련 내용은 대부분 사회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과 기타 과목(8.2) 관련 내용은 지도, 간척지, 식물 가꾸기 등 사회과 내용과 실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초등 학교 자연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자연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서 남북한 간에 이질성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이질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이질성이 발생하고 심화된 원인과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통일 대비 또는 통일 후의 과학과 교육 방안 수립,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등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남북한 자연과 교육의 이질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인민 학교 자연과 교육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인민 학교 과정안, 자연과 교수안, 자연 교과서 및 이에 관련된 자료 등에 관한 일차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북한의 인민 학교 자연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과학 교육과 초등 학교 자연과 교육의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지만 본 연구 결과는 필요한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계속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과학 교육 관련 후속 연구 과제의 발굴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남북한 과학 교육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등 학교 수준에서의 과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 연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교육 개혁 과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1·2·3·4차 교육 개혁 총 120개 과제는 '97년 8월 말 현재 약 66.7%인 80개 과제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며, 14개 과제는 법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교육 개혁 과제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교육정책총괄과

차수별 추진 상황 총괄

가. 제1차 과제
48개 전 과제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다.

-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시간제학생등록제의 도입, 학교의 전·편입학 기회 확대, 농어촌 지역 거점 우수 학교 육성,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대학 평가 및 재정 지원 연계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 외국어 교육의 강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운영, 대학입학제도 개선 등이다.

나. 제2차 과제

30개 과제 중 17개 과제(43.3%)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 8개 과제는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추진 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전문대학 개방대학 입학 전형 방법 개선, 신대학 및 신대학원 대학 설립 운영 지원, 개방대학의 직업 교육의 내실화, 등이다.

다. 제3차 과제

24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 6개 과제에 대하여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과제는 추진 일정에 따라 '98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부분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 교원 양성 기관과 초·중등 학교 교원상호교류제도 도입, 사립 초·중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보 기술 활용 교육의 도입 및 환경 구축, 학교 도서관(실)의 멀티미디어화, 국공립 시설 등을 국민의 평생 학습장으로 개방 등이다.

라. 제4차 과제

18개 과제 중 1개 과제는 이미 전면 시행 중에 있고, 2개 과제는 부분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추진 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위성교육방송 등 교육방송의 다양화·내실화이다.

- 부분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학교 내 전국 단위 모의 교사 실시의 점진적 축소, 불법 과외 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다.

분야별 추진 상황 총괄

가 초·중등 교육 분야

유아 교육의 공교육 체제 구축 분야 2개 과제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산하 '유아교육개혁추진특별위원회'에서 '98. 2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 분야 20개 과제 중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12개 과제는 전면 시행되거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추진 중이다.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및 교직 사회의 활성화 분야 17개 과제 중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임용제도 개선, 특별연 구교사제와 교장명예퇴직제 등은 전면 시행 중이고, 능력 중심 승진 및 차등 보수 체제로의 개선, 교원 연수 기관 선택권 부여 등 11개 과제는 전면 또는 부분 시행 중이나 교육대학의 체제 개혁과 교원 복지 활성화 과제 등은 아직 정책 연구나 검토 중에 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분야 11개 과제 중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교사초빙제 시범 실시,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특성화

등은 전부 또는 부분 시행 중이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과제는 현재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교육 여건 개선 분야 3개 과제 중 교육 여건 개선 과제는 전면 시행 중이며, 학교·학급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은 검토 중에 있다.

나. 고등 교육 분야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분야 12개 과제 중 대학 정원 자율화, 대학 설립준칙주의제 도입,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단설전문대학원 설치 등 11개 과제는 전면 또는 부분 시행 중에 있으나, 의학·법학 등 전문 대학원제도의 도입 과제는 이해 관계 집단의 반발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입학제도 개선 2개 과제 중 대학별 고사 폐지 등 새 대학입학전형제도는 '97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신교육과정 편제 도입에 따른 선택수능제 도입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관련 3개 과제 중 사학의 자율 역량 제고 등 2개 과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추진 중이며, 사학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는 '98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의 세계화 분야 2개 과제는 첨단학습 정보센터의 설립 등과 함께 전면 시행 중이다.

다. 평생 및 직업 교육 분야

열린 교육 사회·평생 학습 사회 기반구축 5개 과제 중 학점은행제 도입, 시간제 학생등록제 등 4개 과제는 법개정을 완료하였고, 사회 교육 추진 체계 구축 등의 과제는

〈표1〉 차수별 교육 개혁 과제 추진 상황 총괄표

구분	전면시행	부분시행	법개정중	법개정추진	정책연구	검토중	계
1차	36	12	-	-	-	-	48
2차	6	11	4	4	1	4	30
3차	-	12	1	5	1	5	24
4차	1	2	-	-	1	14	18
계	43	37	5	9	3	23	120

〈표2〉 분야별 교육 개혁 과제 추진 상황 총괄표

구분	전면시행	부분시행	법개정중	법개정추진	정책연구	검토중	계
초·중등 분야	21	13	2	2	2	13	53
고등 교육 분야	9	5	-	-	-	5	19
평생 및 직업 교육 분야	8	9	-	3	2	1	23
교육 인프라 구축 분야	5	0	3	3	-	4	25
계	43	37	5	9	3	23	120

'97년 중 평생학습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직업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18개 과제 중 전문대·개방대 입학 전형방법 개선 및 개방대학의 직업 교육 내실화 및 신대학 설립 운영 지원 등은 현재 법 제·개정이 완료되어 전면 또는 부분 시행 중이며, 교육구조제 도입 과제는 정책 연구 중이다.

라. 교육 인프라 분야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과제는 '96년부터 연차별로 반영되어 투자중이나 '98년 GNP 5% 확보는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개혁 지원 기구 체계화 분야 5개 과제 중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 운영 과제는 전면 시행 중에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원 및 교육과정평가원은 조만간에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 7개 과제

중 교육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재활용 체제 구축, 학교정보 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등 5개 과제는 부분 시행 중이며, 가상대학 운영 등은 시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 및 행·재정 연계 지원 체제 구축 분야 3개 과제 중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 연계 강화 등 2개 과제는 현재 전면 시행 중이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은 이미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9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 관계 법령 개편 5개 과제 중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국회 계류 중이며, 사회교육법(평생학습법)은 내년 상반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범정부적 범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 분야 3개 과제 중 불법 과외 단속 과제는 부분 시행 중이며, 학원 운영의 합리화 및 학부모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관련 단체 활동 지원 등 2개 과제는 현재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학생 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

중등장학관실

봉사 활동의 근본 취지는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 강화와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기본적 자질 함양에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봉사 활동의 취지와 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시행 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다. '96년 2월 '학생 봉사 활동 운영 지침' 시달 이래, 그 동안의 시행 현황,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인 의도에서 무보수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봉사 활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봉사 활동의 정신은 두레, 향약, 계 등 상부 상조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에 잘 깃들여 있으며, 최근 들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성인 인구의 75%, 청소년의 55%가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결과는 대학 입학 전형과 취업할 때 봉사 활동 경력이 가산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봉사 활동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소홀해진 인성 교육의 강화와 함께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체험적 교육 기회 제공과 학교·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민주 시민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생 봉사 활동

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학생 봉사 활동의 현황

시·도교육청 연간 봉사 활동 현황 학생 봉사 활동 연간 시수는 각 시·도교육청별 실정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토록 했는데,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 학생 봉사 활동 연간 시수는 다음과 같다.

교육청 별 학생 봉사 활동 연간지수

연도 시간대	'96학년도	'97학년도
40시간대	서울, 부산, 대구, 충북, 경남	부산
30시간대	강원, 전북	충북, 경남
20시간대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인천, 강원, 경북
10시간대	경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학교에 일임	전남, 경북, 제주	전남, 제주

교육부에서는 봉사 활동 운영상의 제장에 요인을 종합 분석, 그 결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생 봉사 활동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대·중·소 도시, 읍·면 지역별 학생 봉사 활동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97학년도부터 2년간 각 시·도교육청별 1개교씩 학생 봉사 활동 시범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9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시 봉사 활동 반영 현황

총 180개 대학 중 60개 대학, 즉 15개 국·공립 대학(서울대, 강릉대, 경북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서울교육대 등)과 고려대 등 42개 사립 대학, 삼척산업대 등 3개 개방 대학이 봉사 활동을 대학 입학 전형시 반영할 예정이다.

학생 봉사 활동의 문제점

봉사 활동의 근본 취지는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 강화와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기본적 자질 함양에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봉사 활동의 취지와 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 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다.

봉사 활동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이해 부족

교사들의 업무량 증가와 근무 시간 초과, 봉사 활동의 근본 취지 이해 부족 등으로 학생 봉사 활동 지도에 소홀한 감이 있다. 학생 봉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사의 사제 동행 및 안내가 필요한데, 이런 활동은 대개 방과 후나 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의 개인 생활이 침해받게 되어 현장 동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봉사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 활동 대상 기관 여부에 관계 없이 봉사 활동을 자청하거나, 봉사 활동 후에 활동 시간의 과다 기록을 요구하기도 하고, 현장에서의 활동 기법이나 자세가 미숙하여 시간 때우기식 형식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 또한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잘못된 자녀 교육관, 자녀의 과잉 보호 등으로 자녀들을 대신하여 봉사 활동을 자청하거나, 학생이 활동하지도 않은 확인증 발급을 요구하는 등 비교육적 행태가 표출되기도 한다.

교육청의 행정 지도 미흡

학교 현장의 행정 지도 소홀 및 봉사 활동 시수 과소 책정으로 인하여 학생 봉사 활동을 기다리는 봉사 대상 기관이 증가하는 데 비해 학교 내 활동만 하고 봉사 활동을 끝내는 학교가 속출하는 경우가 많다.

봉사 대상 기관의 문제점, 봉사 활동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을 단순 노동 대용으로 보고 인력 대체 효과만 노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학생의 신체 발달 수준이나 지적 발달을 고려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동량이나 활동 시간이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학생 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

각급 학교

봉사 활동 전담 교사 및 부서를 배치하여 학교 단위 봉사 활동 시행 계획을 실현성 있게 수립하고 학생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급 및 학년의 수준에 알맞은 내용과 방법을 통해 봉사자인 학생들이 봉사 활동의 개념과 의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전체의 특강 시간, 학급 담임의 조·종례, 교과 교육 시간 등 학교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하고, 특히, 봉사 활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봉사 활동과 일시적인 선행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지역 사회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 영역 및 대상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학생에게 소개해 주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봉사할 대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봉사 대상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없이 참여하게 되면 봉사자 스스로 애로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봉사 대상자에게도 마음의 상처나 불편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봉사 활동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봉사 활동에 임하는 학생들이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봉사 대상자나 봉사 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일 등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봉사자의 자세나 지켜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봉사 활동에 임할 때 늘 염두에 두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각급 학교별로 적절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봉사 활동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생 봉사 활동에 대해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특히 봉사 활동 대상 기관은 봉사 활동 참가 학생을 단순 노동 대용으로 활용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교육적 차원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해 주도록 협조를 구한다.

교육청

전담 부서 및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여 각급 학교 행정 지도를 강화한다. 학생 봉사 활동 시간 및 고입 반영 비율은 활동 가능 봉사 대상 기관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연간 20시간 내외로 적의 조정 실시하도록 한다. 각급 학교에 교원 교육 및 학부모 이해 교육을 위한

별도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교육청 간부 직원의 자원 봉사 참여를 촉진 수범 차원에서 권장한다.

각급 학교가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편성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의 안내, 봉사 활동 유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교들이 연합하여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봉사 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교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봉사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

조 관계를 유지하여 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교육청 주관하에 관내 몇 개 학교들이 공동 실시할 수 있는 봉사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관한 목록을 만들어 보급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봉사 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부

학생 봉사 활동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시범 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봉사 활동 모델의 개발 보급에 힘쓰며, 대학 입학 전형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 봉사 활동 결과를 반영하도록 대학에 권장한다. 또한, 수시로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

국립 대학 경영 진단 평가 사업

대학지원총괄과

국립 대학 경영의 효율성을 진단 평가하고, 개별 대학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립 대학 경영 진단 평가 사업'이 실시된다. 2001년까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모든 국립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이 사업에 의한 평가 결과는 국립 대학의 조직 인사 시설 재정 분야 등 국립대 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97년 현재 전국에 설치된 4년제 국립 대학은 총 24개 교에 이른다. 그 동안 국립 대학은 열악한 고등 교육 여건 속에서도 국가 엘리트 양성, 이공계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고등 교육 기회의 확충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립 대학과의 차별

화가 곤란한 양적 확장 추구 및 사립 대학과 달리 경쟁이 결여된 비능률적인 관리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국가 재정 지원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국립 대학의 경우 그 조직 운영의 확실성 및 경직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등에 따라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전 국립 대학 대상 실시

이에 따라 교육 연구 지원 체제로서의 대학 경영의 효율성을 진단 평가하고, 개별 대학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립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립 대학 설립 이래 최초로 올해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이 바로 '국립 대학 경영 진단 평가 사업'이다. 올해부터 2001년까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24개의 모든 국립 대학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는 동 사업에 의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가 결과는 국립 대학의 조직 인사 시설 재정 분야 등 국립대 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 사업이 국립 대학들 간에 순위를 매기거나 차별적 재정 지원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한 대로 '개별 국립 대학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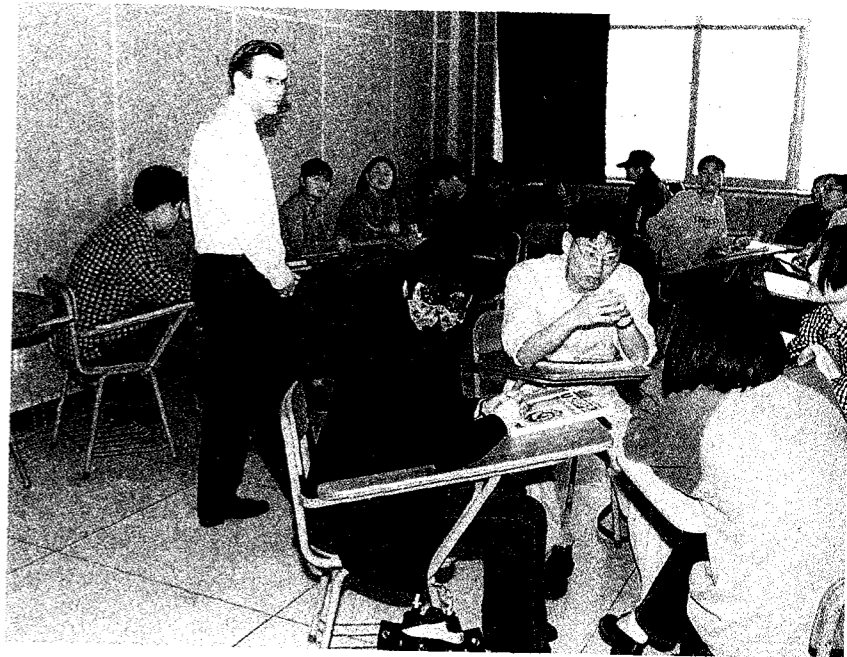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경영 진단 평가는 대학 행정의 구성 요소 전반을 총망라하여 '의사 결정' '조직' '인사' '사무 처리' '시설 및

기자재' '재정'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법령에 근거를 둔 조직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임의로 형성된 조직(예 : 부처장 등 비법정 조직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재정의 경우에도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기성회 및 대학 발전 기금까지 그 대상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별 국립 대학이 유기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있는 그대로 진단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사업의 경우 국립 대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 평가를 위하여 종래와 같이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외부의 경영 진단 전문 기관(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교육 개혁의 추진 등으로 대학 교육 환경이 자율 경쟁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립 대학들의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한 경영 진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개별 국립 대학에 대하여 총체적인 경영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 실시, 대학 구성원의 적극 협조 필요해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예산 사정('97년도 5천만원)으로 말미암아 우선 2개 대학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대학의 희망에 따라 경북대와 부산대가 선정되었다. 그런데 외부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동 사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



국립 대학이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 사진은 전공 과목의 외국어 강의로 성과를 얻고 있는 사립 한동대학교

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경영 진단 평가를 받게 되는 국립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근래 들어 대학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 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대학 현장에서는 중복되

는 평가에 대한 과민 반응이 일고 있으며, 요구되는 많은 자료 등을 작성하느라 실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국가 기능의 민간 이양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국립 대학이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립 대학의 경영 합리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학 구성원들이 흔쾌하게 수용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도입된 동 사업이 예산의 낭비가 아닌 실제 효용 가치가 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립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고등 교육 기관 현황 ('97년 현재)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대학	24 (16%)	2 (11%)	124 (83%)	150 (100%)
개방 대학	8 (42%)		11 (58%)	19 (100%)
교육 대학	11 (100%)			11 (100%)
전문 대학	7 (5%)	4 (3%)	144 (92%)	155 (100%)
방송 대학	1 (100%)			1 (100%)
계	51 (15%)	6 (12%)	279 (83%)	336 (100%)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478호(1997. 9. 11)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교육법 제134조 및 제1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동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2.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동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학교시설·부설시설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신문·방송·잡지등 대중매체
3.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5.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

교육훈련기관·시설

6.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제4조 (평가인정절차)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육개발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인정의 기준) ①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법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

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실험실습실·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5. 유효기간
6. 기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학점인정대상학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2.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3.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5.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7.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8.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제10조(학점인정절차)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학력인정의 기준)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

- 다.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
 2. 전문대학졸업학력 : 80학점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학위의 종별)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학위수여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할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16조 (학위수여요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실기시험 또는 논문시험 등에 합격할 것. 다만, 교육부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법 제115조 및 제1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하고, 당해 전공과목을 35학점이상 취득할 것

4. 교육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부요건 기타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학사학위는 85학점이상, 전문학사학위는 50학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표준교육과정) 제5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별표 2의 학위의 종별에 따른 설치학과
2. 설치학과별 교양 및 전공과목

과 해당 학점

3. 설치학과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18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당자료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에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업무

제20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등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당해 위임 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수료징수) 법 제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점인정의 기준 (제11조관련)

구 분	학 점 인 정 의 기 준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자·교육과정 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다. 학습과정은 2주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라. 강의시간은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6단위를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한다. 마.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연간 36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연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바. 가목 내지 마목의 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취득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당해 자격시험별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다음 각목의 범위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 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30학점

(별표 2) 학위의 종별(제14조관련)

구 분	학 위 종 별
학사학위	문학사, 신학사, 미술학사, 음악학사, 법학사, 정치학사, 행정학사, 교육학사, 도서관학사, 경제학사, 경영학사, 이학사, 가정학사, 체육학사, 공학사, 간호학사(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농학사, 수산학사
전문학사학위	언어전문학사, 예술전문학사, 산업예술전문학사, 법률전문학사, 행정전문학사, 교육전문학사, 경영전문학사, 관광전문학사, 가정전문학사, 체육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간호전문학사(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농업전문학사, 수산전문학사

*비고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그 학위종별은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화유산 사랑하여
민족문화 꽃피우자**

교육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5,482 호(97.9.23)

주요 골자

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 학교의 입학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 및 선발 고사 외의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별 필기 시험은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69조의2 제2항제4호 및 제74조의2제1항 등).

나. 대학의 특차 모집 합격자는 대학의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71조의4제2항).

다. 2학기 편입학 대상을 종전에는 당해 학년의 1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여 학생의 편입학 기회를 확대함(안 제73조제1항).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학교로 한다”를 “학교로 하고,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고

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로 한다”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등학교”라 한다)에 입학하는 자

가. 소질과 적성·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제71조의4제2항중 “특차모집에 지원하여 대학에 합격한 자는”을 “특차모집에 지원하여 대학에 합격한 자(추가합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는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전학년(2학기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1학기)”을 “전학년”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중 “실업계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로 한다.

제112조의5 및 제112조의6 제5항중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각각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로 한다.

제112조의7제2항중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각각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 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제37호중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및 특성화 고등학교”로 한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 15,483 호(97.9.23)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85조·사립학교법 제5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53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

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제3조(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장) ①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제8조(교구)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실업계고등학교 등의 실험·실습실 등) 실업계고등학교(실업계 학과를 설치 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①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교사의 내부환경) ①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별표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범위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 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및 교육법 제8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

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 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

① 시·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

② 설립주체 및 교육법 제8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교육법시행령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학교현장) ①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영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현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현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현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현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보고)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

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주체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도교육감은 교육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

슬그머니 버린 휴지,
슬그머니 버린 양심

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별표1】 교사의 기준 면적 (제3조제2항관련)

(단위:m)

학 교	학 생 별 기 준 면 적			
	40명 이하	41명 이상		
유치원	5N	80+3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 이하	241명 이상 960명 이하	961명 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14N	1,080+4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별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960+6N	1,680+5N	
	인문계열	14N	720+8N	2,160+6N
			예·체능계열	480+10N

※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총학생정원을 각각의 계열로 산정한 결과 소요면적이 많은 계열을 기준으로 한다.
3. 교육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총학생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2】 체육장의 기준면적 (제5조제2항관련)

(단위:m)

학 교	학 생 별 기 준 면 적		
	40명 이하	41명 이상	
유치원	160	120+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3,000	1,800+2N	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4,200	3,000+2N	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4,800	3,600+2N	5,400+N

※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 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교육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총학생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③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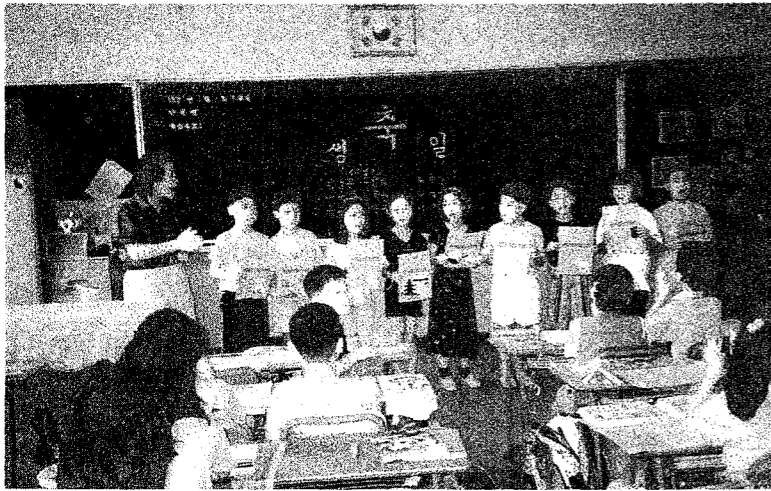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또는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3】 교사의 내부환경기준 (제11조제1항관련)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소 음	55데시벨 이하
온 도	섭씨 18도 이상

생일 축하 잔치를 통한 바람직한 인성 지도

서울우암초등학교 교장 김진석



학교와 가정이 함께 마련한 생일 잔치는 학생들의 소외감과 위화감을 없애, 모두가 즐겁기만 하다.

무한한 꿈을 키워 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생일 축하를 해 주는 일은 뜻있고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은 친한 친구 몇 명을 초대하여 지나치게 화려한 생일 잔치를 벌이는 어린이들이 있어 부모들은 생일 잔치 차릴 걱정, 초대 받은 어린이들은 생일 선물 걱정, 초대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위화감 등으로 생일 축하의 참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급과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학급에서는 반 친구들과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는 학교장과 교감이, 가정에서는 가족 친지들이 마음을 모아 생일 축하를

해 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자긍심과 고마움 마음을 갖게 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주고자 했다

또한 같은 반 친구들이 생일 축하 카드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겸손한 생일 축하 행사로 허례 허식, 낭비 풍조를 불식시켜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하게 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가 마음을 모아 바람직한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생일 축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급의 생일 축하 행사

학기 초에 담임 교사는 우리 반 어린이의 생년월일 일람표를 작성

하여 월별, 주별 생활 축하 계획을 세웠다.

학급 형편에 따라 주 1회, 또는 월 2회 정도 생일이 다가오는 어린이들의 생일 축하 카드를 담임 교사와 학급 친구들이 공동으로 제작한다. 학급에 따라 가족들이 생일 축하 카드 작성에 한몫을 하기도 한다. 담임 교사는 축하 카드에 생일을 맞는 어린이의 장점이나 발전을 바라는 덕담을 쓰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반 친구들은 생일을 축하하는 글은 물론 생일을 맞는 친구한테서 본받고 싶은 점을 찾아서 그 내용을 예쁜 그림을 곁들여 정성스럽게 꾸민다. 학교에서 만든 생일 축하 카드는 학교에서 코팅하여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책받침으로도 활용하여 늘 가까이 두고 주위 모든 이들의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담임 교사는 생일을 맞는 어린이들이 생일 1주일 전에 부모님께 "남아 주고 길러 주신 은혜"에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하고, 생일의 본래 의미는 축하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임을 일깨워 준다.

생일 당일 아침에 학급 친구들은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담임 교사의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코팅한 생일 축하 카드를 주어 축하한다.

학교의 생일 축하 행사

생일을 맞는 어린이들은 2교시를 마친 후 학급 어린이들이 만들어 준 생일 카드를 들고 1학년 어린이

는 교장실로, 2~6학년 어린이는 교무실로 간다. 2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은 작년에 학교장이 생일 축하와 함께 대화를 했으므로, 학교장은 1학년 어린이들과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 등 어린이 신변에 대한 상담을 했다.

학교장은 생일을 맞은 어린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연필 석 자루를 선물로 나누어 준 다음 대화를 나눈다. 가까이 앉아 얼굴을 마주 보며 학교 학급 생활, 가정 생활, 친구와의 사귀, 장래 희망, 방과 후의 생활 등 어린이의 일상 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생일 카드를 보면서 학급 어린이들이 써 준 글을 화제로 칭찬과 격려를 해 줬다.

대화가 끝난 다음 다함께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는 악수를 나누며 교실로 돌아가게 했다. 어린이들과 대화한 내용 중에는 담임이나 학교장 및 교사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만의 고민과 교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안에 따라서 학생 지도에 참고를 하고, 개인 문제는 생일 축하 상담록에 기록하여 어린이 인성 교육에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가정의 생일 축하 잔치

학기 초에 학교의 특색 사업으로 생일 축하 행사를 미리 가정 통신으로 학부모께 통지했으므로, 자녀의 생일 당일에는 생일 카드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는 형제로서 언니 동생에게 생일 축하의 글을 써

주어 부모의 사랑, 형제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며,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하게 생일 축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부모는 생일날 저녁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받은 생일 축하 카드를 보면서 선물에 담긴 뜻을 이야기하며, 비싼 선물보다는 정성과 뜻이 담긴 선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한 편으로는 학급에서 자녀의 생활과 친구들과의 사귀, 학급에서 자기 자녀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잘 한 점은 칭찬해 주고, 좀 부족하다 싶은 점은 격려 조장해 주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친구들을 초대하여 생일 잔치를 여는 것을 되도록 삼가고 가족끼리 조촐하면서도 정겨운 의미 있는 생일 잔치가 되도록 했다.

생일 잔치에 대한 어린이의 생각들

○학급 친구 전체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마음의 선물과 함께 축하를 받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웠다.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이 만들어 준 생일 축하 카드를 읽고 있으면 친구들의 모습이 선하게 어른거리고, 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 무척 좋았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정성이 담긴 연필과 생일 카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의 생일 초대를 받으면 기쁜 마음보다는 선물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그런 고민이 사라졌다.
○교감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 교감 선생님과 더욱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학부모의 의견

담임 선생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이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 생일 축하 카드를 보면서 반 친구들이 내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통해 내 집 아이의 학교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교사의 의견

생일 카드에 써 줄 덕담을 생각하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하게 되어 학급 어린이 하나하나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기대되는 효과

요즘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생일 잔치를 한다든가 값비싼 생일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은데, 정성과 사랑과 우정이 담긴 선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 물질 만능의 생각을 씻어줄 수 있었다.

학급 어린이 모두가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보면서 자기도 좋은 인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어린이 개개인의 인격 형성의 계기를 부여할 수 있었고, 생일 축하 카드를 받은 어린이가 자기의 장점과 소질을 더욱 가다듬어 나가게 되어 자긍심 높은 행동의 내면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어린이들은 교장 교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근감을 느끼고 우암 어린이로서 긍지를 갖게 되어 학교 생활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황순원 선생 근영

오늘을 있게 해 주신 나의 스승

문학과 삶을 함께 가르친 작가 황순원 선생

문학 속에 인간의 본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인간의 영혼이 겪는 아픔을 치유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 그런 문학은 바로 황순원 선생의 작품 세계의 핵심과 소통된다.



김종희
경희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일찍이 맹자가 말한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세번째는,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교육이, 가르치고 배우는 쌍방의 상관성 아래 있는 것이라면 뛰어난 제자를 가르치는 즐거움에 못지 않는 것이 훌륭한 스승을 모신 기쁨일 터이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는 단순히 길을 걸으며 스승의 곁에 서는 위치를 일컬음이 아니었다. 온전한 스승을 가지지 못한 제자는 이 말의 참뜻을 알기 어려울 터이다. '스승'이기 때문이 아니라 '존경하는 스승'이기 때문에 삼가고 조심하며 받들어 모신다는 뜻으로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그런 스승을 모신 제자가 크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필자야말로 더할 수 없이 행복한 경우이다.

황순원 선생, 한국 문단의 원로 작가이며 문학의 순수성을 일관하여 지키면서 우리 소설사에 돌올한 봉우리를 형성한 거장. 그런데 이는 누구나 알고 있으며 누구나 하는 말이므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만큼 그분은 개체적 존재로서의 황순원이 아니며 이미 우리 문학사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황순원 선생은 필자가 경희대 국문학과에 입학한 대학 초년생 때부터 박사 학위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선생께서 80여 세에 이른 오늘까지 단 한 차례도 존경하는 마음을 허물 수 없게 하는 스승이었다.

모든 문학하는 청·장년의 연령층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필자가 '황순원'이란 이름과 마주선 것은 중학교 때의 교과서에 실린 단편 소설 '소나기'의 지은이로서였다. 어린 소견에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정갈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지, 그 작가는 도대체 얼마나 아득한 거리에 있는 창대한 사람인지 알 수 없겠다는 상념이 분분했었다.

나중에 문학 연구자로 알고 보니 '소나기'나 '학'은 거저 주어진 문학적 성과가 아니었으며, 단편 소설에서 장편 소설 집필의 시기로 넘어가는 대목에 이르러 작가의

원숙한 창작 기량이 당대 문학은 물론 작가 자신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도 그 천정 한 부분을 때리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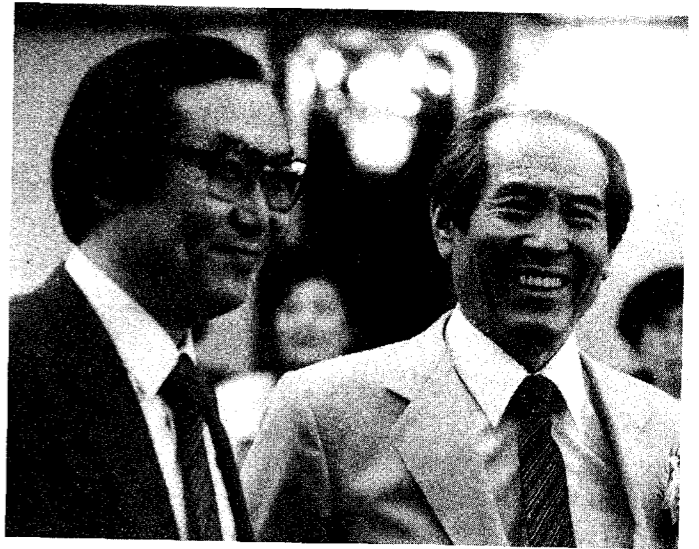
그 황순원 선생을 그 분인 줄도 모르는 채 필자는 입학 시험 면접에서 처음 만났다. 그 날 이후 문하생으로 문학을 공부하면서, 또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필자로서는 황순원이란 큰 이름과의 거리 좁히기를 계속해 온 셈이었다.

강의실에서의 황순원 선생은 빛나는 지성과 날카로운 논리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었다. 늘상 언어를 다루고 문학 언어와 더불어 일상 생활을 해 온 작가이면서도, 그 말씀은 때같이 현란하지 않았고 여울목의 물살처럼 빠르지도 않았다. 언제나 앞뒤의 순서를 보아가며 차근차근 말의 걸음을 옮겨 놓았고 늘 어조가 부드러웠으나 어떤 평가 또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때로 단호한 결의가 겹으로 배어나오곤 했다.

그 분이 스승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자들의 문학하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수 있었으니, 한국 문단에 수려한 이름을 얻은 작가군을 그 증빙으로 내세울 수 있겠다. 전상국, 김용성, 조해일, 조세희, 이유범, 고원경, 이연철, 유재주, 박덕규, 김형경, 이해경, 서하진 등의 작가들 가운데 이 정동적 논의에 반대 의사를 가진 이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기억하는 바 황순원 선생과 관련된 일화는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 사실과 사건들의 공통점을 들자면 모두가 그분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사고나, 따뜻하고 순후한 인간애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품성이 선생의 문학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인데, 문학 속에 인간의 본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인간의 영혼이 겪는 아픔을 치유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 그런 문학은 바로 황순원 작품 세계의 핵심과 소통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에게서 문학과 더불어 삶을 배웠으며, 두 영역 모두에서 흔들



▲ 장남 황동규 시인과 함께 제1회 <인촌상> 수상 기념식장에서

림 없는 사표(師表)로서 선생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선생은 이제까지 시 104편, 단편 104편, 중편 1편('내일'), 장편 7편의 거대한 문학적 노적가리를 이루었다. 선생이 경희 대학에 재직하던 23년 6개월 동안 단 한 가지의 보직도 갖지 않은 채 그야말로 평교수로 초연히 살아 오면서, 2/3에 해당하는 단편과 5편의 장편을 집필하였으니 이 기간이 선생의 생애에 있어서도 가장 굵고 뚜렷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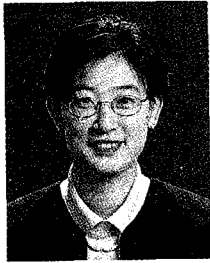
필자의 석사 학위 논문은 '황순원 소설의 작중 인물 연구'였으며, 그 때 선생이 심사위원장이었다. 또한, 박사 학위 논문 '한국 소설의 낙원 의식 연구'를 심사할 때 역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중요한 학문적 성장과 정을 선생의 훈육 아래 있었던 복이 필자에게 있었다.

최근에는 앞서 거론한 제자 작가군을 중심으로 선생과 함께 20여 년을 정기적으로 만나 온 '황순원 선생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단행본 <옛사랑으로 돌아오라>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필자도 문학평론가로서 이 책에 실린 선생의 작품을 선정하고 해설을 쓰면서 참여했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언젠가 '작가 세계'의 황순원 특집에 문학적 연대기를 쓰면서 붙였던 제목이 썩 잘 된 것이었다고 자만해 보곤 한다. 그 제목은 '문학의 순수성과 완결성, 또는 문학적 삶의 큰 모범'이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문학과 더불어 삶을 배웠으며, 두 영역 모두에서 흔들림 없는 사표로서 선생을 모시고 있다.

에듀넷 웹 서비스 교육 자료실



에듀넷의 교육 자료실은 연구 보고서와 논문, 교단 지원 시청각 자료, 교단 지원 인쇄 자료, 전국 교육 자료전 입상작, 학습 지도안, 활동 학습 현장 안내, 주제별 학습 자료, 소프트웨어의 자료, 해외 교육 자료, 인터넷 사이트 정보 등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애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정보개발부

에듀넷의 웹서비스는 교수·학습 자료,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소개, 행정 지원 정보, 교양·오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문자, 소리(음향), 그림,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의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에듀넷의 교육 자료실은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교육 활동의 사례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에듀넷의 교육 자료실을 연구 보고서·논문, 교단 지원 시청각 자료, 교단 지원 인쇄 자료, 전국 교육 자료전 입상작, 학습 지도안, 활동 학습 현장 안내, 주제별 학습 자료, 소프트웨어의 자료, 해외 교육 자료, 인터넷 사이트 정보 등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에듀넷 교육 자료실의 연구 보고서·논문, 교단 지원 시청각 자료, 교단 지원 인쇄 자료, 전국 교육 자료전 입상작, 학습 지도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활용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연구 보고서·논문

연구 보고서·논문에는 각급 학교 현장과 연구 기관에서 직접 연구한 결과 보고서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 해마다 학교 현장에는 우수한 보고서와 교사들의 생생한 체험을 담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연구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다. 에듀넷의 교육 자료실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보고서와 양질의 논문을 모아 사용자들이 원하는 내용의 보고서·논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사 전문직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연구 보고서·논문에는 연구·시범·실험 학교 보고서, 교원 논문, 현장 교육연구 논문, 유관 기관 교육 연구 보고서, 교육 활동 실천 사례, 에듀넷 활용 시범 학교 운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 보고서·논문의 자료실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보고 연도, 학교급, 연구 영역,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연구의 제목이나, 연구

자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검색된 자료는 그의 요약이 볼 수 있으며, 연구·시범·실험학교 보고서, 현장교육연구논문의 경우에는 보고서·논문의 전문을 HWP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다.

(1) 연구·시범·실험 학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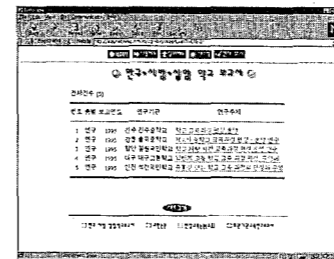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의 일부를 연구·시범·실험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시범·실험 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목적은 새로운 교육 방법이나 교육 이론, 교육 자료 등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일반화시킴으로써,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펴 나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육 활동의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되고 각 시·도교육청의 자료실에 비치된다.

현장 교사들은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찾아야 하며, 타 시·도에서 연구된 보고서는 쉽게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 연구·시범·실험 학교 보고서 자료실의 목적은 전국의 교육부 또는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연구·시범·실험 학교,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모두 탑재하여, 교사들이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자료 검색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그림] 연구·시범·실험학교 보고서 검색화면



[그림]은 연구·시범·실험 학교 보고서 자료실의 검색 화면이다. 이 화면에는 분야별 검색과 주제어 검색이라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자료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분야별 검색이란 이렇게 나누어 놓은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방법이다. 주제어 검색이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직접 주제어를 입력하여 해당되는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가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시범·실험 학교 보고서 자료실에서는 연구 주제와 연구 기관에 해당되는 주제어 검색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찾으려고 하는 자료의 검색 조건에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알맞은 조건을 선택한다. 해당되지 않

는 분야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모든 자료를 검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1995년 교육부에서 지정한 연구·시범·실험학교 중에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화면이다.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1995년에 보고된 교육부 지정 학교 가운데 교육 과정과 관련된 연구를 한 학교의 목록이 제목과 함께 출력된다.

(2) 교원 논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량이 커져야 하고, 교사들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교육 전문직 자질도 향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15개 시·도의 교육연구원에서는 교사와 교육전문직들로 하여금 연구할 기회를 주고, 여러 연구 결과를 모은 논문집으로 발간하거나 하나의 논문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현장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앞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나 교육 전문직, 그리고 현장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교원 논문 자료실은 전국의 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들을 소개하여, 많은 교원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계의 연구 동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현재 에듀넷의 교원 논문 자

료실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전문직 등 전국 교원들의 연구보고서와 논문 중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보고서와 논문 561편의 요약이 탑재되어 있다.

(3) 현장 교육 연구 논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현장 교육 연구 대회에서는 해마다 우수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 질 좋은 논문들에 보다 많은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고, 공유한 지식을 교육 현장의 개선에 활용하며, 또한 교사들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선행 연구를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의 학교 현장 개선 및 자기 개발의 욕구를 지원하려는 것이 본 자료실의 목적이다. 현장 교육 연구 논문 자료실에는 1994년부터 대회에서 1등급에 입상한 640편의 논문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약 400여 편의 논문은 전문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4) 유관 기관 교육 연구 보고서

유관 기관 교육 연구 보고서 자료실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교육 관련 연구소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여 제공한다.

교육 전문 기관의 보고서는 우리 학습 현장에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받은 귀한 보고서이다. 우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교육 방법을 얻기를 원한다. 유관

기관 교육 연구 보고서 자료실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가 많이 있다. 교육 연구 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신망을 이용하여 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이론과 그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다른 학습 현장에 응용하여 보는 것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에듀넷의 유관 기관 교육 연구 보고서 자료실에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2. 교단 지원 시청각 자료

교단 지원 시청각 자료실에는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에서 직접 개발한 시청각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다. 이 자료실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전국적으로 소개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일선 학교나 시·도 교육청,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의 시청각 자료 개발의 의욕을 높여 보다 좋은 자료의 개발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자료실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의 교육청,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에서 개발,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 자료, 즉 비디오 자료, 오디오 자료, TP 자료, 슬라이드, 필름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며 소개하는 자료의 내용을 잠시 동안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여 교사가 알맞은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단 지원 시청각 자료의 검색 방법은 분류 형태에 따른 검색과 주제어 검색이 있다. 분류 형태에 따른 검색 항목은 '자료 형태', '대

상 학교급', '관련 교과'가 있다. 각 항목별로 풀다운 메뉴로 주어진 조건들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한 후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검색이 시작된다. 주제어 검색의 경우 '개발 기관'과 '주제어'의 조건 항목이 있는데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검색이 수행된다.

검색이 끝나면 그 결과로 자료의 목록이 제시된다. 이 목록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명을 선택하면 그 자료에 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료마다 '미리 보기' 아이콘이 제시되며, 이를 선택하면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을 자료의 형태에 따라 동영상, 음성, 이미지의 형태로 미리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미리 보기'를 활용하여 자료의 적절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교단 지원 인쇄 자료

교단 지원 인쇄 자료는 현장 교사들의 자기 개발과 수업 개선 및 학생들의 진로 및 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발간된 각종 도서들로서 전국의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한 인쇄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실이다. 여기에는 보고서와 논문집을 비롯한 교수·학습, 교육 과정, 생활 지도, 연수 자료 등의 각 분야별로 다양한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단 지원 인쇄자료실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들은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육 평가, 상담, 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교 경영, 교육 통계, 장학 자료, 교육 행정, 연수 자료, 목록집 및 사례집, 보고서

및 자료집, 논문집, 교육 잡지 및 기관지, 활용 지침서, 지역 자료 등 19개 분야의 내용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료는 분야별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사용자가 주어진 검색 조건을 입력하면 그 조건에 맞는 자료가 검색되어 목록이 제시되고 이 중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면 그 자료 내용을 소개하는 요약이 제시된다.

여기에서 소개된 도서들은 각 기관 자체의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자료실에서는 이들 자료를 교사들에게 대충해 줌으로써 교사들의 자기 개발과 현장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4.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교육 자료전에서는 해마다 우수한 교육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 교육 자료전은 교원의 전문직적 자질 함양을 위한 자기 연찬의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지도 방법 개선에 기여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1970년부터 시행되어온 행사이다. 그러나 현장의 경험을 살려 제작된 귀한 작품들은 시간적, 지리적 여건으로 일선 교사들이 손쉽게 공유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작 자료실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제작한 질 높은 교육 자료에 보다 많은 교사들이 통신망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접근함으로써 그 자료들을 공유하고, 공유한 교육 자료를 교육 현장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 자료 제작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선행 교육 자료의 파악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교사들의 학교 현장 개선 및 자기 개발의 욕구를 지원하는 한 방법이 기도 하다.

본 자료실에는 제24회, 제25회, 제26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입상한 작품 중에 1등급을 받은 192편의 작품 사진과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을 검색하는 데에는 연구 분야, 대회 횟수, 대회 연도, 관련 학교급, 관련 교과별, 자료별 등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작품명이나,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 학교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찾아볼 수 있다. 검색한 자료는 작품의 사진과 요약된 설명을 직접 화면에서 볼 수 있다. 프린터를 연결한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인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사진과 설명 자료는 파일로 받을 수도 있다.

5. 학습지도안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활동이다. 보다 좋은 학습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교사들은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좋은 학습 결과를 나타내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장 교사들은 매 차시 수업을 위한 계획서인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그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듀넷의 학습 지도안 자료실은 잘 구안된 학습 지도안을 여러 교사들이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이 계획하는 교수·학습 활동에 보다 많

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전문 영역인 수업 연구 지도안 개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것이다. 본 자료실은 한국교육신문사에서 매월 발간하는 『새교실』의 자료 중에 '새수업(학습지도안)' 내용을 과목별, 학년별, 단원별로 자료를 분석하여 모아 놓았다.

학습 지도안 자료실에는 1997년 6월 현재, 1996년 3월부터 1996년 12월까지의 10개월동안의 1, 2, 3학년의 학습 지도안 총 2,875편을 탑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4, 5, 6학년의 학습지도안을 개발할 것이다.

학습 지도안을 찾아보는 방법에는 교과의 단원별로 검색하는 방법과, 『새교실』의 발간 월/주에 따라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단원명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검색란에서 교과와 학년·학기, 새교실의 발간 연도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단원명을 선택한다. 이때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원명으로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다. 원하는 조건을 모두 입력하고 나서는 검색 아이콘을 누른다.

(2) 화면의 오른쪽 프레임에 선택한 조건(교과명, 학년·학기)에 해당되는 단원명이 출력된다. 출력된 단원명 중에서 찾아보고 싶은 단원명을 선택한다.

(3) 선택한 단원의 차시별 주제가 출력된다. 이때 원하는 차시를 선택한다.

(4) 선택한 차시의 학습 지도안이 제시된다. 학습 지도안을 프린터로 뽑고 싶을 때에는 연결된 프

린터를 확인하고 브라우저의 프린트 명령을 이용하여 화면을 프린트한다. 또한 학습 내용을 편집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드래그한 후, 복사하여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로 이동하여 붙여넣기를 실행하고 편집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3학년의 수학 시간에 활용할 6월 4주에 활용할 학습 지도안을 찾아볼 수 있다.

(1) 분야별 검색란에서 교과명에 "수학", 학년·학기에 3학년 1학기, 발간 연도에 1996년을 선택한 후, 월/주를 선택하고 검색 아이콘을 누른다.

(2) 화면의 오른쪽 프레임에 제시된 월/주 중에서 "6월", "4주"를 선택하고 검색 아이콘을 누른다.

(3) 제시된 목록은 3학년 1학기 6월 4주에 이루어져야 할 학습 내용들이다. 이 중에서 원하는 차시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참고한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과 참고 자료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업 시간에 필요한 TP 자료도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파일을 받아 프린터를 통해 인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각 차시는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원하면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통해 학습지도안의 내용을 교사 자신의 파일로 만들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좋은 학습 지도안으로 개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학습 지도안은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수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册版의 고장, 山淸

글 : 木壽 신영훈 · 사진 : 伯顏 김대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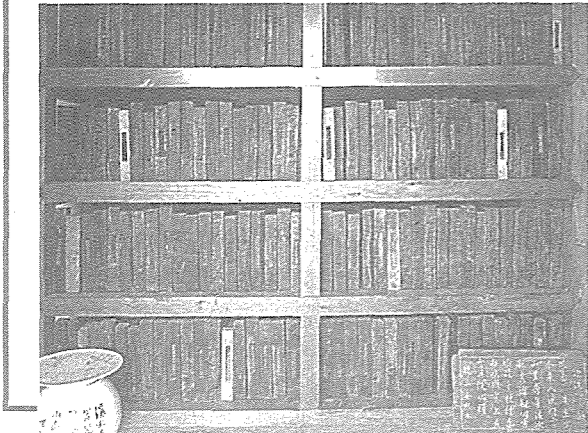
김현자 산청군 교육장이 산청초등학교 권재우 교장을 특별히 지정해서 우리 일행을 인도하고 다니라 하셨다. 덕분에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산청군 내 여러 지역에서 선들과 고인들들이 발견되고 있다.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이 고장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았던 흔적이다. 최근 단성면 강루리에서 빗살무늬가 나타났다. 신석기 시대 말엽부

端溪 선생이 평생 동안 쓴 일기책 7



7 남명 선생 문집 간행 목판. 1622년 이래 1764년 보각판 1640개가 보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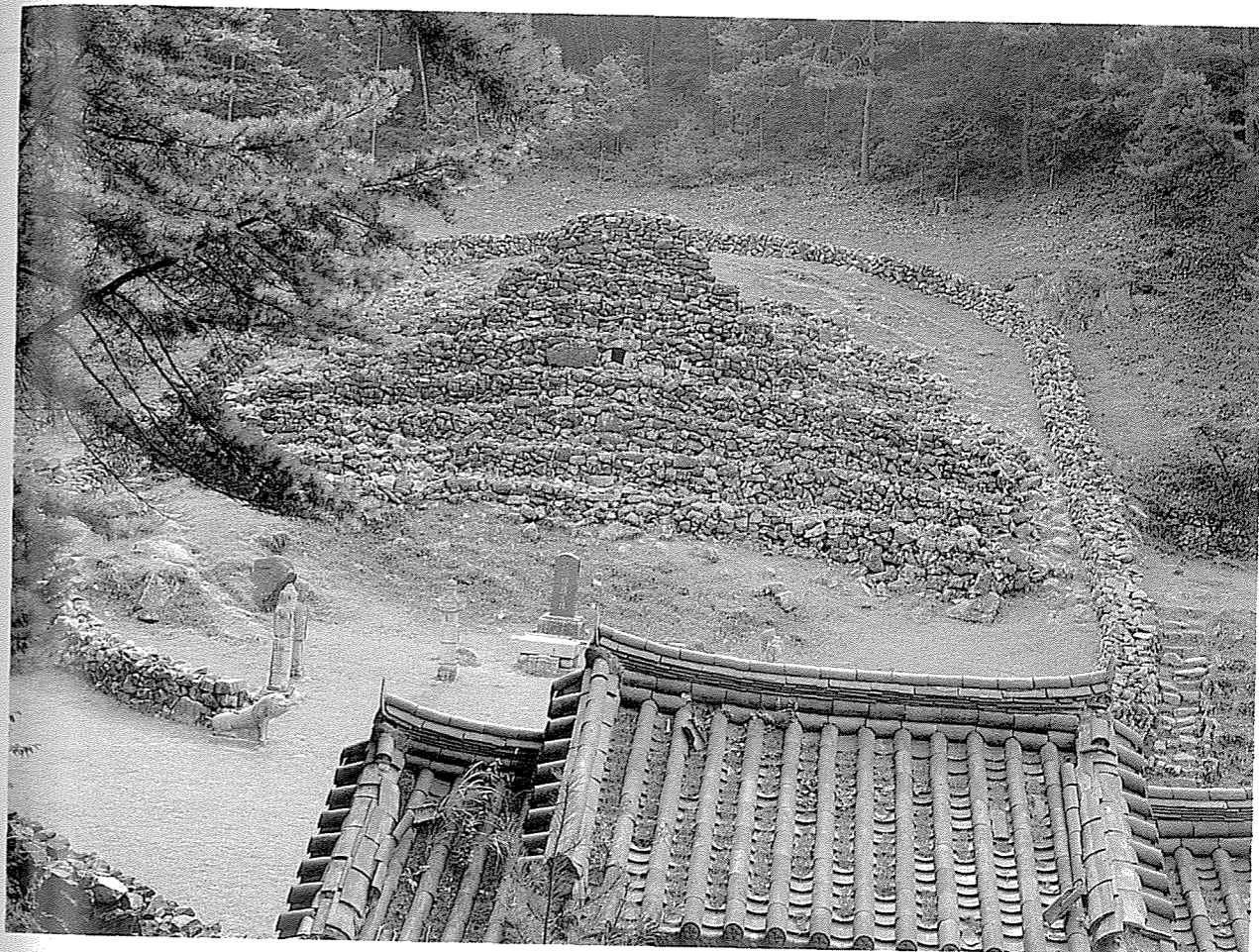
터 남강을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는 자취를 남긴 것이다.

생초면 어서리와 신아면 중촌리의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주인공이 5, 6세기 경의 가야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일찍이 이 지역에 가야 문화가 꽃피웠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서면 화계리에는 가락국의 제10대 임금인 양왕(襄王)의 능이라고 알려진 돌로 쌓은 방단형(方壇形)의 무덤이 있다. 《가락편년기(駕洛編年記)》에 532년 겨울에 仇衡王이 방장산 태왕궁에서 돌아가시니 시호를 양왕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무덤은 속칭 구형왕릉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네모나게 돌을 모아 축조한 방단형의 墓塔은 고구려·백제·신라에서도 조성했고, 지금도 그 유구를 남기고 있다. 또 그 유형이 倭國에 전파되어 行基 스님(백제인)의 土塔을 비롯하여 동대사를 개창한 良弁(백제인) 스님의 頭塔이 되고, 다시 고마야마(熊山)의 토탑인 石造方壇塔이 되었다. 이 계열의 방단형 묘탑을 '토탑'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구려 초의 동명성왕 시절부터라 한다. 그 토탑형이 여기 구형왕릉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은 그 분포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방단묘탑형 양왕릉은 1971년에 사적 제214호로 지적되었다.

능을 가장 잘 바라다볼 수 있는 위치에 바위 벼랑이 있다. 그 바위에 흠을 파고 신비한 것을 보관하였다 하는데, 마치 秘記를 감춘 감실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옆에 '김해김씨장보암(金海金氏藏譜岩)'이라 음각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산청은 두루 아다시피 지리산 기슭에 있다. 지리산은 신라 통일기의 五嶽(동서남북과 中嶽의 다섯 靈山) 중 南嶽으로 숭상되고 제천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신라 말엽에 禪宗이 크게 성행하면서 지리산에 여러 절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 斷俗寺(단성면 운리)가 가장 이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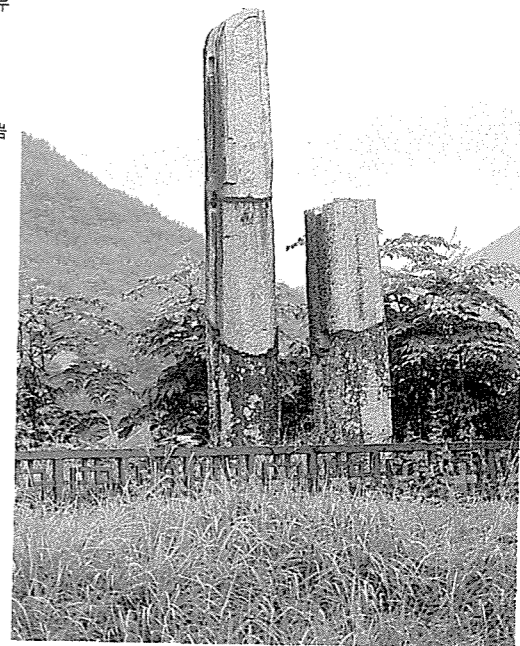
들어서는 어구에 천연스러운 돌문이 있고, 거기에 뛰어난 글씨체로 '광제암문(廣濟岳門)'이라 새긴 것이 있다. 어구에 당간지주가 있고 절터에는 넓게 자리잡고 있는 동서 쌍탑이 있다. 8세기 중엽에 완성한 3층석탑이라 하는데, 아주 장중하게 생겼다. 보물 제72호다.

▲ 가락국 제10대 왕인 양왕의 능으로 알려진 석조 방단형 무덤

시천면 중산리 法界寺 3층석탑은 잘 생긴 큼직한 바위 위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망탑이라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삼층석탑은 삼장면 대포리에 있다. 보물 제1,113호인데, 무너져 있던 것을 1961년에 일으켜 세웠다. 657년에 이룩되었다고 전해 온다. 여기의 절을 內源寺라 부른다.

金海金氏藏譜岩의 모습 ▶

삼장면 유평리에는 大源寺가 있다. 9층의 석탑이 있고 보물 제1,112호로 지정되었다. 9층의 가늘고 나약해 보이는 석탑인데, 그 기단 구조가 특색 있고 재미있다. 기단은 상하 구조인데, 상층 기단 네 귀퉁이에 무덤 앞이나 있는 文人像을 닮은 석상이 丸彫되어 있다. 두 손에 홀을 들고 서 있는 이 작품과 사면의 사천왕상으로 보





▲ 法界寺의 3층석탑 (보물 제473호)

◀ 金海金氏藏諸岩의 모습



▲ 단속사의 동서 3층석탑 (보물 제72호)

아 신라 때 작품이라고는 하기 어려운데, 절에 전해 오기는 646년 완공된 것이라 한다. 전체 높이 6.6m다.

삼장면 대포리 내원사 비로전엔 보물 제1,021호로 지정된 766년에 조성되었다는 비로자나좌불이 정좌하고 있다. 광배까지 구준한 석불인데, 대좌 일부는 새로 보충했다. 신등면 율현리의 울곡사는 보물 제374호의 대웅전이 있어 이름이 낳다.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의 이 법당은 조선조 중기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구조와 채색이 당시의 전형적 성격을 잘 간직하고 있다.

단계에도 석조여래좌상이 있다. 지방문화재 제29호인데, 현재의 전체 높이가 2.23m에 이른다. 노천에 나앉아 있고, 광배는 없어졌으며, 대좌도 온전히 갖추지 않았기에 원형을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고려 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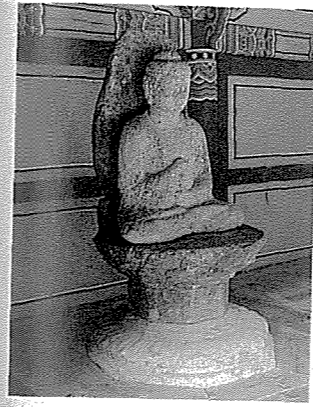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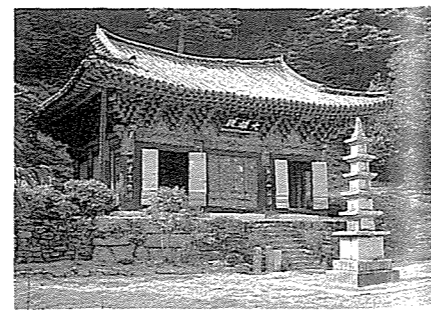
이번 순례에서 가장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 생비량면 도전리의 바위 벼랑에 새긴 마애불상군이었다. 도 지정 문화재 제209호. 크지 않은 여러 軀의 좌불

◀ 大源寺 9층석탑 (보물 제1,1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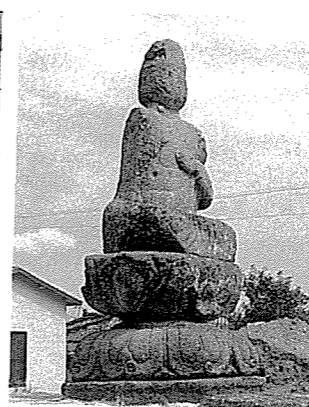


◀ 內源寺 3층석탑(보물 제1,113호)

▼ 栗谷寺 대웅전 (보물 제374호)



▲ 大源寺 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 1,021호)



▲ 단계 석조여래좌상 (지방유형문화재 제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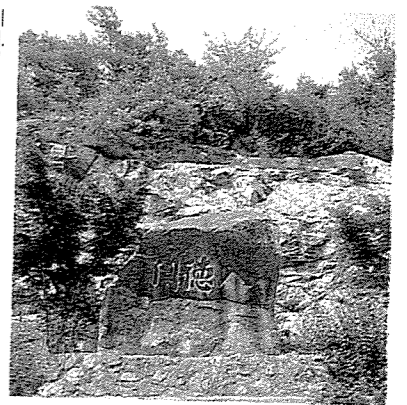
들이 약간 浮彫되는 기법으로 조각했는데, 이런 群像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될 뿐만 아니라 일본 오이따(太分) 지역의 마에석불군과 유사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고려 시대 초기의 불상들이라 여겨지는데,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 보급된 여러 유형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산청은 역시 文香의 고장이다. 1127년에 창건된 단성향교는 초기에 세운 고려 시대의 지방 학교로 유명하다. 1752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데, 중후한 건축물도 찾아봐야 할 건물의 하나이지만 향교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대장(戶籍大帳)이 아주 귀중한 자료(지방유형 문화재 제139호)이다. 숙종 4년(1678년)부터 정조 13년(1789년)에 이르기까지 백 년 간 단성현에 살던 주민의 호적을 기록한 문서이다. 13책으로 취합된 이 고문서는 당시의 인구 동태와 마을의 조직을 알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 39년(1606년)에도 작성된 바 있는 단성현 호적대장과 더불어 한 지역의 조성과 발전을 파악하는 근본 자료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단성 호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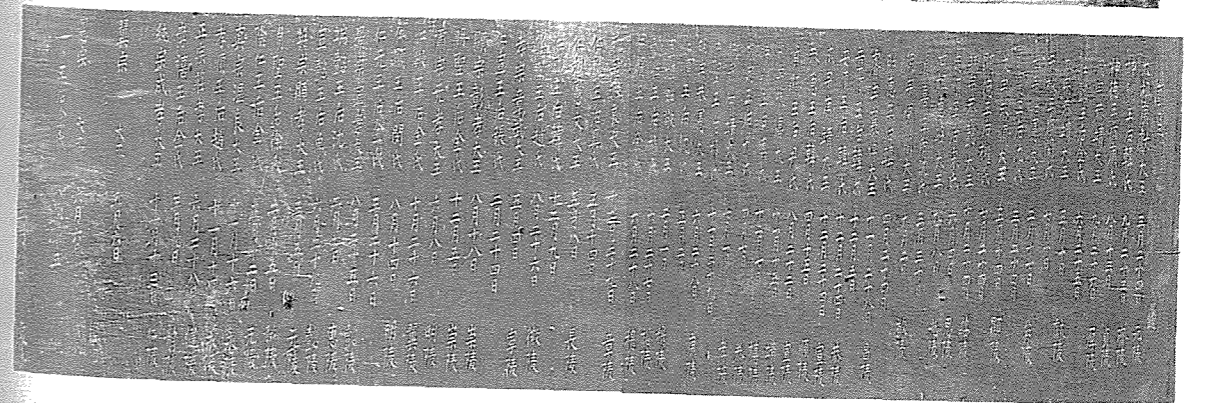


南溪 曹植 선생의 영정 ▲

▶ 남명 선생이 쓰신 글씨. '入德門'



▼ 조선조 역대 임금의 제삿날을 기록한 목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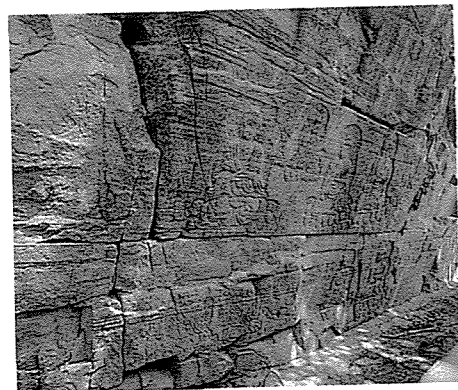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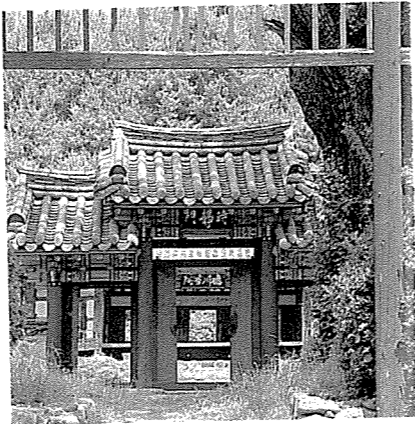


▲ 도천서원(유형 문화재 제237호)

勿山 선생의 영정 ▶



◀ 남명 선생을 배향한 덕천서원 홍살문



◀ 생비량면 도천리의 마애 불상군 (지방 유형 문화재 제 209호)



◀ 목화시베지 목회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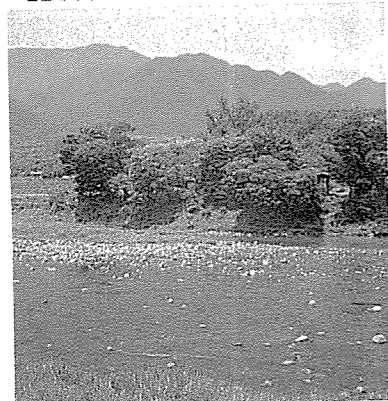
장이 1600년 대의 문서이니 벌써 300년이 넘었다. 그런 문서가 아직도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은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현대인의 기록 문서가 이 보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단성면 사월리에 문익점 선생의 목화 시베지가 있다. 지금도 목화밭이 있고, 시베지 기념비석이 섰다. 목화의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이 비문에 담겼다. 문익점 선생은 1360년에 문과에 급제한 분이다. 1363년 서장관으로 사신 일행에 참여해서 원나라에 갔다가 목화씨를 가져와 심었으니, 그의 애민 정신은 만고에 남을 성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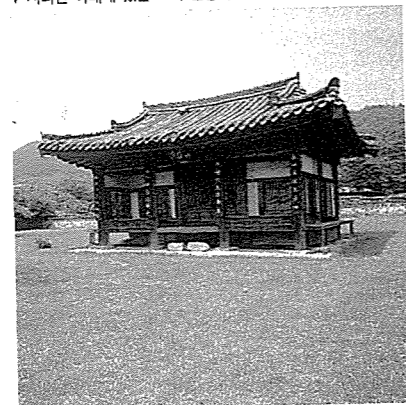
산청엔 서원이 허다하다고 한다. 그들만 다 순방해도 하루 이틀로는 어렵도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다 찾아 봐야 할 일이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참이라 몇몇 곳만 순방하기로 했다.

인도하는 권 교장은 몸씨 난처하신 듯하다. 서원을 안내한 어른들이 만사를 폐하고 기다리고 있는 탓이다. 시간의 제약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선 신안면 신안리에 있는 도천서원에 갔다. 문익점 선생을 배향한 서원으로, 임란에 불탄 것을 1612년에 중창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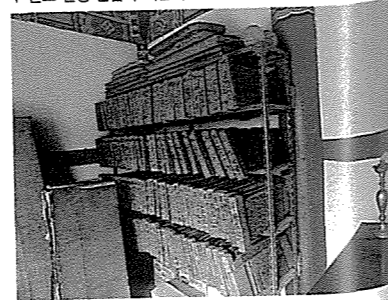
▼ 산청에서 바라본 지리산



▼ 지리산 아래에 있는 조식 선생의 산천재(1516년 건축)



▼ 권도 선생 문집의 책판이 보존된 모습



데, 대원군의 훼손령에 따라 훼손된 것을 다시 증건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청에서 추앙되는 분으로 南溟 曹植 (1501~1572년) 선생을 으뜸으로 꼽는다. 평생을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여러 번 벼슬길에 오를 기회가 있었으나, 번번히 거절했고 심지어 퇴계 선생의 권유도 뿌리쳤다.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여 유능한 인재들 여럿을 배출하여 남명학파라는 명칭이 생겨날 정도였다.

집이 가난하여 처가에서 살기도 했으나, 1561년 지리산 덕천동으로 옮겨 山川齋에 거거하면서 더욱 학문에 정진하고 후배 양성에 전념했다. 산천재는 아주 작은 건물이며 현존하고 있다. 산천재에서는 지리산 영봉들이 한눈에 보인다. 그 광경이 하도 장엄해서 시를 지었고, 柱聯에도 새겨 놓았다. 산천재에서 배출된 후진이 백 여 명에 이른다 하며, 그 중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명성을 떨친 망우당 권재우 선생도 포함되어 있다. 산천재에는 남명 선생의 문집을 후학들의 힘으로 정리 간행할 때 새긴 木版이 남아 있는데, 1576년 판과 1597년 판이 보존되고 있다. 책을 간행한다는 일은 당시로서는 결코 쉽지 않았다. 목판에다 글자를 새겨서 찍어내야 했기에 그 작업은 물론 경비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분의 견식을 터득하려는 학문적 열정에서 후학들이 목판을 만들어 책을 간행했다. 이 일이 시초가 되어 산청에는 수많은 문집 간행의 책판이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산청을 '文齋의 고향'이라 일컫게 되었다. 선생이 서거한 뒤 후학들이 뜻을 모아 1576년에 선생이 강학하던 자리에 서원을 세워 德川書院이라 했다.

승덕사, 경의당, 동·서재, 내외삼문과 세심정이 경영되었고, 국가 사적 제305호로 지정되었다. 1984년 국가에서 보수 공사를 할 때에 나도 그 일에 참여했다. 앞에 흐르는 矢川에서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물살 사이로 헤집는 쥐다위를 잡아 고추장 듬뿍 찍어 회로 먹던 흥취를 그 때에 맞보기도 했다.

산청군 내 문집 간행의 목각판은 그 수가 상당량에 이른다고 한다. 최치원 선생의 비문에 의하면, 신라에서 간행한 책을 당나라 서점에서 팔았다 할만치 예로부터의 전통이 산청에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책판 순례를 하고 싶었으나, 역시 시간 제약 때문에 몇 곳 가까운 집에만 들렀다.

일신당 李天慶(1538~1610) 선생의 시문과 비명·척록 등이 수록된 문집을 1855년에 개관한 책판이다. 일신당도 남명 선생의 문하이며, 글씨도 잘 써서 이름을 얻었다. 이 일신당 책판은 유형 문화재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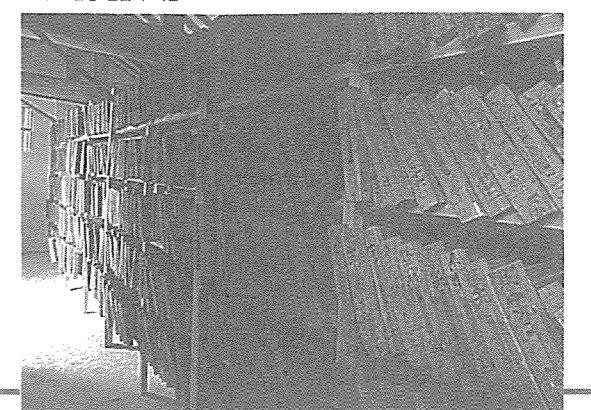
신등면 단계리 완계서원에는 東溪 권도(權濤, 1575~1644) 선생의 책판이 보존되어 있다. 1809년에 간행한 8권 분량의 책판으로 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233호이다. 깜짝 놀랐다. 조선조 역대 임금님의忌日を 일람표로 만든 목판이 있었다. 태조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기일과 장처(葬處)를 세로로 촘촘히 적어 놓았다. 선비들의 충성심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 보통의 정성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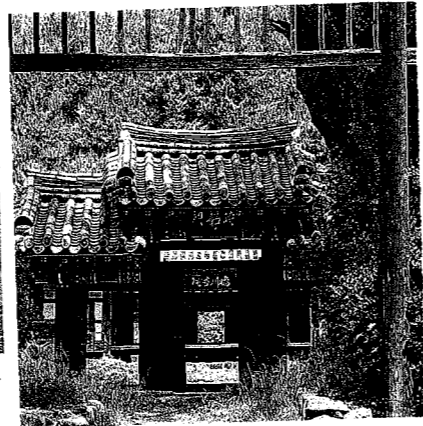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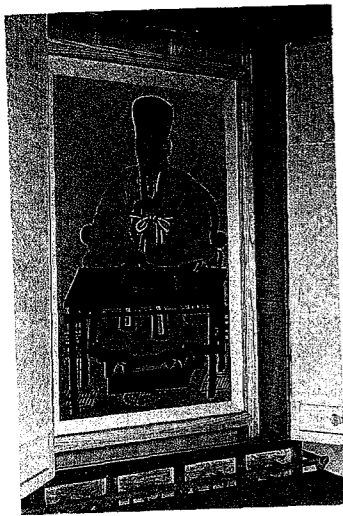
신등면 단계리의 단계(端溪) 김인섭(金麟燮, 1827~1903) 선생의 문집 책판이 두곡서원에 보존되어 있다. 14권의 분량으로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08호다. 19세에 문과에 합격한 이래로 작고하기까지 일기를 기록한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9세기의 생활상을 아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신등면 평지리 이택당(麗澤堂)에도 장판각이 있고 책판이 보관되어 있다. 장판각 이웃에 勿山 影閣이 있다. 현종·철종·고종 3대에 걸쳐 이조판서를 지낸 性齋 許傳(1797~1886) 선생의 초상화를 모신 곳이다. 허 선생의 연보를 읽으면서 공무원도 이런 자세로 평생을 지낼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을 했다.

바빠 다니다 보니 찾아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말았다. 시간에 쫓기면서 권재우 교장과 작별하고 나니, 차는 벌써 산청을 빠져 나오고 말았다. *

▼ 勿山 선생 문집의 책판





▲도천서원(유형 문화재 제237호) 勿山 선생의 영정 ▶

◀남명 선생을 배향한 덕천서원 홍살문

데, 대원군의 훼손령에 따라 훼손된 것을 다시 증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청에서 추앙되는 분으로 南溟 曹植 (1501~1572년) 선생을 으뜸으로 꼽는다. 평생을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여러 번 벼슬길에 오를 기회가 있었으나, 번번히 거절했고 심지어 퇴계 선생의 권유도 뿌리쳤다.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여 유능한 인재들 여럿을 배출하여 남명학파라는 명칭이 생겨날 정도였다.

집이 가난하여 처가에서 살기도 했으나, 1561년 지리산 덕천동으로 옮겨 山川齋에 거거하면서 더욱 학문에 정진하고 후배 양성에 전념했다. 산천재는 아주 작은 건물이며 현존하고 있다. 산천재에서는 지리산 영봉들이 한눈에 보인다. 그 광경이 하도 장엄해서 시를 지었고, 柱聯에도 새겨 놓았다. 산천재에서 배출된 후진이 백여 명에 이른다 하며, 그 중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명성을 떨친 망우당 관재우 선생도 포함되어 있다. 산천재에는 남명 선생의 문집을 후학들의 힘으로 정리 간행할 때 새긴 木版이 남아 있는데, 1576년 판과 1597년 판이 보존되고 있다. 책을 간행한다는 일은 당시로서는 결코 쉽지 않았다. 목판에다 글자를 새겨서 찍어내야 했기에 그 작업은 물론 경비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분의 견식을 터득하려는 학문적 열정에서 후학들이 목판을 만들어 책을 간행했다. 이 일이 시초가 되어 산청에는 수많은 문집 간행의 책판이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산청을 '文齋의 고향'이라 일컫게 되었다. 선생이 서거한 뒤 후학들이 뜻을 모아 1576년에 선생이 강학하던 자리에 서원을 세워 德川書院이라 했다.

승덕사, 경의당, 동·서재, 내외삼문과 세심정이 경영되었고, 국가 사적 제305호로 지정되었다. 1984년 국가에서 보수 공사를 할 때에 나도 그 일에 참여했다. 앞에 흐르는 矢川에서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물살 사이로 헤집는 꺾다위를 잡아 고추장 듬뿍 찍어 회로 먹던 흥취를 그 때에 맛보기도 했다.

산청군 내 문집 간행의 목각판은 그 수가 상당량에 이른다고 한다. 최치원 선생의 비문에 의하면, 신라에서 간행한 책을 당나라 서점에서 팔았다 할만치 예로부터의 전통이 산청에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책판 순례를 하고 싶었으나, 역시 시간 제약 때문에 몇 곳 가까운 집에만 들렀다.

일신당 李天慶(1538~1610) 선생의 시문과 비명·척록 등이 수록된 문집을 1855년에 개판한 책판이다. 일신당도 남명 선생의 문하이며, 글씨도 잘 써서 이름을 얻었다. 이 일신당 책판은 유형 문화재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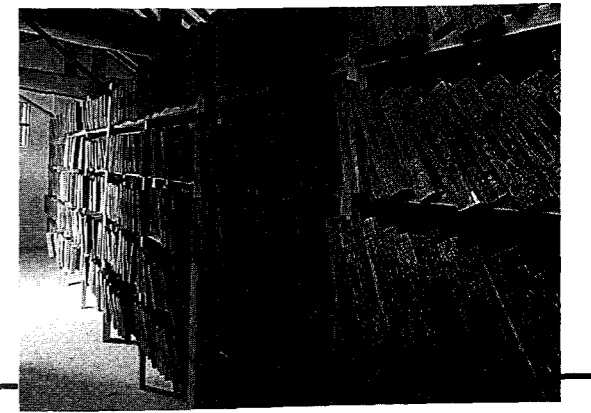
신등면 단계리 완계서원에는 東溪 권도(權濤, 1575~1644) 선생의 책판이 보존되어 있다. 1809년에 간행한 8권 분량의 책판으로 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233호이다. 깜짝 놀랐다. 조선조 역대 임금님의忌日を 일람표로 만든 목판이 있었다. 태조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기일과 장처(葬處)를 세로로 촘촘히 적어 놓았다. 선비들의 충성심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 보통의 정성이 아니다.

신등면 단계리의 단계(端溪) 김인섭(金麟燮, 1827~1903) 선생의 문집 책판이 두곡서원에 보존되어 있다. 14권의 분량으로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08호다. 19세에 문과에 합격한 이래로 작고하기까지 일기를 기록한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9세기의 생활상을 아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신등면 평지리 이택당(麗澤堂)에도 장판각이 있고 책판이 보관되어 있다. 장판각 이웃에 勿山 影閣이 있다. 현종·철종·고종 3대에 걸쳐 이조판서를 지낸 性齋 許傳(1797~1886) 선생의 초상화를 모신 곳이다. 허 선생의 연보를 읽으면서 공무원도 이런 자세로 평생을 지낼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을 했다.

바빠 다니다 보니 찾아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말았다. 시간에 쫓기면서 권재우 교장과 작별하고 나니, 차는 벌써 산청을 빠져 나오고 말았다. *

▼ 勿山 선생 문집의 책판



장이 1600년 대의 문서이니 벌써 300년이 넘었다. 그런 문서가 아직도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은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현대인의 기록 문서가 이 보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단성면 사월리에 문익점 선생의 목화 시배지가 있다. 지금도 목화밭이 있고, 시배지 기념비석이 있다. 목면의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이 비문에 담겼다. 문익점 선생은 1360년에 문과에 급제한 분이다. 1363년 서장관으로 사신 일행에 참여해서 원나라에 갔다가 목화씨를 가져와 심었으니, 그의 애민 정신은 만고에 남을 성스럽다.

산청엔 서원이 허다하다고 한다. 그들만 다 순방해도 하루 이틀로는 어렵도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다 찾아 봐야 할 일이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참이라 몇몇 곳만 순방하기로 했다.

인도하는 권 교장은 몹시 난처하신 듯하다. 서원을 안내한 어른들이 만사를 폐하고 기다리고 있는 탓이다. 시간의 제약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선 신안면 신안리에 있는 도천서원에 갔다. 문익점 선생을 배향한 서원으로, 임란에 불탄 것을 1612년에 중창했

◀ 생비랑면 도전리의 마애 불상군 (지방 유형 문화재 제 209호)



▶ 목화시배지 목화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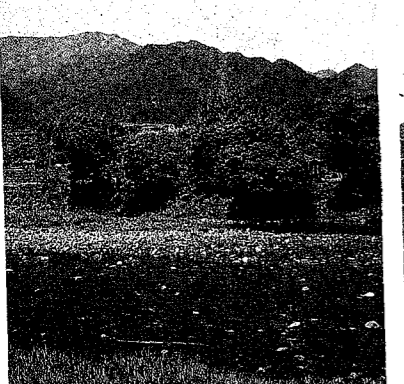
▼ 지리산 아래에 있는 조식 선생의 산천재(1516년 건축)



▼ 권도 선생 문집의 책판이 보존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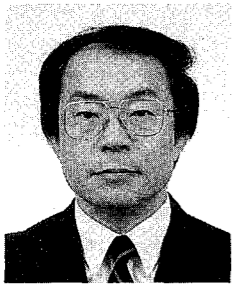


▼ 산천재에서 바라본 지리산



북한의 인기 있는 고등 중학교

올바른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해 북한 사회, 그 내부의 구체적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북한 고위층의 잇단 탈북 현상이나 심각한 식량 사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위기 국면이라는 대체적인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의 수준과 그 대응에 대하여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조금씩 상이한 의견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교육월보>는 북한 내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해 이 난을 마련했다.



강수권
서울신문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현재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등 중학교는 평양외국어학원이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평양외국어학원은 중상류층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 경쟁률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남산고등중학교의 입지 약화와 함께 북한에 거센 외화 바람이 불면서 고위층을 비롯, 중상류층 자녀들이 대거 이 학교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루 세 끼 때우기도 벅찬 북한에서도 자녀들을 명문고등 중학교에 입학시키려는 중상류층 가정 간의 경쟁은 상당히 뜨겁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은 자녀들의 명문 대학 입학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고등중학교 선택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에 따라 직장 배치와 장래가 결정되는 대학 입학과 달리 고등 중학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녀들을 집 주변에 있는 고등 중학교에 보냈다. 당시 명문 학교로는 김일성의 자녀들과 차관급 이상 고위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남산고등 중학교가 유일했다. 이 학교는 부모의 직위 여하에 따라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중상류층 자녀들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이복 동생들인 김평일, 김영일의 기세를 꺾기 위한 방책으로 학교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끝내는 폭파시켜버리면서 남산고등 중학교는 지상에서 사라졌다.

북한 유일의 명문 학교가 폐교되자 70년대 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양외국어학원, 금성고등 중학교, 평양제1고등 중학교, 평양음악무용대학 전문부 등이 인기 학교로 떠올랐다. 이 학교들이 명문고로 부상하게 된 것은 각 학교별로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대학 입학 및 장래성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등 중학교는 평양외국어학원이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평양외국어학원은 중상류층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 경쟁률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남산고등 중학교의 입지 약화와 함께 북한에 거센 외화 바람이 불면서 고위층을 비롯, 중상류층 자녀들이 대거 이 학교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외화 제일주의', '외화 만능' 열풍은 북한 최고의 인기 직업을 당 일꾼으로부터 대외 부문 종사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결국 외국어학원을 명실공히 최고의 명문 학교로 부상시켰다. 특히, 종전과 달리 '79

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와 평양외국어대학 등 외국어 전문대학들이 외국어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외국어학원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졌다. 비록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외국어학원 경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외 부문에 종사할 수 있어 자녀들을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부모들은 필사적으로 덤벼들었다. 자연스럽게 학원 입학을 둘러싸고 중상류층의 힘겨루기가 벌어졌으며 직권 남용, 부정 부패와 비리도 뒤따랐다. 학원 입학이 권력과 뇌물의 힘겨루기장이 되면서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입학 시험 및 발표를 전후로 학원에는 대형 벤츠 승용차들이 설새없이 드나들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일쑤였다. 중앙당이 입학 비리 감사에 나서곤 하지만 그들 자신 역시 관련돼 있다 보니 검열은 늘 형식에 그칠 뿐이었다. 평양외국어학원 입학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김일성종합대학이나 평양외국어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애당초 평양외국어학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학부모들은 청진, 함흥, 신의주 등 주요 도소재지들에 설립된 외국어학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도 한다. 외국어학원에서 가장 지망생이 많은 어학은 단연 영어이다. 대외 부문에 종사하거나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영

어과 지망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인기 있는 학교로는 금성고등 중학교와 평양음악무용대학 전문부가 꼽힌다. 이 학교들이 인기 학교로 떠오른 것은 김정일이 예술인들을 우대하면서 예술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은 유능한 예술인들을 키워 낼 목적으로 인민학교(초등 학교), 고등 중학교를 전문부로 두고 있다. 전문부를 졸업한다고 해서 타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는 대학 입학이 훨씬 유리하다. 평양학생소년궁전 부속인 금성고등 중학교는 '89년 5월 광복 거리에 만경대학학생소년궁전이 준공되면서 제1·제2 고등 중학교로 나뉘어졌다. 금성제1·제2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소년궁전의 과학 기술 예체능 등 각 부문의 소조실에 적을 두고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의무적으로 소조 활동을 한다. 학부모들의 금성고등 중학교 선호는 자녀들을 예술인으로 키우겠다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약기를 다룰 수 있게 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일반 학교 학생들이 3학년부턴 농촌 지원, 집단 체조 등 각종 동원에 내몰리는 것과 달리 이 학교 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동원제 외의 특전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어학원과 달리 음악무용대학 전문부이나 금성고등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가정 성분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아 고위층보다는 재

산가들이 많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신흥 부자로 부상한 복송 교포들이 많이 몰려 들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이유로 권력보다는 입시 관계자들에게 외화를 얼마나 짚러주는가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그 외에 유명 학교로는 평양제1고등 중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남산고등 중학교를 폭파시킨 김정일이 '84년 9월 영재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을 명해 세워진 학교다. 초기 이 학교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다닐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학교에 주어진 특전은 누구나 대학 입학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학교 학생은 졸업 후 시·군(구역) 대학 모집처에서 입학 추천을 받아야만 대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전이 많다보니 부정도 횡행한다. 그래서 평양제1고등 중학교는 권력과 뇌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비리의 온상이 돼버렸다. 중상류층은 자신들의 직위가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이 학교 입학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고위층과 부유층들이 자녀들을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반해 가난한 주민들은 인기 학교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

안개꽃과 합격증

조영혜

서울 신림여자중학교 교사

교육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교육 개혁 2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가족 교육 체험 수기를 현상 공모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교육 가족의 성공적 교육 사례나 감동적 교육 체험을 발굴, 홍보함으로써 열린 교육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개혁 이념의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자 실시한 이번 공모에서 우수상 수상작으로 뽑힌 수기를 소개한다.

반마다 결석생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오늘도 출석부에는 동그라미 두 개가 낫선 이름 옆에 나란히 그려져 있다. 신학기가 된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얼굴조차 모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 마흔 일곱 명의 얼굴을 살핀다. 결석을 하지 않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착한 아이들을 만난 것을 감사하면서도 언제 어느 순간에 터질 줄 모르는 화약고를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기도 하다.

생각보다 충동적인 아이들, 학교가 싫고 집이 싫어 나가는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의 과잉 기대를 힘겨워하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어지는 일과에 늘 지쳐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사소한 자극적인 말도 상처가 되고, 그것이 원인 아닌 원인이 되어 학교를 비운다. 때문에

나의 하루는 47명의 아이들이 제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애들아, 오늘도 무사히 학교에 와 줘서 고맙구나." 하는 인사말을 마음 속에서 여러 번 해 보며.....

교직에 들어선 지 햇수로는 10여년, 지금도 가슴 아리도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만 8년 동안 담임을 하던 중 유일하게 자퇴를 해야 했던 아이 이야기이다. 운이 좋았는지 그 때까지는 내가 맡았던 반은 별다른 허물없이 무사히 진급을 시키거나 졸업을 시켰었다. 그런데 교직 생활 2년이 되던 해 만난 그 아이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지금쯤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그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햇병아리 교사 시절, 나의 초임 발령지는 전라남도의 어느 시골 고등학교였다. 광주에서 통근이 가능했던 거리였으나 워낙 낙후된 지역이라 포장된 도로로 40분을 달리고 비포장 도로를 20여 분 가야 도로

변에 학교가 있었다. 가난한 마을, 그곳에 고등학교가 없으면 마을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처음에는 중학교 부설로 생긴 고등학교였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있는 학교였다. 그 때 1학년 여학생반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내 나이 차이는 아마 5~6살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과 첫 만남을 한 3월 초, 자리 배정을 하고 난 뒤 키가 커서 혼자 앉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눈에 띄었으나 별다른 생각 없이 키순서대로 자리에 앉게 하고 교무실로 들어 왔을 때, 임시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선이가 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교실에 갔더니 선이는 책상 위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혼자 앉는 것이 싫은가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달래준 뒤 교무실로 돌아왔다. 그렇게 제일 먼저 이름을 외우게 되고 강하게 인상이 남았던 아이가 선이었다. 선이는 첫날 울던 모습

과는 달리 학교 생활에 그럭저럭 적응하는 편이었고, 나도 55명의 아이들을 돌보아야만 했기 때문에 별생각없이 날마다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이의 돌발적인 행동이 4월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무조건 엎드려 있거나 친구들과 전혀 말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도 가끔씩 아주 큰 소리로 웃어 댄다고 반 아이들이 알려 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개인적으로 불러 이야기를 시키면 복도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눈발들만 응시할 뿐 입은 절대로 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자그마한 편지 봉투가 눈에 띄었다. 봉투에는 내 이름 석자와 검정색을 좋아하는 선이라는 찝막한 자기 소개가 씌어 있었다.

선생님, 저는 선이에요.

저를 기억하시죠? 3월 첫날부터 책상에 엎드려 울어 선생님을 당황하게 했던 선이를요. 그 때는 자리에 혼자 앉는 것이 싫어서 그랬어요. 저는 혼자인 것이 싫거든요. 혼자 있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입을 다물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 죄송해요.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는 고민이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참, 선생님.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 편지를 써도 되나요. 웬지 선생님께는 편지를 쓰고 싶어요. 언니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전 지금 죽고 싶어요. 죽어서 새가 되어 날아다니고 싶고, 야니 다시 태어나고 싶어

선이의 돌발적인 행동이 4월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무조건 엎드려 있거나 친구들과 전혀 말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도 가끔씩 아주 큰 소리로 웃어 댄다고 반 아이들이 알려 왔다.

개인적으로 불러 이야기를 시키면 복도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눈발들만 응시할 뿐 입은 절대로 열지 않았다.

요. 다시 태어난다면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죽을 수도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짙은 회색과 검정색이에요. 그건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색이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나니 너무 홀가분하고 좋아요. 내일 또 써도 읽어 주실거죠?

검정색을 좋아하는 소녀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편지치고는 너무도 어두워 깜짝 놀랐으나 늘 입을 다물고 있던 선이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 있다는 것이 반가웠다. 그러나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이라는 색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4월 중순 수학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의외로 선이도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학급 전원이 3박 4일의 수학 여행길에 올랐다. 그곳에서의 선이는 내가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이였다. 차 안에서

는 나와 신나게 춤을 추기도 했고 내 옆 자리에 앉아 말을 걸기도 했으며, 스스럼 없이 내 팔짱을 끼는 대담성도 보였다. 어쨌든 선이의 변화에 대해 내심 놀라면서도 반가웠으나 갑작스런 활발함은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여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무사히 수학 여행을 마치고 돌아 온 후 선이는 다시 어두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늘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있고 자율 학습 시간에도 복도에 나와 멍한 표정으로 바깥을 응시하는 모습은 정말 죽음을 앞에 둔 모습이었으나 경험이 거의 없는 나로서는 파악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선이 몰래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다행히 학교는 같은 건물에 있어 선생님을 만나기가 쉬웠는데, 그 선생님께서 들려 주신 이야기는 내게 선이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선이는 중학교 3학년 초기까지는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었다는 것이다. 공부도 학급에서 3등 안에 들었고, 글도 잘 쓰고, 집안 사정이 조금 어려웠으나 고등학교 진학도 광주로 갈 것을 계획하는 등(그 지역 중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광주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었는데 여름이 지나고 난 뒤 갑자기 변했다는 것이다.

공부도 안 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처음에는 사춘기를 심하게 겪나 보다 싶었는데, 결국 고등학

“선생님, 저는 선이예요.

저를 기억하시죠?

3월 첫날부터 책상에 엎드려 울어 선생님을 당황하게 했던 선이예요.

그 때는 자리에 혼자 앉는 것이 싫어서 그랬어요.

저는 혼자인 것이 싫거든요.

혼자 있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전 지금 죽고 싶어요.”
선이의 편지였다.

교 연합 고사도 광주에 가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도 광주로 갔는데 아마 사춘기를 심하게 앓은 모양이라고 하며, 아이가 자존심이 강해 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석연치 않은 면도 있었으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로 했다. 첫 편지를 보낸 후 선이는 날마다 출근하면 볼 수 있도록 아침 일찍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 놓았고, 내 하루는 선이의 편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편지는 항상 흰 종이에다가 검

정 테두리를 그은 것으로 내용은 결국 죽고 싶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그래서 하루는 선이를 남게 하여 들어서 학교 밖에 있는 논둑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선이를 가두고 있는 어둠의 색채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면 선이는 고민 없다는 얼굴로 씩 웃으며 자리를 떴다.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듯.

그러던 어느 날, 그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반장이 교무실에 뛰어오더니 선이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올라가 보니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놀란 아이들은 저만치 피해 있었고, 내가 다가선지도 모르는 선이는 그 자리에서 영영 울고 있었다. 수건을 건넌 내 손을 외면한 채 울고 있는 선이에게서 낯선 면이 느껴졌다.

그 날 이후 선이는 눈에 띄게 변해 갔다. 선이를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태로움마저 느꼈다. 어렵사리 선이의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부모님은 선이를 마흔에 가까운 나이에 낳으셨기 때문에 연로하셨고, 오로지 농사일밖에 모르는 순박한 분이셨다.

최근 선이의 행동을 말씀드리고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기만 하셨다. 그러던 6월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학교로 달려 오셨다. 아침에 선이의 표정이 이상해서 가방을 뒤졌더니 책은 하

나도 없고 옷 한 벌과 속옷 한 벌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데리고 왔노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순박한 어머니는 무조건 울기만 하셨다.

일단 어머니를 보내고, 선이에게 물었더니 바람을 쐬고 오고 싶어서 그랬노라고, 이를 정도만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다고 한다. 선이에게 일단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한 뒤 복잡해진 머리를 정리할 겸 바람 쐬고 싶으면 주말에 광주에 오라고 했다. 같이 등산도 하고 시내도 돌아다니고 그러자고, 내가 시간을 비워 둘 테니까 광주에 와서 연락하라고 하니 밝은 얼굴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주말 선이는 내게 전화를 걸었고, 난 선이와 무등산도 가고 대학 캠퍼스도 가서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알아 내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결국 선이에게 절대로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고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며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방학이 될 때까지 선이는 비교적 학교 생활에도 충실했고, 나도 어느 정도는 선이에게서 벗어나 학교 일을 할 수 있었다. 방학을 하던 날, 괜히 불안해져서 선이를 불러 방학을 잘 보낼 것을 약속하고, 내가 수시로 전화를 하겠다는 것. 힘들면 광주에 와서 날 만나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상하게도 선이가 방학 동안에 집을 나갈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서였다.

방학한 지 3일 만에
눈물에 젖어
목이 쉬어버린 선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선이가 짧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그 순간 너무 허탈했다.
선이에게 쏟은
내 정성이 한 순간에
날아가고
배신감마저 들었으니까.
3일 전 내게 한
약속은 무엇이였을까?
그 아이가 나를 우롱한 것
같아 속이 상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선이가
걱정이었다.

방학한 지 3일 만에 눈물에 젖어 목이 쉬어버린 선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선이가 짧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그 순간 너무 허탈했다. 선이에게 쏟은 내 정성이 한 순간에 날아가고 배신감마저 들었으니까. 3일 전 내게 한 약속은 무엇이였을까? 그 아이가 나를 우롱한 것 같아 속이 상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선이가 걱정이었다. 늘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던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나 어디선가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불안해 있었는데, 며칠 후 발신지가 부정확한 편지를 받았다.

선이었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한 편지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는 말과 함께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고 쓰여져 있었다. 아이의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봐도 선이가 있는 곳은 알 수 없었다. 어떤 아이는 서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아이 부산이라고 했고, 다른 아이는 충주에 있을 거라고 했다.

개학이 되었으나 선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친구를 통해서 자취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밝혀겠다는 짙막한 쪽지 하나를 받았을 뿐이다. 수업 시간에 비어 있는 그 아이의 자리 때문에 괴로웠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 나이보다 숙성해 보이는데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유혹을 받은 것 아닌지 싶었고, 혹시 잘못되었거나 나쁜 곳에 취적해서 자기 삶을 포기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 아는 방법을 동원해 수소문해 봐도 선이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선이의 결석이 장기화되고 있을 때, 학교에서는 장기 결석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아이를 내 손으로 자퇴시키는 것이 선이의 삶에 금을 긋는 것 같아 학교에 조금만 더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목마르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선이의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내가 자기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것을 안다는 죄송스러운 인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퇴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섯 장에 걸쳐 쓰여져 있었다. 그 편지를 읽고난 후에야 어렵듯이 짐작하

던 내 상상이 맞았음을 알게 되었고, 선이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이는 결국 자퇴를 했다.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선이가 중학교 3학년 초까지는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평범하면서도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름 어느 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자 부모님이 떡을 했다고 옆 집에 돌리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떡을 옆집에 가지고 갔을 때, 옆집에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수고했다고 음료수나 먹고 가라고 해서 들어간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평소에도 친척과도 같이 알고 지내던 나이 많은 그 아저씨가 그 이후로도 계속 추근대는 것이었다.

그 충격으로 몇 번이고 죽을 생각을 했으나 차마 죽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연합 고사마저 떨어져 마을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아저씨의 추근뎀은 더해갔다. 선이가 어찌다가 그 아저씨와 마주친 날은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이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곳에 계속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집을 나온 것이란다.

한 성인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폭행이 한 순박한 소녀에게 절망감을 안겨 주고 인생 행로를 빗나가게 한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났으나

한 성인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폭행이
한 순박한 소녀에게
절망감을 안겨 주고
인생 행로를 빗나가게
한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났으나
어쩔 수 없었다.
선이의 말처럼
선이가 그 곳에 살면서
고통받느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겠지 싶어 자퇴서에
담임의 도장을 찍고 난 그날은
너무도 우울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다. 선이의 말처럼 선이가 그 곳에 살면서 고통받느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겠지 싶어 자퇴서에 담임의 도장을 찍고 난 그날은 너무도 우울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선이는 그 편지에 죽을 생각도 했으나 나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노라고, 열

심히 살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기약없는 말만 남긴 채 끝을 맺었다. 그리고 그 해가 다 지나고 해가 바뀌도록 선이에게는 편지도 전화도 없었다.

선이의 비밀을 동료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 속에 간직한 채 내가 맡은 아이들을 2학년으로 올려 보내며 빨갛게 그어진 선이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영리한 아이니까 잘못된 행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험한 세상이 거리를 해매는 아이를 그냥 둘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선이를 가끔씩 떠올리면서 또 새로 만난 아이들에게 적응해 가며 지내고 있던 다음 해 8월 어느 토요일,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선이었다.

“선생님, 선이에요. 저 기억하시죠?”

“어디니?”

“여기 광주예요. 오늘 시간이 있으면 아니, 시간 좀 내주세요. 선생님 만나 뵙고 싶어요.”

선이가 살아 있다는 것이 고마웠고,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주는 것이 더욱 반가웠다. 부랴 부랴 약속을 하고 광주에 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들었다.

“무슨 일로 오늘 꼭 만나자고 한 걸까?”

약속한 제과점에 들어가자 선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문 앞에서 한 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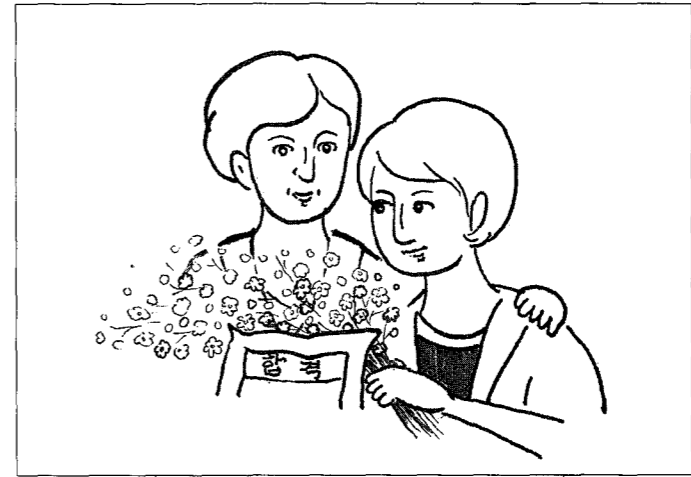
씨가 안개꽃 다발을 들고 들어오더니 내 앞에 앉는 것이었다.

“선생님, 먼저 이 꽃 받으세요.”

선이가 내미는 안개꽃 다발은 우리의 얼굴을 가릴 만큼 컸다. 우선 꽃보다 선이의 변한 모습이 궁금해서 선이를 바라보는데 내가 반 년 동안 지켜 보았을 때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이 있었다. 일단 안심을 하고 선이를 보는데, 그 때 선이가 한 행동은 내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했다. 꽃다발과 함께 내민 조그마한 쪽지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 고시 합격증이었다.

선이가 집을 나온 뒤 처음엔 부산에 가서 친구들과 며칠을 보냈단다. 죽으려고 생각도 해 봤으나 그때마다 내 얼굴이 떠오르고 삶은 가치 있는 것이고, 아름답다는 말이 떠올라 죽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광주에 왔는데 사실 돈도 없고 유혹의 손길도 많았으나 광주에서 대학에 다니는 고향 선배 언니를 통해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잠은 언니 자취집에서 같이 자고 살림을 도와 주면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지내 왔던 것이었다. 그리고 내게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라도 털어 놓고 나니 자기를 감싸던 죽음의 무게도 많이 가벼워



내 손에
합격증을 쥐어 주고 말하는
선이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선이의 손을 잡고
나도 같이 울었다.
오늘이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었고, 그 합격증을
제일 먼저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선이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선이가 아닌
의젓한 성인처럼 보였다.

졌고, 꼭 검정 고시에 합격해서 나를 기쁘게 해 줄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내 손에 합격증을 쥐어 주고 말하는 선이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선이의 손을 잡고 나도 같이 울었다. 오늘이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었고, 그 합격증을 제일 먼저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선이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선이가 아닌 의젓한 성인처럼 보였다.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친구들과 같이 대학을 가고, 국문학을 전공해서 자기도 선생님처럼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하

는 선이의 얼굴을 보며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그 후 선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계속했고, 내게도 항상 연락이 있었으나 결혼 후 연락처가 바뀌면서 소식이 끊어졌다. 선이와 같은 반 아이들이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연락을 해 오지만 선이의 소식은 들을 수 없다. 다만 어느 하늘 아래서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며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뿐.

그 당시의 학생들과 지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많이 바뀌었다. 그 때처럼 학생들과 함께 웃고 우는 끈끈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학생들의 착한 심성을 믿기 때문에 난 학생들에게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와 주는 학생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요즘이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도 난 우리 반 학생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

'복잡성 과학'이란 무엇인가

장승권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복잡성 과학이란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과학 연구의 한 흐름이다. 이 연구소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겔만(Gell-Mann)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로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경제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수학자, 컴퓨터공학자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고 있다.

1. 복잡성 과학이란

세상에는 어김없이 지속되는 현상이 있다.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규칙적이다. 최소한 우리들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계절에 따라 시각을 달리하여 뜨고 지지만,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을 믿으며 살고 있다. '만약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면' 하는 걱정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항상 규칙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주 많은 것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아무리 정확한 계측 장치를 사용하여도 최소한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기후를 정확히 예측해 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사회 현상은 더욱 불규칙적인 듯이 보인다. 우리 경제의 움직임을 보라. 그 추이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 만약 경기의 부침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아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사회 현상의 질서를 읽어 내려는 노력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자(특히 사회과학자)들이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을 우리의 인지(認知) 역량 밖의 세계라고만 치부했다면 현재 우리 인간 사회는 지금과 같은 문명이 아니고 수천 년 전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근대 과학 문명이란 이런 자연계의, 더 나아가 사회 현상의 질서를 읽어 내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근대 자연 과학의 시작을 말할 때, 우리는 뉴턴 등 서양의

자연과학자들을 꼽는다. 그들은 바로 엄밀한 관찰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연의 질서를 정교한 수학의 형태로 그리려한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이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근대 서양 문명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들 근대 과학이 추구했던 것을 요약한다면 질서를 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물의 질서를 알아내고, 그 질서가 작동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근대 사회는 질서 잡힌 보편성을 그 기본 가치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할 수많은 현상 앞에서 인간의 무지함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80년대에 주가의 대폭락이 일어났다. 수많은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도 이 현상은 예상할 수 없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상을 보자. 보다 나은 기술의 제품이 열등하게 보이는 제품에게 왜 시장에서 지는가를 의아해 한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보다 나은 기술의 제품을(같은 값이라면) 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실상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비디오 테이프 녹화 방식 중 소니의 베타 방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의 상황을 보면 기술적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한 소니의 제품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의 소니 경쟁사들이 마쓰시타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내놓은 VHS 방식이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 우

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 설명 모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복잡성 과학은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안적 설명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갑작스런 기후의 변화와 같은 자연계의 혼돈 상태나 주가의 급락과 같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바로 복잡성 과학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연구의 움직임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복잡성 과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잡성 과학이란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과학 연구의 한 흐름이다. 이 연구소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겔만(Gell-Mann)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로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경제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수학자, 컴퓨터공학자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고 있다.

2. 복잡성과 단순성

복잡성 과학(Science of Complexity)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복잡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한다. complexity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complexity를 일반적인 의미인 '복잡성'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복잡성 과학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공대의 물리학과 교수로 있는 세계적 물리학

자 겔만은 복잡성을 아주 정교하게 분류하고 이를 정의내리고 있다. 복잡성에 관한 그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상태가 복잡하다, 혹은 단순하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데 문장이 길어지거나 여러 문장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이는 복잡성의 정도가 높고, 그 반대라면 이는 단순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A와 F는 다같이 이 상태를 묘사할 때 설명이 짧으므로 그 상태는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즉, A는 모든 점이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F는 모든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A와 F는 비록 아주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는 있으나 이 둘 모두 간단하게 그 상태를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다(그림 생략).

그러나 나머지 BCDE는 모두 그 상태를 묘사하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A와 F보다 BCDE가 복잡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BCDE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3. 카오스

이제 복잡성 과학이란 용어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인 카오스(chaos)에 대해 알아보자. 카오스의 사전적 의미는 '창세기 이전의 혼돈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카오스 이론에서는 말하는 카오스 현상이란 '숨겨진 패턴이 내재되어 있는 불규칙한 듯이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스티이시, 1996).

이는 곧 결정론적 속성을 지닌 카오스를 지칭하며 카오스 속의 질

서, 혹은 불규칙성으로부터의 규칙성을 의미한다. 과학적으로 카오스 이론은 시스템이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때 겪게 되는 격변, 즉 카오스 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카오스 이론을 말하고 있는 카오스란 어떤 시스템이 확고한 규칙(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서 먼 미래의 상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아이하라, 1994).

물론 가까운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기상 예보가 그 좋은 예이다.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예보는 정확도가 높지만 한두 달 정도의 장기간은 예측하기가 힘들다. 카오스는 비선형계의 현상이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선형적인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카오스의 비선형 구조와 초기 조건의 민감성 때문에 단기적 예측은 가능하나 장기적 예측은 불가능하다. 카오스는 외부에 대해 열려진 비선형, 비평형계에서 일어난다. 이는 물질, 에너지,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있을 때 유지된다. 생물체가 그 예이다. 카오스의 발현은 죽은 상태인 열평형 상태가 아니라 비평형 상태에서 일어나고, 이는 자기 조직화라는 기능의 자율적인 생성을 수반한다.

인간 뇌의 학습 능력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들을 재조직하면서 능동적으로 적응한다. 즉,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는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비선형의

카오스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혼돈과 질서의 평형을 잡는 능력을 가지고 질서를 만들어 낸다.

카오스는 단순한 무질서와는 다르다. 카오스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자기 유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카오스란 숨겨진 질서를 품고 있으며,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4. 복잡성 과학과 카오스 이론

흔히 카오스 이론과 복잡성 과학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물론 이 둘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양자를 비교하는 것도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기상학자이며 프랙탈(fractal) 이론을 주창한 로렌츠는 기본적으로 이 둘이 비슷한 학문적 흐름에 서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미세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에 의하면, 복잡성 이론은 '공간에서의 불규칙'에 관심을 두는 반면, 카오스 이론은 '시간상의 불규칙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스테이시는 양자가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먼저 카오스 이론은 어떤 행동에 주목하고 이의 결정론적인 운동 원리를 찾아 내는 데 주력한다. 때문에 기상 현상 등 주로 물질적인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복잡성 이론은 비선형적 피드백 네트워크가 적응해 나가는 것을 주목한다. 따라서, 생물 현상

등 복잡 적응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의 상호 작용과 학습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양자의 특징을 하나로 묶어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둘 모두가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과학이기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복잡성 과학을 보다 큰 범주로 보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듯하다. 복잡성 과학을 카오스 이론과 자기 조직화 이론 등을 모두 포괄하는 최근 과학계의 지적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다. 수학에서는 기이한 끌개(strange attractor), 프랙탈 기하학, 세포 자동차 등이 그런 흐름이고, 생물학에서는 진화론, 인공생명 연구 등이 있고, 물리학에서는 열역학 연구 등이 있다.

복잡성 과학은 아직 형성 단계에 있고 패러다임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회 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사회 과학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 구성론 역시 복잡성 과학자 지적 흐름이란 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성공적 학생 지도

이 관 응

(주)엘테크 연구소장

21세기의 사회는 학교가 홀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혼자서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1세기는 기존의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그 사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학교·학부모·정부 및 기업의 관심과 투자, 그리고 노력이 사회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21세기에 성공적으로 생활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지금의 초등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중·고등 학생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과연 지금의 학생들이 현재의 교육 내용을 현재의 방법으로 배울 때, 이들은 21세기를 성공

적으로 살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교사는 충분한 답을 줄 수 있을까? 부모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켜야 하는가? 정부는 또 기업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은 21세기의 테크놀로지 사회에 적합한 방법

들인가? 끝없이 많은 질문과 의문이 쏟아진다.

한 사람이 성공적이기 위하여, 한 기업이 성공적이기 위하여, 한 나라가 보다 부강하기 위하여, 과연 학생들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점에 대해 학부모, 교사, 기업인, 정부 관료, 정치인 및 종교인들은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저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 그 방향과 답이 생각나기 전에 질문과 의아심이 꼬리를 무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지금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 학생들은 불과 몇 년 후면 21세기로 진입하게 된다. 이들은 곧 기업, 정부, 학교, 군대,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 가려면 어떤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하나로 21세기에 맞는 학생 지도 방향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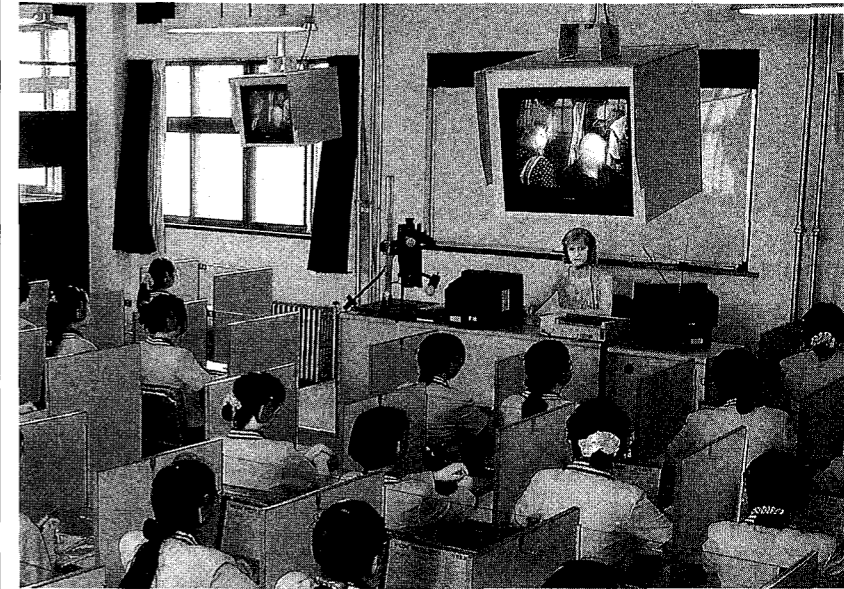
미국의 기업인, 교육자, 정부 관료,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인류학자 등 각계 인사 55명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21세기에 성공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식과 능력 및 태도가 요구된다.

1. 교육 내용

수학, 논리, 대인 관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정보 활용, 작문, 역사, 정부에 대한 지식, 문화의 다양성 등

2. 기본적인 능력

커뮤니케이션, 비판적 사고 및



외국어 구사 능력의 습득은 21세기 대비를 위한 기본 교육의 하나다. 사진은 첨단어학실에서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문제 해결력, 컴퓨터, 직업 성공, 적응력 및 유연성, 갈등 해결 및 협상 능력, 데이터 활용 능력, 외국어 지식, 독해 및 이해력, 자기 수련 등

3. 행동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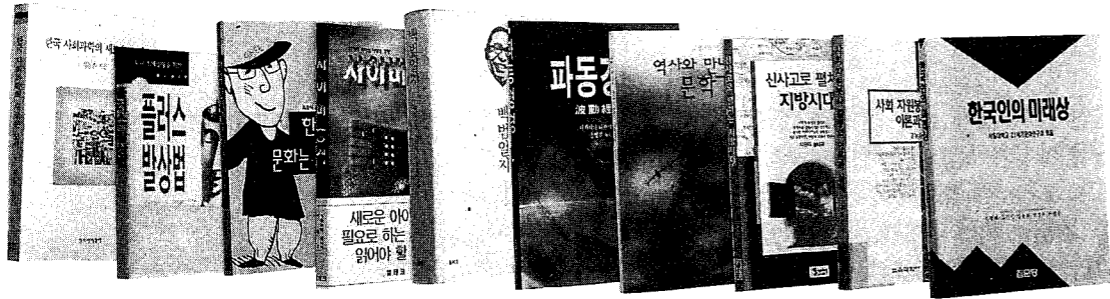
정직과 타인의 존중, 노력을 중시하는 가치관, 다양성에 대한 존중, 팀원으로서의 역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가족과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의견이 다를 때의 해결 능력 등

학교 교육은 한 사회의 인적 자원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교·학부모·일반 시민과 정부 및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21세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도 가정에서 이러한 교육과

가치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교육 정책에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성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단지 세금을 내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의 자원을 학교와 공유하고,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사회는 학교가 홀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혼자서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1세기는 기존의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그 사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학교·학부모·정부 및 기업의 관심과 투자, 그리고 노력이 사회 공동의 비전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



■ 21세기 미래 여행

이원복 글·그림
이 책은 문명과 역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 특유의 재치와 기지로 교양 만화의 새 장을 연 베스트셀러 만화가 이원복 교수가 21세기를 화두로 삼아 만화의 형식으로 쓴 책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껏 흔히 논의되어 온 '물질과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정신 문화·사회 구조·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다.
*신국판 340쪽 6,500원 김영사(745-4823)

■ 조선 향촌 지치 사회사

유항소와 향규, 향촌 지치 규약을 중심으로
박익환 지음
지방 자치체가 실시된 지 2년이 경과되었다. 이제는 국가 학계도 중앙 중심의 사고에서 지방 행정 및 자치 제도·향촌 사회사 연구로 확대되어 나가야 할 때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나라 지방 자치의 발전과 새로운 생활 윤리 확립 및 향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가 정착되는 데 한 몫을 다 하리라 생각된다.
*신국판 350쪽·15,000원 삼영사(737-1052)

■ 뜻으로 풀어본 우리의 옛 그림

허균 지음
이 책은, 그 동안 우리의 그림을 서양화 양식 위주로 해석했던 미술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조들의 정신 세계와 생활 철학이 응해 되어 있는 우리의 옛 그림을 재조명해 보자는 의도에서 쓰인 책이다. 현존하는 작품 중 회화 30점, 민화 10점을 선정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형식이 어떠한가를 해석하고 있다.
*신국판 288쪽 10,000원 대한교과사(3475-3862)

■ 문화 유산을 찾아서

이형권 지음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도 우리 문화에 대한 상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애정 어린 눈으

로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준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주제와 지역 특성에 따라 6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안내도와 일정표·생생한 컬러 화보가 실려 있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민중·문화사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우리 문화 이해에 대한 열기를 고조·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국판 384쪽 7,800원 매일경제신문사(2626-427)

■ 역사와 만나는 문화 기행

고부에서 일구정까지
최재봉 지음
외국의 문인들은 한국의 현대 문학이 현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온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한국 문학이 유난히 현실에 대하여 발언하였고 그에 가담하려 해 왔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동학 농민전쟁에서 1990년까지 쓰여진 문학과 역사·기행의 결합을 시도한 것으로 우리 나라의 문학이 역사와 긴밀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신국판 337쪽 7,500원 한겨레신문사(710-0568)

■ 또 하나의 일본

김성규 지음
현직 외교관인 저자가 일본의 지방에 근무하면서 일본의 진정한 모습을 피부로 체험한 내용을 수필 형식으로 펴낸 책이다. 일본의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식, 각종 재해를 극복하는 슬기, 그리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노력과 관행을 깨뜨리는 행정 등은 우리 나라 지자체와 교육 발전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신국판 295쪽 7,000원 현문사(275-3283)

■ 사회 자원 봉사 활동의 이론과 실제

김남순 지음
이 책은 메달라 가는 인정, 서로 불신하고, 험악한 범죄가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회로부터 벗어나 부드럽고 순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책이다. 봉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자원 봉사 활동과 외국의 사례들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310쪽 9,000원 교육과학사(363-6431)

■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

김준호·손심심 지음
민속 연구가이자 소리꾼인 김준호와 전통 춤의 팔방미인 손심심 부부가 수천 년을 우리 민족과 함께한 우리 소리가 현대에 와서 박물관이나 몇몇 학자들의 책에서 가사만 남아 있을 위기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 이 책은 '깃뒀음'·'첫째 마당'·'둘째 마당'·'뒀풀이'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 부록으로 우리 소리 강연 테이프가 함께 있어 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충해 주고 있다.
*신국판 269쪽 8,000원 이론과 실천(326-2590)

■ 한국 유학 사상론

윤사순 지음
이 책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표된 저자의 한국 유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적 효용성을 전제로 한국 유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유학의 현실적 적용과 비판적 계승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신국판 528쪽 15,000원 예문서원(925-5914)

■ 수업 장학

변영계 지음
이 책은, 수업 효율성과 관련하여 수업자인 교사의 장학을 중점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 수업의 효율성과 관련 있는 수업 기술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업 기술의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 학교 교사는 물론, 장학 담당자·학교 행정가·주임 교사 등이 수업 장



학의 기법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쓰이고 실제적인 예도 많이 들었다.
*신국판 359쪽 12,000원 학지사(363-1333)

■ 백범 일지

도진순 주해
이 책은 백범의 친필 원본은 물론 등사본과 필사본, 여러 가지 출간본 등 여러 저서를 일일이 면밀하게 검토·대조하여 쓰여진 책이다. 또한, 사진류는 물론 고전·규장각 자료 등의 고문서·수많은 회고록·일본과 중국 등 해외의 임정 관계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원본의 미흡한 점과 착오 등을 수정·보완한 책이다.
*신국판 500쪽 13,000원 돌베개(338-4143)

■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최준식 지음
이 책은 우리 문화의 정립을 위해 한국인의 부끄러운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고자 한 의도에서다.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문화 이론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이며, 이를 위해 세계 비교 문화를 이론을 가지고 한국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체계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신국판 312쪽 8,000원 사계절(736-9380)

■ 신사고로 펼치는 지방 시대

황태규 지음
플루리 민주화로 상징되는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지방의 노력에 일조를 하고자 지방 정부를 하나의 사업체로 인식하고 마케팅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을 상품화시키는 많은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국판 210쪽 5,000원 서울미디어(3443-2217)

■ 문화와 사고

리차드 웨더 지음/김의철·박영신 옮김
이 책은 인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한국심리학회가 추천하여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번역 지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출간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발간될 《문화 심리학 총서》 중 제 1권으로 준비된 것이다. 이 책은 문화와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신국판 406쪽 14,000원 교육과학사(363-6431)

■ 한국사 연구와 과학성

이세영 지음
우리 나라의 경우 식민지·분단·독재로 이어지는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변변한 사학사 개설서를 쓰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 나라 최초로 그 동안의 우리 나라 사학에 관련된 개별 논문들과 서구 역사 학자들의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논문도 함께 실어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것으로, 한국 사학사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55쪽 8,000원 청년사(737-6064)

■ 한국인의 미래상

김광해 외 4인
21세기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하고, 21세기에 대한 준비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는 '21세기문화연구회' 교수들이 21세기 우리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이 초일류로 갖추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국인의 미래상》과 《국토와 산업의 미래상》이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엮었다.
*신국판 227쪽 8,000원 집문당(743-3192)

■ 한국 사회 과학의 새로운 모습

김동춘 지음
《한국 사회 과학의 새로운 모습》은 저자가 '80년대 중반까지 써온 글 중 한국 사회의 인식론·연구 방법론·변혁 이론 관련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인식'이, 제2부와 3부에서는 우리 사회주의의 '이념주의' 병폐와 전체 변혁 운동 내의 부문 운동으로서 학술 운동의 가능성과 방향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신국판 431쪽 13,000원 창작과 비평(718-0541)

■ 플러스 발상법

사카이 이치로 지음/심문숙 옮김
인간이 평소 느끼지 못하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 내어 주는 것이 플러스 발상법이다. 저자는 평범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플러스 발상법을 자신의 체험과 함께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생명 과학과 체험을 바탕한 이 책은 21세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생활의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x6변형판 189쪽 6,800원 동이(324-3845)

■ 사이버 충격

에드워드 코니시·이관응 지음
이 책은 2025년을 향한 92가지 미래 방향을 사실적인 사례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로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문화·교육·업무·사업·경제·화폐·정부·미디어와 오락, 그리고 개인 생활의 변화에 대한 작은 시작을 알려 준다.
*신국판 279쪽 7,900원 엘테크(567-5885)

■ 파동 경영

나카지마 다카시 지음/윤영걸 옮김
저자는 파동을 전파·공명·간섭하며 공간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최고 경영자의 신념에 찬 언행 하나하나가 파동이 되어 전 사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성장·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파동 경영의 참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과 유능한 경영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신국판 233쪽 7,000원 매일경제신문사(2626-427)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무엇일까? 일찍이 소파 방정환은 "평화라는 평화 중에 훌륭한 평화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라고 말했다. 세상 모르고 새근거리며 잠이 든 어린이의 모습이야말로 순수를 자극하는 평화 그 자체일는지 모른다.

또는, 초원 위에서 풀을 뜯는 한가로운 소의 모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 악기(惡氣)라곤 찾아볼 수 없는 큼직한 두 눈, 도무지 욕심이라곤 없어 보이는 느릿한 걸음...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란 서정이 늘 우리들 입가에 맴도는 걸 보면 제법 귀가 솔깃해지는 애기다.

어떤 이는 눈 덮인 시골이라고 말할 거다. 하얀 눈이 속세의 티끌들을 다 덮어 버리고 초가집 뒤란의 굴뚝이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내고 있는 모습 앞에서라야 우리의 마음도 하늘 나라 어디쯤 와 있다는 착각에 빠질 만하리라.

하지만 난 자유롭게 노니는 새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다. 겨울날, 호수나 강물 위에 떠 있는 청둥오리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긴 목을 S자로 빼어두고 유유히 헤엄치는 순백의 고니야말로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평화의 상징이다. 차이코프스키 같은 유명한 작곡가도 고니가 헤엄치는 호수에 반해 <백조의 호수>를 지은 걸 보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흔히 백조라고 부르는 고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남 저수지 같은 유명한 철새 도래지에만 날아

유럽의 새



박창원
경북 청하중학교 교사

오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살고 있는 흥해의 서림지나 신광 용연지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겨울철, 세파에 짓눌린 가슴을 다독거리기엔 바다도 괜찮지만, 겨울 철새가 투명한 수면 위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헤엄치는 호수가 제격이다. 그들이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닫혔던 마음은 열리고, 산란했던 가슴은 비로소 고요를 되찾게 된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슬금슬금 달아나거나, 아예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저수지 한쪽 편에 자리잡고 있으니, 새에 대한 나의 관심은 이렇듯 언제나 짝사랑으로 그치고 만다. 야생의 자연과 인간은 이처럼 얼마만큼의 거리가 필요한 걸까?

지난해 11월, 해외 연수차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각 나라의 문화 유적을 둘러 보는 정형화된 견문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뼈 속 깊이 각인된 것은 다름아닌 그 나라들에 있는

새였다. 독일에는 어딜 가도 도심을 흐르는 수량이 풍부한 강이 있고, 운하가 발달돼 있다. 거기엔 배들이 다니기도 하지만, 어느 강이건 새들이 많다. 하이델베르그엔 네카르강이 있다. 언덕 위로 붉은색 하이델베르그 성이 올려다 보이는 이 강에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놀고 있다. 그 중에는 국내에도 흔한 청둥오리가 있어 친근감을 주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도 잘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선 청둥오리만큼 눈치가 빠른 새도 드물다. 물가에 놀다가도 사람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슬슬 물 가운데로 헤엄쳐 나가고, 급할 땐 물을 박차며 날아오른다. 항상 사람과 일정한 거리-뿔뿔이를 던져도 다다를 수 없을 정도-를 두고 노니는 게 청둥오리에 대한 나의 상식인데, 네카르 강의 청둥오리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다. 왜 그럴까? 같은 종인 청둥오리의 생태적 특성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 의문은 네카르 강을 가로지르는 고풍스런 칼데오도 다리 입구의 원숭이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청둥으로 만들어 세운 이 원숭이상은 보는 사람들에게 거울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옛날, 이 곳엔 원숭이들이 서식했다 한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멸종되고 말았는데, 환경 파괴를 계속하면 너희 인간도 나처럼 멸종되고 말 거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 보호'니 '환경 보존'이니 하는 백 마디 구호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환경 보호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사람이 다니는 길 옆에 헤엄치고 놀아도 잡으려고 하지는커녕 들머이 하나 던지는 사람 없는데, 굳이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얼간이 청둥오리가 있을까.

새를 보호하려는 독일 사람들의 노력은 학교 교실 창문에도 붙어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한 중등 학교를 방문했을 때다. 복도, 교실 할 것 없이 창문 중앙에는 으레 검정색 새 문양을 붙여 놓았다. 처음엔 학교의 상징물인가 짐작하고 있었는데 방문을 마치고 나올 때 쯤 궁금증이 발동해 그 학교의 교감에게 물어 보았더니 뜻밖에도 새들이 날아가다가 투명한 유리에 부딪힐까봐 그래 놓았다는 대답이었다.

이탈리아의 수상 도시 베네치아에 가면 산마르코 광장이 있고, 이 광장을 중심으로 산마르코 성당, 종루, 시계탑, 두칼레궁 등 유명한 유적이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득실거린다. 그러나 이 곳에 들어서면 수많은 비둘기떼가 날아와 발 밑에 내려 앉으며 반긴다. 어깨에 올라 앉는 놈이 있는가 하면, 머리 꼭대기까지 날아 앉는 '극성 팬'도 있다. 이 광장에는 수천 마리의 비둘기가 광장 주변 건물 곳곳에 보금자리를 틀고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즐겁게 한다. 사람들은 산마르코 성당 내부의 찬란한 금빛 모자이크를 보는 일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종루에 올라 베네치아 섬 전체를 관망하는 것보다 천진난만한 비둘기 속에 파묻혀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한 것이다. 1달러

씩이나 하는 먹이를 파는 상인도 둘이나 있다. 모이를 사서 뿌리면 순식간에 수백 마리가 몰려 든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다. 산마르코 광장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화 유산이다. 박제된 유물이 아닌, 살아 있는 관광 상품이다. 평화의 상징으로 곧잘 비둘기를 내세우지만 그러한 공식이 없어도 산마르코 광장의 비둘기는 그 현란한 날개짓으로 보는 이의 가슴 속에서 잔잔한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며,

빠알간 다리로 아장아장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비둘기로 인해 수상도시 베네치아는 더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이다.

겨울철만 되면 우리는 어느 저수지의 철새들이 인근 주민이 놓은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보도를 접한다. 새를 좋아하고 새와 더불어 사는 생활 환경을 가꾸고, 그 속에서 돈까지 버는 유럽인들이 오늘따라 저만치 올려다 보인다. *

숲

숲은
연륜으로
무성해서 아름답다.

비가 내리면
추억을 털어 내고
태풍이 일면
조용히 아픔을 삼킨다.

잠 잘 땐
귀를 열고
날이 밝아 오면
눈물을 흘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땀을 흘리며
살아 가리라.



구상길
부산 개림초등학교 교감



한 동산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부임하던 날 남 직원들은 결눈질을 하며 슬슬 자리를 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키에 우람한 체구가 서양의 프로 레슬링 선수를 방불케 하는 데다, 내려다보는 자세에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동산 선생님은 그 이름만큼이나 낙천적이지요, 남을 의식하는 기색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서 일 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직원협의회 때는 가장 늦게 들어와서 앉자마자 협의 내용은 듣는 등 마는 등 고개를 쳐박고 늘 끼고 다니는 표지를 씌운 책을 옆사람도 안 보이게 무릎 위에 펴놓고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학기가 지난 어느 직원협의회 날 호랑이 교감 선생님이 일어서기가 바쁘게 가시듯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교사 한 사람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모 선생님이 오기 전에는 학생들이 공부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요즘 6학년의 어느 반을 보십시오. 아마 남대문 시장 바닥도 그 보다는 나을거요. 이제는 옆 반 아동들도 물이 들어가니 선생님은 통감해야 할 거요.”

모두 하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한동산 선생님의 체구가 겁이 나서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하다가 퇴

한동산 선생님



김용대
수원 구운초등학교 교사

시간, 점심 시간, 그리고 청소 시간에도 한결같이 조용해 장학사님이 들리면 칭찬이 대단했고, 그 소문은 멀리멀리 퍼져 타 학교에서 시찰을 오기도 했다. 학생들이 그러하니 교사인들 오죽하겠는가. 그 결과 지역의 학력 경시라던가 백일장, 미술대회 등의 상은 쓸다시피했다. 아무튼 나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알고 도취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한동산 선생님이 부임한 이래 그런 모범 학교가 변해가고 있으니 누군들 좋아할 리 만무했다.

한동산 선생님 반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요란한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하면 왁자지껄 웃음이 떠나지를 않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면 책상을 옮기는 소음으로 언제나 시끌벅적했다.

인성 지도에 관한도 시범 학교로서 공개 발표가 일주일이 남았었다. 선생님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한동산 선생님은 교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나는 보다 못해 퇴근길에 한동산 선생님 교실을 찾아갔다. 칠판에는 아동 그림이 가득 붙어 있고, 벽에는 무질서하게 기타 수첩이나 예술가니 음악가라며 가당찮은 작품들이 조그만 공간도 없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미적 구상은 아예 무시한 터였다. 책상은 상식을 깨고 창문 쪽을 바라보게 웅기종기 모여 있고, 초



근 후 슬좌석에서만 고주알 미주알 안주로 씹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 교감 선생님이 시원시원하게 쏘아 주어서 선생님들은 고소해 한동산 선생님을 주시하는데 정작 얼굴을 붉히며 쥐구멍에라도 숨을 줄 알았던 한 선생님은 고개도 까딱 않고 그 우라질 놈의 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교감 선생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는 아침 자습 시간이나 공부

라한 간이 칠판이 서 있는 곳에서 한 선생님은 너절한 인쇄물을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입이 딱 벌어졌다. 이래 가지고 공개 발표를 하다니, “선생님! 많은 외부 손님들이 와서 보실 텐데 어찌시려고 이러세요. 바르게 정리 좀 합시다.”

“무슨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미운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실실 눈웃음을 쳐서 정나미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 간에는 위하는 마음으로 시간까지 할애해서 조언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다니. 자존심이 상한 나는 다음 날 교감 선생님께 이실직고를 하고 사족까지 달았다.

“교감 선생님, 그런 교사는 집에서 아거나 봐야 합니다.” 호랑이 교감 선생님도 한동산 선생님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결국 인성 지도에 대한 공개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한동산 선생님 반에 대한 사건은 심한 후유증으로 두고두고 남았다.

그 후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끝질긴 수업 참관과 우리 교사들의 멸시에도 끄떡하지 않던 한동산 선생님이 낙엽이 지던 직원종례 시간에 갑자기 마이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제가 아동들의 교육을 망친다니 더 있고 싶어도 머무를 수가 없군요.” 당당하기만 하던 그의 자세에서 처음으로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 주제에 무슨 말을 더 하려고’ 나는 다시 학교에 평온이 오겠거니 쾌재를 부르며 미움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어 초연히 떠나는 한 선생님을 교문까지 배웅했다.

“김 선생님,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이제 이 책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 선생님께 드릴게요.” 항상 끼고 다니던 때문에 책은 책이었다.

교문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 모여 있던 6학년 12반 아이들이 한동산 선생님이 나타나자 옷자락을 붙들고 가지 말라며 아우성이다. ‘짜식

들, 그런 선생님이 무엇이 좋다고’ 나는 비웃음을 남기고 교무실로 발길을 옮기며 책장을 넘기다가 제목 아래 쓴 자필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열린 마음 열린 교육’
- 내일의 수업을 위해서 오늘 할 일은 무엇인가 - *

‘고금도’ 사람들



강정삼
강진 성전초등학교 교사

고금도 사람들은
바다를 배고 누워
파도 소리를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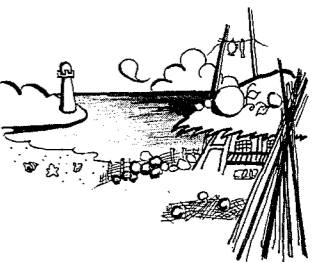
고기떼 소리
해초 날리는 소리
소라의 소리
한 무더기 망에 걸어 올리며
부르는 바다의 노래

어찌면 응어리가 끼어 있다.
어찌면 눈물어린 전설이 매달려 있다.



휘파람 같은 긴 한숨
뱉어내면 수평선은 섬 사이로 꾸겨지고
하늘로 오르는 통통배

파도가 바위섬을 뒤덮으면
입다물고 허연 머리카락 날리며
조용히 물그림자만 바라보는 눈
고금도 사람들은
바다 이야기가 물씬 젖어 있는
벧노래를 부른다.



미숙이네는 창신동 산꼭대기 우리집에서 셋방을 살았다. 집 아래야 흙을 짚어서 만든 집이니 오죽 했으랴만 그래도 겨울에 등따습게 해 주었고, 여름의 장마에도 비는 새지 않았다. 그런 집에 미숙이네가 이사를 하여 셋방을 산 것이다.

미숙이 아버지는 동대문 시장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 미숙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도라지 장사를 시작했다. 그 당시 미숙이와 종관이 형제는 초등 학생이었다. 학교에 갔다 오면 밤새껏 도라지를 까는 게 공부였다. 그래도 미숙이는 1등만 했다.

미숙이 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화병이 들어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 약값에 끼니가 어려워졌다. 끝내 미숙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할 수 없이 미숙이는 정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내가

운영하던 대명고등공민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학교에 다녔다. 밤에는 도라지 장사를 했다. 동생 종관은 조선일보 보급소에서 신문을 돌리기로 했는데 신문 보급소 소장은 어린 종관을 보며 격정하였다.

미숙이 아버지는 동대문 시장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 미숙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도라지 장사를 시작했다. 그 당시 미숙이와 종관이 형제는 초등 학생이었다. 학교에 갔다 오면 밤새껏 도라지를 까는 게 공부였다. 그래도 미숙이는 1등만 했다.

미숙이 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화병이 들어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 약값에 끼니가 어려워졌다. 끝내 미숙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할 수 없이 미숙이는 정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내가 운영하던 대명고등공민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학교에 다녔다. 밤에는 도라지 장사를 했다. 동생 종관은 조선일보 보급소에서 신문을 돌리기로 했는데 신문 보급소 소장은 어린 종관을 보며 격정하였다.

미숙이의 장학금



마대복
서울 은일여자정보산업고 교장



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보급소는 좁은 공간을 이용한 지하 2층 다락을 만들어 놓고 1, 2층에서 잠을 잤는데, 2층 다락에서 잠을 자던 아이가 잠꼬대를 하다가 그만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난로 위에 있던 펄펄 끓는 물통을 친 것이다. 그 옆에서 잠을 자던 종관이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다.

이화대학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3도 화상이었다. 다행히 얼굴은 괜찮았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병원비는 엄청났다. 신문 보급소와 대명 학생들이 모금을 하였지만 3개월여의 병원비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병원측에 호소하여 퇴원할 수가 있었다.

그 후 미숙이와 종관은 대명고등공민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미숙이가 결혼을 하여 어린애를 낳은 후 나를 찾았다. 지난날 고생을 하며 지나온 추억들을 울면서 이야기하였다.

“선생님 은혜를 갚아야겠는데요.”
“너희 형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도 기쁘구나. 아버지 소식은……”

“아버지 소식은 지금까지도 몰라요. 이젠 잊기로 했어요. 잊고 사는 게 마음 편해요. 종관이와 저

“밥이나 먹여 주고 야간에 학교나 보내 주면 됩니다. 봉급은 용돈이나 주고요”

사정해서 겨우 신문 배달원이 된 것이다. 그렇게 신문 배달을 시작한 지 6개월, 제법 배달을 잘했다. 푹푹했다. 그러던 겨울 밤에 보급

는 약착같이 살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거구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내가 근무하는 은일학교로 전화가 왔고 미숙이는 나를 만나러 왔다. 중학교를 다니며 고생했던 미숙이는 38세의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다. 보험회사에 보험 사원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선생님, 이제야 대명 장학금을 돌려 주고 싶어요.”

“생활에 여유가 생겼더니 반가운 일이구나.”

“사실 제가 좀더 잘 살면 빚을 갚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두 학생만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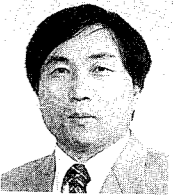
“무리하지는 말아라. 그 뜻만 해도 고마울 뿐이다.”

“그 때 당시 선생님이 도와 주시지 않았으면 중학교도 못다녔을 거예요. 그 때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울게요. 장학생 2명만 선정해 주시구요. 누가 돕는다는 이야기나 제 연락처는 알려 주지 마세요. 졸업식날 한 번쯤 만나 볼테니까요.”

그 후 미숙이 보험 아주머니는 매 학기마다 잊지 않고 장학금을 보내 주었다. 벌써 2년을 실천하여 은일여상의 원서희와 남지은이가 졸업반이 되었으니 졸업식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장학금을 받아 온 두 학생도 어른이 되면 어려웠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며 장학금을 마련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계속되리라 믿는다. *

갈대를 보며



임승천
서울 고척고등학교 교사

갈대는
눈물 하나 보이지 않고
살아 온 바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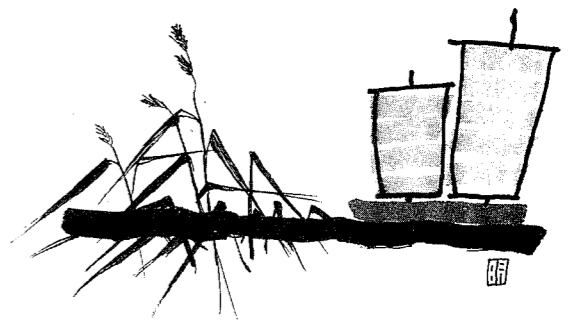
저만큼의 머리칼
저만큼의 가냘픈

섬에는
꽃 하나 피지 않았고
구름 한 점 고요히 떠 있을 뿐

세찬 물줄기 따라
튀어오르는 물고기 사이
산은 말이 없었다. 마지막 침묵이었다.

넘을 수 없는
하나의 춤추는 성

갈대는
마지막 가는 길, 흔들리는 바람이었다.



'98 해외 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교육부에서는 재외 국민 교육을 위한 한국학교(15개국, 21개교)와 한국교육원(13개국, 38개원)에 근무할 '98년 해외 파견 교육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선발 원칙

각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아 선발 시험(필기시험:외국어, 국사, 면접 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한국학교장, 한국교육원장은 국사 과목 시험이 면제된다.

2. 선발 인원

31명 (한국교육원 17명, 한국학교 14명)

3. 파견 국가

13개국 (미국, 일본, 홍콩,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집

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4. 자격 요건

교육공무원으로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교육부령 제665호, '95. 8. 10)'의 자격을 갖춘 자

5. 추천 서류 접수 마감

'97. 10. 9 (목)

6. 구비 서류

응시원서 1부 (소정 양식), 이력서 1부 (소정 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추천기관장 의견서 1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초·중등 교직과) 및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실(720-3405)로 문의

전국 고교생 외국어 학력 경시 대회 결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선경이 후원하는 제8회 전국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 경시 대회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주관으로 9월 6일(토) 한국의외국어대학교에서 08:30~17:30까지 개최됐다.

영어·독일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중국어·일본어 등 6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대회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격려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며, 외국어 교과교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대회에는 전국 고등학교 학생 2,336,726명 중 학교별 경시 대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3,72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각 시·도별 예선 대회 입상자 472명이 참가했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4개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양동필(전남 여수

고, 영어과) 등 금상 19명, 임성현(전북 상산고, 독일어) 등 은상 42명, 김선영(경기 원곡고, 일본어) 등 동상 79명, 우윤식(대전 남대전고, 중국어) 등 장려상 100명의 입상자가 확정되었다.

시상은 해외 체류 1년 이상의 경험 학생 및 외국어고 학생들과 해외 체류 1년 이하 및 국내에서 수학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등으로 구별해 각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시상하게 된다. 동상 이상의 수상자(120명) 전원에게는 선경그룹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94 대학 입시부터 외국어 특기자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국내에서 수학한 우수 입상자에게는 해당 외국어고 해외 연수의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이 대회 우수 입상자들이 어문계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해당 과목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고 있으며, '9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이미 한국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15개 대학이 외국어 특기자 선발을 했고, 3개 대학이 입시 과목 가산점을 부여한 바 있다.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Korean Proficiency Test, 약칭 KPT)이 올 10월 26일 처음 시행된다.

이 시험은, 영어의 TOEFL 또는 TOEIC 등과 같이, 한국어의 국제

화와 외국인인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평가의 표준화를 도모하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평가 결과를 한국어 학습,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선발, 국내외 한국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선발, 외국인의 한국 귀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회 시험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국내 4지역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16지역에서 협력 기관과 현지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된다.

원서 접수는 9월말까지 각 시행 지역의 협력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주관 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험 결과를 12월 하순에 통지할 예정이다.

교육 개혁과 학교 폭력 예방 대토론회

한국 교육 개혁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토론회가 10월 24일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열린다.

한국교원대(총장 우종욱)와 청주지방검찰청이 주최하고, 교육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토론회는 학교 폭력이 사회 전반으로 파급됨을 인식시키고, 학교 폭력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계, 언론계, 검찰·법조계, 청소년 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김준호 교수(고려대)는 '한국 교육 개혁과 학교 폭력 예방'이란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하며, 김진규 교육부 중등 장학관과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종기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의 주제 발표가 있다.

한국교원대는 이번 대토론회가 학교 폭력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관심 고조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그리고 국민 의식 개혁 운동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위성교육방송 무료 시청



생활 보호 대상자 위성교육방송 무료 시청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 사진은 EBS의 불어 회화 시간

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대해 지역 중계 유선방송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시청료도 받지 않도록 하여 위성교육방송을 경제적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25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위성교육방송을 시청하려면 일반 TV로는 직접 시청이 불가능하고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하거나 케이블에 가입 또는 지역중계 유선방송을 이용해야 하는데, 케이블 TV는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고 위성수신기 또한 가격이 비싸 소외 계층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지역 중계 유선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유선방송협회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방송권역내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월 시청료 등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각급 학교에서 대상 학생의 명단을 해당 지역 중계유선사로 통보하면 지역중계 유선사에서 무료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역중계유선방송사에 따르면 '97. 9. 9 현재 무료 설치 생활보호 가구수가 112,800가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로 무료 시설 가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월보》·〈교육소식〉 교육부 홈페이지 탑재

《교육월보》와 〈교육소식〉의 주요 내용을 9월 10일부터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에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그 동안 교육부의 교육 정책을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고,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월간 《교육월보》와 격주간 〈교육소식〉을 발간, 각급 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 유관 기관, 그리고 관계 인사 등에게 배부해 왔다. 그러나 한정된 간행물로서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홍보의 한



계를 느껴왔고, 또 개인 구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책자를 보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난 8월 1일자 정식 개통됨에 따라 《교육월보》와 〈교육소식〉을 에듀넷 홈페이지에 탑재, 교육부 홈페이지와 연결시킴으로써, 어느 쪽에서든 주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교육월보》는 '97년 7월호부터, 〈교육소식〉은 창간호부터 탑재했다.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에듀넷 홈페이지는 www.moe.go.kr로 들어가서, '교육월보/교육소식'을 클릭하면 된다.

에듀넷에서 학교 폭력 신고받는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멀티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정보 종합서비스시스템인 에듀넷에 '97년 9월 29일 '학교폭력지원센터'를 개설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97. 7. 10 대통령령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신고센터'를

개설을 협조 의뢰했었다.

이에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는 신속한 폭력 피해 신고 체제 확립을 위하여 에듀넷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6개 시·도교육청에는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신원 보장하여 조치한 후 결과 통보하게 된다.

학교 폭력 신고 방법

학생·교사·학부모가 에듀넷을 통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듀넷 문자서비스에 접속한 후 초기화면에서 27번을 선택한다.

* 에듀넷 접속 방법은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 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공중데이터 통신망(PSDN)인 01410, 01411을 이용하거나, 수도권 이용자를 위한 공중 전화 통신망(PSTN)인 02-747-0011로 접속한다.

* 이용자는 해당 교육청을 선택한 후, 기본적인 개인 정보(성명, 성별, 연령)와 E-MAIL, 전화, 방문, 서신 중에서 조치 결과 통보 방법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피해 내용을 신고한다.

이번 에듀넷 '학교폭력신고센터'의 개설은 앞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일조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 영위로 학교 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데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중등장학관실 ☎730-7669, 4657,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3488-6294)

대학 특성 살린 명칭 사용

앞으로 산업대학 등은 대학의 특성을 살린 교명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인 고등교육법안 제정과 관련해 그 동안 대학 관계자 간담회, 종교심 및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산업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의 명칭 사용 자율화에 대해서는, 5·31 교육 개혁 방안의 기본 정신을 고려해 고등 교육 기관의 법률적 구분은 유지하되, 대학의 명칭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성화 내용을 반영하여 교명을 사용토록 한다. 그러나 학교의 성격은 대학현장, 학칙 등에 명시함은 물론 교육 정보망 등에 게재하여 교육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학칙 보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의 확대와 더불어 학교의 장은 국가 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제정된 학교규칙이 제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행정 지도로 시정토록 한다.

셋째, 대학평의원회 등 대학 내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되, 사립 대학은 현행대로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수회는 현행대로 각 대학의 학칙에 자율적으로 규정·운영하도록 하겠다.

넷째, 전문대학의 심화 과정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 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심화 과정을 비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토록 한다.

중등 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 실시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과목별 과원 교사 해결 방안의 하나로 현직 교사 부전공 자격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통합되는 교과 교사와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로 과원이 예상되는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2만3천6백 명의 중등 교사에게 부전공 자격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연수 교육 실시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가정과 교사 7천명, 기술·산업과 교사 5천3백명, 그리고 7차

교육과정 시행시 과원이 예상되는 도덕, 체육, 교련, 음악, 미술과 담당 교사 1만1천3백명 등 모두 2만3천6백명이다. 이들 교사들에게는 컴퓨터, 한문, 환경, 제2외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대한 연수를 받게 한 다음 복수 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연수 교육 기관은 대학 및 시·도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 부전공 연수시 해당 교사들에게 1일 5천원씩 40일 기준 20만원씩의 여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현재 중등 교원의 과목별 과원 교사는 전국적으로 사회 33, 체육 31, 교련 13, 음악 1백99, 미술 2백37, 가정 5백2, 영어 44, 독어 34, 프랑스어 30, 기타 2백77명 등 모두 1천4백여 명에 달한다.

위성교육방송, 학습에 도움된다

위성교육방송 학생 반응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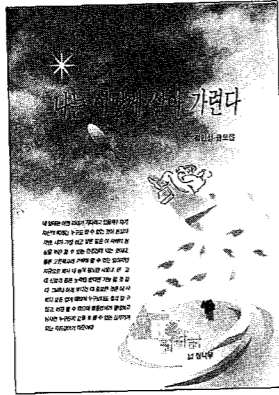
지난 8월 25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EBS 위성교육방송이 중·고등 학생들의 학습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위성교육방송 실시 이후 처음으로 직접 조사한 학생 반응 조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월 18일 전국의 중학생, 고등 학생 각 4,800명, 총 9,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반응 조사에 의하면, 고등 학생은 대상 학생의 70.69%인 3,393명, 중

학생은 73.75%인 3,540명이 위성 교육방송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고등 학생의 64.96% (3,118명), 중학생의 68.21% (3,274명)가 계속 시청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위성교육방송이 중·고등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계속 시청하기를 희망하는 과목은 고3 학생의 경우 1부에서는 언어 영역, 2부에서는 수리 탐구II (자연)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고1·2학년은 중급 과정과 고급 과정 모두에게 영어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1학년들은 영어를, 2·3학년은 수학을 계속 시청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짧지만 의롭게 산 내 아들 '살신성인 고교생' 정인성 군 추모집 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말 못하는 자 되어 처절하게 울음을 토해 내는 어미이고 싶을 뿐이다.”

지난 7월 21일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들을 구하고, 대신 숨진 고 정인성(당시 전주고 1년, <교육소식>11호 게재) 군의 어머니 온정숙(47) 씨가 아들이 남긴 일기, 편지, 독후감과 추모의 글을 모은 <나는 이렇게 살아 가련다>를 펴냈다.

이 책에는 정군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써 왔던 일기와 독후감, 친구와 부모 선생님들에게 보냈던 편지, 주위 사람들이 정군에게 보냈던 편지, 정군에 대한 추모의 글, 사고 당시 언론 보도 등 1백10여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어머니 온씨는 자식을 먼저 보낸 고통을 겪는 사람끼리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이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 인사

(' 97. 9. 19자)

발령 사항			현부서 및 직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이사관	윤한철	전라북도 부교육감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사관	이병수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현직위에서 2급승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고재형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지방직전출)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부이사관	오정근	한국고원대학교 사무국장	
교육부	부이사관	유영창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전라북도 부교육감	부이사관	황병수	교육부 감사관실(감사담당) (직위승진)	
교원양성담당관	부이사관	정동훈	교원양성담당관 (현직위에서 3급승진)	
비상계획관실	부이사관	박승태	비상계획관실 (현직위에서 3급승진)	
대학지원총괄과장	부이사관	곽창진	대학지원총괄과장 (현직위에서 3급승진)	
경북대학교 총무과장	부이사관	장영길	경북대학교 총무과장 (현직위에서 3급승진)	
평생교육기획과장	서기관	나종화	교육부(과제복귀)	

발령 사항			현부서 및 직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교육매체설비과장	서기관	고용	교육부(복직)	
미국, ACT 파견 (American College Testing)	서기관	김동욱	교육매체설비과장 (파견)	
OECD사무국 파견	서기관	백종면	OECD사무국 파견 (파견연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이근우	지방교육재정과	
초등장학관실	서기관	민영기	학술연구지원과	
순천대학교	서기관	양창현	교육부 초등장학관실(직위승진)	
전북대학교	서기관	이세운	군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사서서기관	강태원	서울대학교 정보관리과장	
서울대학교	사서서기관	백종환	부산대학교(직위승진)	
군산대학교	시설서기관	황호구	교육부 고등교육시설과	
학교보건체육과	서기관	명상률	전문대학행정과(4급승진)	
비상계획관실	서기관	이석재	비상계획관실(4급승진)	
산업교육총괄과	교육행정사무관	박주호	학교보건체육과	
전문대학행정과	교육행정사무관	전희두	평생교육진흥과	
지방교육지원과	교육행정사무관	공병영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교육재정과	교육행정사무관	여종구	국제교육협력관실	

(' 97. 9. 26자)

발령 사항			현부서 및 직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교육부 학술연구지원과	교육행정사무관	김은희	전남대학교(전입)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실	교육행정사무관	최승복	전북대학교(전입)	
교육부 과학기술과	교육행정사무관	박종덕	한국방송대학교(전입)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과	교육행정사무관	조병록	한국방송대학교(전입)	
교육부 전문대학학과	교육행정사무관	박동선	한국방송대학교(전입)	
교육부 교원정책담당관실	교육행정사무관	박성민	경기도교육청(국가직전입)	
교육부 교육정보기획과	교육행정사무관	이용학	서울특별시교육청(국가직전입)	
교육부 고등교육시설과	토목사무관	강태호	서울대학교(전입)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종근	교육부 과학기술과(지방직전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임윤주	교육부 교원정책담당관실 (지방직전출)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천홍	교육부(지방직전출)	
국립교육평가원	교육행정사무관	김영익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교육행정사무관	김세환	교육부	
영국, 리버풀대 파견	건축사무관	이화룡	영국, 리버풀대 파견 (박사과정 파견연장)	
한국방송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이명수	교육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교육행정사무관	이덕호	국립교육평가원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오성	창원대학교	
한국방송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손기조	서울대학교	
한국방송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이종철	교육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교육행정사무관	정경호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이종주	국제교육진흥원	
전남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정학기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박진규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양은혜수	공주교육대학교 서무과장	
강원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이종만	강릉대학교	
강릉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김승규	강원대학교	
대전산업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신현동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김재오	대전산업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서무과장	교육행정사무관	송중화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김남철	전주교육대학교 서무과장	
안동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진우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사서사무관	배홍식	안동대학교	
경북대학교	사서사무관	백양기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토목사무관	최인봉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건축사무관	조일환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기사무관	김창우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전기사무관	이재화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이지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과(5급승진)	
창원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이희창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5급승진)	
공주교육대학교서무과장	교육행정사무관	채인병	교육부 감사관실(5급승진)	
교육과정담당관실	강학관	두창목	교육과정담당관실 교육연구관(전직)	
한국고원대학교	교육연구관	한창만	한국고원대학교 교육연구사(승진)	
한국고원대학교	교육연구관	이정오	한국고원대학교 교육연구사(승진)	

발령 사항			현부서 및 직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한국고원대학교 사무국장	이사관	김재연	전라남도 부교육감	
전라남도 부교육감	부이사관	유영창	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 총무과	서기관	이덕호	교육행정연수원(4급승진)	
서울대학교	서기관	성명춘	서울대학교(4급승진)	
한국방송대학교	서기관	김일도	한국방송대학교(4급승진)	
서울산업대학교	서기관	이종주	서울산업대학교(4급승진)	
부산대학교	서기관	노종구	부산대학교(4급승진)	
한국해양대학교	서기관	권순돈	한국해양대학교(4급승진)	
경북대학교	서기관	신석희	경북대학교(4급승진)	
강원대학교	서기관	정명섭	강원대학교(4급승진)	
강릉대학교	서기관	김승규	강릉대학교(4급승진)	
충북대학교	서기관	김희웅	충북대학교(4급승진)	
한국고원대학교	서기관	김선왕	한국고원대학교(4급승진)	
충남대학교	서기관	김재오	충남대학교(4급승진)	
공주대학교	서기관	양은혜수	공주대학교(4급승진)	
군산대학교	서기관	김남철	군산대학교(4급승진)	
전남대학교	서기관	김광수	전남대학교(4급승진)	
경상대학교	서기관	조국제	경상대학교(4급승진)	
창원대학교	서기관	김영우	창원대학교(4급승진)	
고등교육시설과	시설서기관	박주현	고등교육시설과(4급승진)	
창원대학교	공업서기관	이재화	창원대학교(4급승진)	
서울대학교	사서서기관	고영채	서울대학교(4급승진)	
경북대학교	사서서기관	백양기	경북대학교(4급승진)	

(' 97. 9. 30자)

발령 사항			현부서 및 직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명예퇴직	부이사관	김종태	목포대학교 사무국장 (충남대병원 감사임명)	
목포대학교 사무국장	부이사관	김양복	교육부 산업교육총괄과장	
감사관실(감사담당)	서기관	이지현	감사관실(사정담당)	
교육부 감사관실(사정담당)	서기관	노승희	대통령비서실(전입)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곽현수	교육부 공보관실(전출)	
여수산업대학교 서무과장	서기관	김금호	목포대학교 총무과장	
목포대학교	서기관	박일용	여수산업대학교 서무과장	
산업교육총괄과장	서기관	정일용	교육정책총괄과	
공보관실	서기관	김은섭	감사관실	

**마음모아 보살피고
손길모아 선도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발명 교실' 개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교육장 김병철)은 '97. 9. 2일 서울강천초등학교에서 창의력 시험을 거친 관내 초·중등 학생 92명을 선발하여 '서부 발명 교실'을 개관했다.

이번 발명 교실은 발명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고 관내 초·중학교에서 과학·발명에 관심이 많은 교사 24명의 발명 지도교사와 5명의 명예 교사를 위촉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했다. 특히, 명예 교사 5명은 발명 전문가와 학교 주변의 목공소·철공소 등 기능인 5명을 위촉하여 실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사회 인사를 활용함으로써 현장감을 살리는 실질적인 발명 교육이 되도록 했다.

월·화요일은 초등 학생, 목·금요일은 중학생이 교육을 받게 되며, 수·토요일 오전은 30명의 어머니 발명반도 운영하여 학생들과 함께 발명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일반 학생들에게도 발명 교실을 개방하여 하루 2시간씩 발명에 대한 이론부터 실습까지 교육함으로써 일주일 내내 운영하게 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맹학교 신축 이전

우리 시교육청은 지난 9월1일 동래구 명장동에 현대 시설을 갖춘 부산맹학교를 신축해 준공식을 가졌다. 부산·경남 지역

의 유일한 시각 장애아 특수 교육을 맡고 있는 부산맹학교는 이로써 42년 간의 송도 교정 시대를 마감하고 명장동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날 동래구 명장동으로 신축 이전한 부산맹학교는 8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3천5백60㎡ 부지에 연면적 8천1백㎡ 규모로 16개 교실과 여학실, 과학실, 음악실 등을 갖추었으며, 고등부 학생 직업 훈련을 위한 전기치료실, 안마실습실, 지압실 등 11곳의 특별 교실이 마련돼 있다.

또, 체육관을 겸한 대강당과 실내 수영장을 설치하여 장애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교생 동시 급식이 가능한 조리실과 식당 등도 갖추었고, 1백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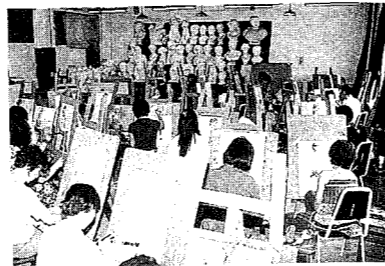
지난 1955년 문을 연 이 학교는 현재까지 1,05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12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제8회 초등 학교 교원 실기 대회 개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초·중 학교 교원의 예·체능 교과 전담교사 확보와 실기 지도 능력 및 전담교과에 대한 교과 지도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하여 '97. 8. 13 대구교대 및 부속초등학교에서 교원 실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에는 초등 학교 교사 299명이 참가하여 체육, 음악, 미술 등 3개 분야별로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교과별 경연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은 교육과정과 100m 달리기가 필수이며, 육상



운동, 기계 운동, 구기 운동, 민속 운동 및 무용 등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을 선택하되, 각 영역별로 1개 종목을 선택하고, 음악은 교육과정, 보고 부르기, 건반악기 연주가 필수이며, 가창, 기악, 창작 3개 영역에 각각 1개 종목을 선택하며, 미술은 교육과정, 스케치가 필수이며, 회화, 조소 및 꾸미기 서예 등 3개 영역 중 2개 영역을 선택하되 각 영역 중 1개 종목을 경연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1, 2, 3 등급으로 구분,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입상자는 등급별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정한 바에 의거 연구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98년도 학교 운영비 대폭 증액 지원

우리 시교육청은 '98년도에 초·중·고 각급 학교의 학교 운영비를 대폭 증액 지원해 학교 운영의 내실을 도모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금년도 초·중·고의 학교 운영비를 표준 교육비의 비율로 산출한 결과 초등학교는 87.4%, 중학교는 98.1%, 고등학교는 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학교당 지원 경비는 초등 학교의 경우 금년도 2천만원에서 '98년에는 3천만원으로 50% 증액 지원하며, 중학교는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6.6%, 고등학교는 1천4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7.1% 증액 지원키로 했다. 또한, 1학교당 지원 경비도 유치원은 2백8만2천원에서 3백만원으로 44%, 초등 학교는 2백90만원에서 3백20만원으로 10.3%씩 각각 증액 지원하며, 중·고교는 표준 교육비가 100%에 육박하거나 넘고 있어 금년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대폭 증액된 학교 운영비의 각급 학교별

총액은 유치원의 경우 6억6천만원, 초등 학교는 2백32억3천만원, 중학교는 43억9천8백만원, 고등 학교는 21억3천만원, 특수 학교 2억2천만원 등 모두 3백6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2백71억5천만원보다 12.8% 증액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무도 수련을 통한 심성 순화

우리 시교육청은 적극적인 생활 지도 일환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과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부적응 학생과 재입학한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 2학기부터 고등 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를 시범 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게 되는 '무도(武道) 수련을 통한 심성 순화 시범 학교'는 승신공고, 전남중, 치평중 등 3개교로 무술 종목은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전통 무예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종목으로 하고, 학교 주변의 도장을 지정하여 해당 도장의 사범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무도인을 사범으로 초빙하는 위약 교육도 가능하다.

무도 수련을 통한 심성 순화 시범 학교는 중퇴생들의 학교 복학에 다른 학부모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를 씻고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의 정서 순화와 내성적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교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시교육청에서는 시범 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있을 시 연차적으로 시내 중·고 및 여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폭력 추방 결의 대회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서순석) 관내 중학교연합학생회장단(34명)은 27일 오후 4시 교육청 대강당에 모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갖고,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 날 결의 대회에서 서 교육장은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고, 학생다운 학생으로서 새 시대의 역군이 되기 위해 스스로 나선 학생들의 결의를 치하하면서 이와 같은 학생 문화가 확산 정착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연합회장단 단장 백형기(법동중)군과 회장 단원들은 동부교육청 관내 중학생 3만 5,000여 명을 대표하여, ○폭력을 준수하는 학생임을 자부한다 ○폭력이 수치를 자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른 학생의 폭력을 목격할 경우 적극 저지하고 이를 신고한다 ○불량 서클에 가담하지 않는다 ○유해 업소 출입이나 흡연을 하지 않는다 ○불법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유해 약품 흡입 등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는다 등의 7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학교에 돌아가 학교별로 결의 대회를 갖도록 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 학교 급식 확대 실시

우리 시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초등 학교 급식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82개 초등 학교 97,572명의 학생 중 65개교 65,891명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79%의 급식 실시율을 보이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16개교 29,109명의 학생에게 추가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고 있어, 과대·과밀 학급으로 급식 시설을 할 수 없는 삼호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전 초등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교육청 관내에는 44개교 43,489명, 강북교육청 관내에는 38개교 54,083명의 초등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 중 강남교육청 관내에 37개교 29,595명에게 급식을 실시(실시율 84%)하고 있고, 강북교육청 관내에 28개교 36,296명에게 급식을 실시(실시율 74%)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강남교육청 관내 6개교 10,224명, 강북교육청 관내 10개교 18,885명의 초등 학생에게 급식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있어 강남교육청 관내 삼호초등학교 1개교를 제외한 81개교 95,000명의 학생이 급식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선도 '사랑의 종소리' 방송

우리 도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청소년 선도 '사랑의 종소리'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첫 사랑의 종소리 방송 지역은 동두천교육청으로 양주군청과 동두천시청의 긴밀한 협조로 매일 밤 10시에 시작해 40~50초 간 청소년 선도를 위한 방송을 교육청, 학교, 시·군청, 경찰서 등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 방송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비·향락 산업의 변장과 상업주의에 편승한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이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21세기 국가의 주역인 오늘의 학생·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지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거리에 내보내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자유로운 교육 여건을 조성,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랑의 종소리 방송은 도내 학생 및 청소년들의 늦은 귀가로 인한 탈선, 학교 폭

력 예방 및 근절은 물론, 화목한 가정,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교육청 학교 과외로 사교육비 대폭 절감

우리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과외가 열린 교육과 수준별 이동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적성 개발 학습은 물론, 교과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성취욕을 향상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용 면에서 연간 4백여원의 사교



육비 지출을 억제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현재 도내에는 7백여개의 초·중·고교에서 학교 과외가 실시되고 있으며, 도내 전체 학생의 65%에 해당하는 1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고등 학교는 전체 학생의 86%, 중학교는 66%, 초등 학교는 46%가 학교 과외를 받고 있어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방과 후 과외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도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과외의 내실화와 확산에 힘쓰는 한편, '방과 후 아카데미 타운 조성'과 '열린 교육 단지화 사업 추진', 그리고 교원 임용 발령 대기자의 강사 활용 등을 통해 방과 후 교육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도·농 어린이 기술훈동회 '합창'

충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시 어린이

와 농촌 어린이가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진천 백곡초등학교(교장 이운세)와 청주 한솔초등학교(교장 김학규) 어린이들은 9월 11 백곡초등학교 운동장에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는 대화합의 가을 운동회를 마쳤다.

이 날 운동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들고도는 세상, 지구는 돈다, 우리 마을 최고, 장애물 경기' 등 각종 게임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한솔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점심을 백곡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정성껏 준비해 농촌의 훈훈한 인심을 어린 새싹들에게 심워 주기도 했다.

두 학교는 '도·농간 교류 현장 체험 학습'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 한솔초등학교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전교생 편지쓰기와 미술 작품 상호 교환을 했으며, 5월 9일 한솔 운동회 때는 백곡 어린이 30여 명이 참석해 양교 간의 우의를 다진 바 있고, 지난 6월 3일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 백곡 학생들이 한솔 학생들의 초청으로 도시 체험 학습을 했다.

또한, 백곡초등학교는 농촌 현장 체험 학습의 장으로 실습지 400여 평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토끼, 비둘기, 닭 등 동물 농장 등 현장 체험의 장을 조성해 언제든지 도시 어린이들이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전달

우리 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 사랑 실천 운동'의 일환인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이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초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하는 '이웃 사랑 실천 운동'을 결의하고, 실천 운동의 하나로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도내 184개 유



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모두 6천 1백 50만원의 성금을 모아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184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통해 모금된 액수는 유치원에서 30만원, 128개 초등 학교에서 2천 5백만원, 39개 중학교에서 2천 9백만원, 9개 고등 학교에서 7백 10만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운동 전개와 함께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전북 교육 역점 시책 구현 계획

우리 도교육청은 21세기의 무한 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전북 교육 역점시책 구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문용주 교육감은 취임 이후 8개월 동안 전북 교육의 현상향을 파악코자 교육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교육 수요자 및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체적 진단을 내리고, 앞으로는 친취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펼쳐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비생산적 교육 구조와 여건들은 재정비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활동을 전개, 전북 교육의 위상 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 교육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하여 교육 본질의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점 시책 6개 분야에 31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문용주 교육감은 본 역점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학교 교육 개혁을 위한 교사, 교장, 행정 담당공무원에 대한 역할론도 제시했다.

전라남도교육청

'97 유아 교육 자료 전시회장 개관



우리 도교육청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담양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유아 교육 자료 전시회를 개최했다. 유아 교육 자료 전시회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육 자료 제작 동기를 유발하고, 유치원 교육 자료의 일반화를 통한 유치원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이날 전시회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예선을 거쳐 출품된 54편 모두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한편, 창의성·효율성·합리성·활용성 등 4개 영역의 심사 관점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곡성 목사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박혜숙 교사의 '손 근육 활동 게임 자료' 외 53점은 교육감 등급 표창을 받게 된다. 이 행사를 주관한 초등장학과 담당 장학사는 예년에 비하여 실용성과 창의성이 높고 주제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이 많아 앞으로 유치원 교육의 내실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분다고 내다보았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자료 전시회 개최

제 37회 경상북도 교육 자료 전시회가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안동

북주여자중학교 강당에서 도내 초·중·고등 학교 교사 작품 294편이 출품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수·학습 지도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발된 우수한 교육 자료를 전시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자료 제작 활동에 필요한 자질을 높이고, 자료 활용을 통하여 교수·학습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덕(윤리) 교육 분야 외 14개 분야에 유치원 38편, 초등 171편, 중학교 49편, 고등 학교 및 특수 학교 36편 등 총 294편이 출품되었다.

이 중 안동 영호초등학교 최기운 교사와 신성고등학교 황천석 교사가 공동으로 출품한 '공기 압력 현상을 시각화한 종합 탐구 자료'(과학 교육 분야)가 특상을 차지하는 등 특상 100편, 우수상 100편 및 우량상 94편이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상으로 선정된 작품 중 15편은 중앙 대회에 출전하는 영광도 함께 안았다.



경상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부모 순찰대 운영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부모 순찰대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학교 주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학부모 순찰대는 읍 지역 이상 전 공사립 초·중·고등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 인원은 각 학교별로 학급당 1~2명의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연합 순찰대를 조직하여 각급 학교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특히 경찰서, 시·군청 및 유관 기관 등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통하여 공동 대처토록 했다. 그리고 이들의 단위 학교별 활동 내용은 학교 주변 순시 지도 및 등·하교 귀가 지도 등이며, 지역 연합 순찰대에서는 야외 연합 지도 및 우범 지역에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순찰대 조직을 위한 고등 학교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회의를 9월 2일 교원연수원에서 가졌는데, 이곳에서 강신화 교육감은 "학교 주변 폭력은 반드시 추방하여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개설 완료

우리 도교육청은 본청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www.cheju-o.ed.cheju.kr)에 이어, 국내 처음으로 전체 지역교육청에 인터넷 웹서버를 구성하고 지난 8월 4일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학교와 더불어 인터넷 구축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각종 교육 정보의 신속한 제공은 물론 교육의 세계화·정보화에 부응하고 열린 교육의 실현과 제주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는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

또한, 9월 19일을 기해 개통한 제주도 과학교육원의 전산망 '파랑노트'에서도 과학 교육 자료·컴퓨터 관련 정보·현대 교수 기기 활용 정보·각종 연수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교원·학생·학부모에게 무료 인터넷 사용 계정을 발급하여 학교의 정보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

장애인이 대접받아야 선진 사회입니다

지난 9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97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가 개최되었다. 40여 년간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의 대부 조일목(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대회장 조직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조일목

'97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조직위원장

세계적인 장애인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어 장애인은 물론 관계자들의 긍지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준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여 현재까지 낮은 수준이지만 이번 국제 대회 등을 통해 한 단계씩 높아질 겁니다. 3차레나 우리 정부에 장애인 올림픽 유치 권고를 했지만 거절했을 정도로 당시 장애인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만, 장애인 올림픽을 잘 치러 내면서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지난해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을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수상했지요. 밖에서 보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렇게 낮은 것만은 아닙니다.

국내의 장애인 수는 대략 어느 정도 인니까?

흔히 장애인들은 200만 장애인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UN 통계에는 각국의 장애인은 인구의 10~12% 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주가 나라별로 달라서 숫자로는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지요. 국내 장애인은 지체부자유자와 농·맹아 복합 장애인, 정신 장애자 등 5개 분야만 장애인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알콜이나 마약 중독자 등까지 포함해서 인구의 24%를 장애인으로 보고 각종 정책을 펴고 있지요. 우리 나라도 만성신부전증 등 내장 장애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발생 특징은?

우리 나라의 선천성 장애인은 4~5%에 불과하고 전부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요즘 장애인의 대부분은 교통 사고, 산업 재해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의 누가, 언제, 어디서 장애인의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장애아와 정상아가 함께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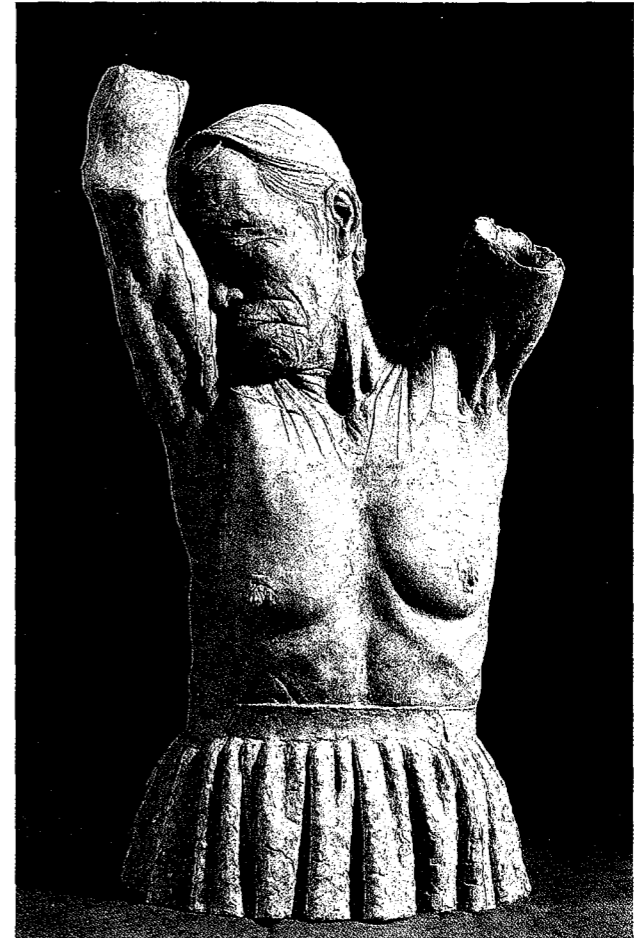
도 하고 놀이도 하고 직업 훈련도 받아야 하는 통합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대접받는 사회가 바로 선진 사회, 선진 국가지요.

그러기 위해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법과 제도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천국인 미국은 장애인법(ADA)으로 장애인의 이동권(移動權)이나 접근권(接近權)을 저해했을 경우 불편을 준 시설이나 기관은 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통합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실효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새로 짓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의 편의 시설을 고려한다면, 적은 부담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분산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부,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노동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합니다. *



구원 95-13·테라코타·41×67cm·1995년



강관욱 조각가, 전 전남대 교수

돌아보면 아득한 50여 년의 세월. 그 중 조각에 몸담아 온 30년은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다. 두 번은 살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으나, 다정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고통의 강에서 허우적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행복에 지친 안일한 영혼의 고통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들 영혼을 성숙시키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